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

#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 따른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에 대한 분석

## -1910년부터 1987년까지의 번안가요를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이론·음악학 전공

박 소 현

#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 따른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에 대한 분석

## -1910년부터 1987년까지의 번안가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민 은 기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이론·음악학 전공

박 소 현

박소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오희숙 (인)

부위원장 강용식 (인)

위 원 민은기 (인)

# 국 문 초 록

번안가요란 타국에서 이미 창작된 곡을 바탕으로 가사만을 자국 언어로 변환한 가요를 의미한다. 타국의 음악은 대게 자국의 언어로 번안된 번안가요를 통해 정착된다. 가사가 자국의 언어로 변환됨으로써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대중들이 수용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와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이전에 국가들 간의 음악적 교류는 번안가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7년 저작권 협회 가입 이전까지 번안가요가 다량으로 발매되었다. 한국 상업음악 시장 속 번안가요는 서구권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대중음악을 한국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한국 대중음악 장르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1960년대 포크와 락 장르의 시작도 번안가요에 의한 것이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달리 번안가요의 역사는 한국 대중가요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6년 발매된 첫 대중가요인 〈사의 찬미〉는 〈다뉴브 강의 잔물결〉을 원곡으로 하여 번안한 것이다. 이 작품은 레코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동시에 한국 음악계에 대중가요의 형식의 도입을 가능케 했다. 이처럼 번안가요는 한국 대중가요의 시초였으며, 이후 서양 대중가요 유입의 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안가요는 1차 저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대부분의 창작가요가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다른 국가의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발전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 대중음악사는 창작가요를 기반으로 기술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계에서 번안가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가 활발히 되기 시작했으나, 음악내적 요소에 대

한 분석 혹은 혼종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에서 그쳤다.

한국 대중음악사 속 번안가요의 중요성은 번안가요가 생산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러한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제도적 장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흔히 대중음악의 제도적 장치라 함은 저작권법을 가리키는데, 한국 사회 속에서 저작권법이 1957년에 정식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안가요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은 그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번안가요의 생산 과정에는 저작권법이 아닌 더 큰 힘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장치가 작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번안가요는 정치적 맥락을 기반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번안가요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정착부터 여러 전환점까지 한국대중음악사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1910년부터 1987년까지 3 개의 시기로 분류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번안가요를 해석하였다. 일제강점기 (1910-1945),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 (1945-1961),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 (1961-1987)로 나누었고, 각각의 기간은 정책기관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했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 교육령에 따라 4 개의 시기로,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는 정책에 따라 3 개의 시기로,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는 정책기관에 따른 3 개의 시기로 분화했다.

분석에 사용된 1차 자료는 각 기간별 발매된 번안가요였으며,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대중가요의 형태를 분석했다. 각각의 목록에 기초하여 연도별 생산 수치 그래프와 장르별 분포 비율 그래프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서술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정책과 번안가요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1910년부터 1987년까지 분석을 행한 결과 번안가요를 통한 서양

대중가요 유입의 형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다. 우선, 번안가요의 연도별 통계 수치 분석을 통해 정권의 정책의 방향에 따른 서양 대중가요 유입량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번안가요 생산에 대한 장려정책과 검열정책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유입량의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려정책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번안가요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두 번째로 원곡의 장르별 분포 비율은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정권의 접근 방식 혹은 작용방식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서구권 제국의 음악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던 반면, 후반기에는 전쟁을 거치면서 '재즈'를 중심으로 한 서구권 음악 금지 정책이 펼쳐짐에 따라 유입된 장르의 비율에 변화가 일어났다. 해방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와 미군의 선전정책은 대중들로 하여금 서양대중가요를 수용해야 하는 음악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서양대중가요 장려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1975년 포크, 락 과 같은 특정장르를 '역문화', '반정부적'인 음악으로 해석함에 따라 발매된 번안가요의 원곡 장르 비율 분포에서 큰 변화가 발견된다. 이처럼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 대중가요의 특정장르들은 정권의 접근방식에 따라 장려 혹은 검열되면서 정치적 지형에 따른 장르별 분포가 다른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매된 번안가요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여러 변화를 야기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당시 대중가요 장르인 재즈송이, 1950년대 이후에는 스탠다드 팝이, 1960년대 이후에는 포크송, 락, 댄스 등이 번안가요를 통해 한국사회로 흘러들어오면서 새로운 장르의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번안가요는 한국 대중가요사 속 타국 음악의 정착과 동시에 전환점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번안가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대중가요는 정치적 사회

적 산물이며 지배 계층에 의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대중가요는 음악이기 전에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의 질서를 마련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번안가요가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큰 흐름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적 흐름 또한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대중가요가 순수한 그 자체의 음악으로만 해석되기보다도 정치적 맥락을 통해서 분석되어야 하는 현상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주요어**: 번안 가요, 정치적 지형, 한국대중음악사,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 문화정책, 정책, 정치적 이념, 레코드 산업.
**학 번**: 2019-23239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배경 ····· 1
1.2. 연구의 필요성 ····· 4
1.3. 선행연구 ····· 6
1.4. 연구방법 ····· 9

2.일제강점기(1910-1945) ····· 12
2.1. 1910년-1922년 ····· 12
2.2. 1922년-1938년 ····· 18
2.3. 1938년-1943년 ····· 35
2.4. 1943년-1945년 ····· 42
2.5. 종합적 분석 ····· 44

3.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1945-1961) ····· 50
3.1. 1945년-1948년 ····· 50
3.2. 1948년-1953년 ····· 53
3.3. 1953년-1961년 ····· 56
3.4. 종합적 분석 ····· 61

4.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1961-1987) ····· 63
4.1. 1961년-1966년 ····· 63
4.2. 1967년-1974년 ····· 74
4.3. 1975년-1987년 ····· 86
4.4. 종합적 분석 ····· 99

5.결론 ····· 105

참고문헌 ····· 108
부록 ····· 116
Abstract ····· 158

# 표 목 차

[표 1] 1910-1922년 발매된 번안가요 ····· 15
[표 2] 1922-1938년 발매된 번안가요 ····· 18
[표 3] 1922-1938년 발매된 번안가요 원곡 대조표 ····· 28
[표 4] 1939-1943년 발매된 번안가요 ····· 35
[표 5] 1939-1943년 발매된 번안가요 원곡 대조표 ····· 40
[표 6] 1961-1966년 발매된 번안가요 ····· 65
[표 7] 1967-1974년 발매된 번안가요 ····· 74
[표 8] 1975-1987년 발매된 번안가요 ····· 86

#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1922-1938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24
[그래프 2] 1922-1938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 30
[그래프 3] 1922-1938년 연도별 장르 발매 수 ····· 31
[그래프 4] 1922-1938년 연도별 장르 발매 수 ····· 32
[그래프 5] 1939-1943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28
[그래프 6] 1939-1943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 39
[그래프 7] 1910-1945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44
[그래프 8] 1910-1945년 5년 간격 번안가요 발매 수 ····· 45
[그래프 9] 일제강점기 교육령에 따른 번안가요 발매 수 ····· 46
[그래프 10] 일제강점기 교육령 별 발매된 번안가요의 장르별 분포 ····· 47
[그래프 11] 재즈송과 경음악의 번안가요 비율 ····· 48
[그래프 12] 1961-1966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68
[그래프 13] 1961-1966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 71
[그래프 14] 1967-1974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80
[그래프 15] 1967-1974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 83
[그래프 16] 1975-1987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89
[그래프 17] 1975-1987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 96
[그래프 18] 1961-1987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 99
[그래프 19] 1961-1987년 5년 간격 번안가요 발매 수 ····· 100
[그래프 20] 1961-1987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 101
[그래프 21] 기간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발매 수치 ····· 102
[그래프 22] 기간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발매 수치 ····· 103

# 1. 서론

## 1.1. 연구배경

번안가요란 타국에서 이미 창작된 곡을 바탕으로 가사를 자국 언어로 변환한 가요를 의미한다. 번안가요의 가사는 변환된 방식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뉜다. 타국 언어로 된 가사를 직역한 방식을 번역이라고 일컬으며, 원곡을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가사를 창작한 방식을 번안이라고 한다.

번안가요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었던 시대에 타국의 음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구이자 새로운 장르의 시작이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타국의 음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장이 넓어졌으나, 1990년대 인터넷이 활발히 사용되기 이전까지 타국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은 한정적이었다. 이 당시의 번안가요는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음으로서 대중들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번안가요가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청년문화의 전유매체인 포크송과 락 음악은 미국 대중가요의 포크와 락 음악의 번안가요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서양대중가요는 라디오매체 혹은 음악감상실을 통해 흘러나왔고, 한국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이 접했던 곡을 바탕으로 가사를 한국어로 변환하여 음반을 냈다. 1960년대 번안가요가 잘 알려진 것은 당시의 기술과 매체가 이전시기와 달리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1960년대 이후 포크송과 락의 번안가요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실상 한국의 번안가요 역사는 1960년대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1926년 발매된 한국 첫 상업가요인 〈사의 찬미〉는 이바노비치(Invanovici)의 〈다뉴브의 강의 잔물결(Donau Wellen Walzer)〉에 한국어로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으로 한국의 첫 상업가요이자 동시에 첫 번안가요이

다. 다시 말해, 한국의 상업가요 역사는 번안가요로부터 시작된 셈이다. 특히, 한국 상업가요 역사의 초창기에 번안가요가 대중적인 관심을 얻었던 이유는 한국에 노래를 창작할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레코드 회사에서 직접 작곡가들을 발굴하여 고용하기 이전까지 상업가요를 창작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번안가요는 이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서양대중가요 유입의 직접적인 통로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번안가요의 생산은 더욱더 활발해졌다. 미군정 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양 문화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고, 라디오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유입된 서양대중가요들은 한국어로 번안 혹은 번역되어 번안가요로 발매되었다. 그러나 1987년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저작자작곡가협회세계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후 번안 저작물, 외국음원의 무단 사용이 규제됨에 따라 번안가요는 한국 상업가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1)2)]

1910년부터 1987년까지의 한국대중음악사의 전체를 아울렀던 번안가요는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번안가요에 대한 역사는 아래와 같이 세 시기로 나뉜다.

1.1910-1945년 일제강점기
2.1945-1961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
3.1961-1987년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

각각의 시기별로 생산된 번안가요가 다른 것은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1910년부터 1945년은 제국주의 시대에서 일본에 의

1) 권정구, “음악저작권 강화 전후의 번안가요 전개 양상”, 『대중음악 통권』, 17호, 2016, p. 19.
2) 이주원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번안가요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p. 32.에서 보면 1990년대 일본 문화 개방 이후에 일본 가요에 대한 번안곡들이 등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서양 대중가요를 번안하여 발매한 번안곡만을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기이며, 1945년부터 1961년은 해방 이후 좌우 대립과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 그리고 1961년부터 1987년까지는 민주화 이전 군사정부에 의한 독재정권 시기이다. 한국사에서는 주로 1945년 해방 이후 1987년까지를 5 개의 공화국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3], 정치적 지형 혹은 체제적 특성에 따른 시기 구분은 해방된 연도인 1945년부터 1961년까지와 5.16 군사 정변에 의한 군사정권 시기의 시작점인 1961년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까지로 나눠지며, 번안가요의 형태의 변화도 이에 따라 분류된다.

3) 제 1공화국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제 2공화국은 1960년부터 1961년까지, 제 3공화국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제 4 공화국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제 5 공화국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 1.2. 연구의 필요성

번안가요는 한국의 대중가요인 동시에 당시의 대중들이 접했던 타국의 대중가요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모든 타국의 가요들이 번안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번안가요를 통해서 대중들에 의해 향유되었던 타국 대중가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노래들을 기반으로 번안가요가 생산되었으므로, 당시의 번안가요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로 흘러들어왔던 타국의 대중가요를 살펴보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안가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대개 한국 대중음악 연구에서 창작가요에 대한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번안가요에 대한 연구는 비중이 적다. 번안가요가 1차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일 것이다. 최근 들어 번안가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창작가요에 대한 음악 내적 분석 연구가 아직까지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산 음악보다도 창작 음악의 권위가 암묵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창작가요의 대부분이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다른 국가의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안가요를 통해 대중가요 형식이 도입되었으며,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재즈송, 해방 이후 스탠다드 팝, 포크송, 락, 댄스등과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장르들은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타국의 대중가요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이다. 1987년 저작권 협회 가입 이전까지 번안가요는 한국 대중음악사 속 중요한 변환점, 혹은 새로운 전환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2차 저작물인 번안가요가 한국 대중가요 시장 속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대중들의 수요도나 음악 내적 요소에 대

한 분석으로 답변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질문은 정치적 분석을 통해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번안가요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권의 제도적 장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대중음악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은 주로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존재했으나, 일제의 지배하에 저작권 행사 주체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근대 저작권법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 고유의 저작권법은 정부 수립 이후 1957년이 되어서야 제정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정부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1987년 저작권 협회로 인한 저작권법 수정 이전까지 저작권 보호와 권리 침해에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번안가요의 존재여부에서 저작권법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법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번안가요의 생산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아닌 더 큰 힘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장치가 작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정책기관의 정책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에 대한 분석은 법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넘어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지향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번안가요의 생산과정에서 정치적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번안가요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대중가요의 형태가 상이했던 이유와 함께 대중가요사 속 번안가요의 위상 변화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의 변화와 정치적 상황과의 연결성에 대해 상세히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 1.3. 선행 연구와 한계점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 대중가요사 서적에서 번안가요에 대한 서술은 찾아보기 어렵다.[4] 주로 한국 창작 대중가요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번안가요는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루어지고 있는 번안가요도 시기적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에만 편중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번안가요가 상업음악의 시초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은 없으며, 일제 강점기 시기 번안가요에 대한 기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전과 달리 최근 10년 사이에 학계 내에서는 번안가요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번안가요에 대한 연구는 시기로 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일제시기 번안가요에 대한 연구는 유성기 상업음악들 중에서도 한국 근대 상업음악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장르인 '재즈송'과 신민요[5]의 서양적 요소의 정착의 원인과 상업가요의 정착의 원인으로서 번안가요[6]를 주목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배묘정(2014)[7], 황승경(2015)[8], 박진수(2016, 2017)[9], 이혜원 (2019)[10], 유옥란(2020)[11]등이 있다. 해방 이후에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로는  원재웅(2008)[12], 김수경(201

4)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서울:민속원, 2006.;장유정 서병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서울 : BM 성안당, 2015, p. 224 ;김창남 외, 『대중음악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p.239-311.

5) 장유정의 『오빠는 풍각쟁이야: 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2006)과 이소영의 『20세기 한국음악의 혼종적 음악하기: 신민요를 중심으로』(2018)을 참고하도록 한다.

6) 이상준의 '신유행창가'에 수록된 〈장한몽가〉는 〈이풍진 세월에〉, 〈수일이와 순애〉등 과 같은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번안되어 유성기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

7) 배묘정, "한국 대중가요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에 관한연구", 『한국예술연구』, vol.10, 2014, p. 79-112.

8) 황승경. "번안된 대중가요에 대한 음성학적 고찰", 『한국학 연구』, Vol.38, No.38, 2015, p.281-307.

9) 박진수, "한국 근대 대중가요의 관련 양상 서설", 『아시아 문화 연구』, Vol.42, 2016, p. 235-260. 와 박진수, "한국어 근대 대중가요와 번역", 『아시아 문화 연구』, Vol.45, 2017. p.57-82.

10)이혜원,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의 번안 양상", 『대중음악』, 통권 24호, 2018, p.65-94.

11) 유옥란·장유정, "20세기 전반기 한국과 일본의 재즈송 비교", 『문화와 융합』, 제 42권, 2020, p. 235-273.

12)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6)[13], 백욱인(2019)[14] 등이 있으며, 번안가요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 현대사회에서 변형되고 문화를 형성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해방 이후까지 대중가요사 전반 부분에서 번안가요를 다룬 연구로는 이주원(2018)[15]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번안가요의 가사를 통해 문화번역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작품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고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원곡과 번안가요의 리듬 변화방식 혹은 가사 변화 방식을 비교분석한 논문[16]들이 이에 해당된다. 원곡의 가사와 번안가요의 가사를 비교 분석한 연구의 경우, 가사 내용의 변화가 한국 문화와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 서양가요가 정착될 수 있었다는 바를 주장한다. 반면, 원곡의 멜로디 리듬과 번안가요의 리듬을 비교분석한 연구의 경우, 가사가 한국어로 바뀌면서 언어의 음율에 맞추어 리듬이 변형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한국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2,3곡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일반화할 수 없는 표본 수치이다.

두 번째로는 번안가요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구권 음악의 유입을 '근대화'[17]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반면, 앞서 서술한 번안가요의 가사 혹은 음율에 대한 연구들은 번안가요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상업 음악이 자발적으로 발전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대성이라는 한정적 틀 안에서 번안가요를 분석했던 것이다. 번안가요를 통하여 미국문화가 한국에 정착했던 방식에 대한 분석 또한 음악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

13) 김수경, "70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번안의 한 양상", 『이화어문학회』, vol.38, 2016. p.25-61.
14) 백욱인, "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혼종성", 『대중음악』, 통권 25호, 2019, p. 95-122.
15) 이주원, 위의 논문.
16) 위의 나열된 연구들 중 가사에 대한 연구는 배묘정(2014), 김수경(2016) 등이 있으며, 가사와 멜로디 리듬에 관한 분석을 행한 연구는 원재웅(2008), 이주원(2018) 등이 있다.
17) 황승경, 위의 글, p.289.

서구권음악의 비서구권 문화 속의 정착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점을 시사하고 있지 않았다. 그나마 백욱인(2019)[18]의 경우 '혼종성' 개념을 번안가요에 적용하여 분석을 행했으나, 번안가요가 '혼종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과정보다도 번안가요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 번안가요에 대한 연구들에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핵심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사회적 산물이며, 상업가요는 더더욱 사회적인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설명될 수 없다. 번안가요를 근대성 혹은 내재적 발전론 등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누락하는 것이다. 번안가요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혹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번안가요 속에서 음악적 어법 혹은 내적 요소들을 통해서만 서구권 문화의 정착을 설명하고 있다.

18) 백욱인, 위의 글.

## 1.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87년 이전까지의 번안가요를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번안가요의 시작점인 1910년부터 저작권 협회 가입시점인 1987년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그 사이에 발매된 번안가요에 대한 분석을 행할 것이다. 시기 구분은 위의 연구 배경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1910-1945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1945-1961년),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1961-1987년) 등 세 시기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각각의 시기 또한 세부적으로 분화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는 '헌병경찰통치기'(1910-1919), '문화통치기'(1919-1931), '민족말살통치기'(1931-1945)와 같이 3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각 시기가 바뀌는 시점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사회상과 관련이 깊다. '문화통치기'는 1919년 3.1운동 후 조선인들을 문화적으로 회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으며, '민족 말살 통치기'는 세계 제 2차 대전에 참전한 일본이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기 위해 실행했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책기관을 따로 두지 않았으며, 음악에 대한 법령은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37년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국가의 특성에 따라 교육령을 통해 조선인들의 문화와 음악 통제를 하려고 했다. 그렇기에 음악에 대한 정책으로 교육령이 자세한 내막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령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번안가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조선총독부가 집행했던 교육령에 따라 제 1차 교육령(1910-1922년), 제 2차 교육령(1922-1938년), 제 3차 교육령 (1938-1943년), 제 4차 교육령 (1943-1945년)과 같이 네 가지 시기 구분으로 나눈다.

1945년 해방이후 1961년까지의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1948년부터 1953년까지,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1945년 이후 한국은 좌우대립과 한국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1948년 정부 산하 기관인 공보

처와 문교부, 경무부가 설립되었고, 이 기관들은 문화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공보처란 법령의 공포 및 정부 발표와 정보 선전 통계 인쇄 출판 영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공보처는 1948년 설립 이후 1956년 대통령 직속기관의 공보실로 개편되면서 문화정책은 문교부에서만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정부수립 이전 시기인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휴전협정까지를 포함한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1961년까지를 나누어 서술하도록 한다.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부와 전부환 정부 시기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세 시기로 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문화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다른 시기들보다도 비교적 강력했던 시기이며, 음악에 대한 법률이 군사정권의 수립시기와 함께 공포되었다. 1961년 박정희 정부의 문화정책기관인 방송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66년에는 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1975년에는 〈공연활동 정화대책〉과 함께 공연윤리위원회가 설립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세 시기로 구분한다.

분석대상은 각 기간별 생산된 번안가요로 한다. 각 기간별 레코드 발매 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각기 다른 아카이브가 1차 자료로 선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번안가요 목록은 한국 유성기 음반 총목록[19]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는 신문기사에서 발굴한 번안가요를,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번안가요 목록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LP를 보유하고 있는 KBS 아카이브[20]를 기반으로 한다.

분석한 주 내용은 시기별 발매된 번안가요 목록을 기초로 하여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대중가요의 형태이다. 목록에 기초한 연도별 발매 수치와 장르별 분포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러한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상

19) 한국 유성기 음반 목록 저서와 함께 사이트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20) KBS 방송콘텐츠통합시스템, “음악 검색”, http://kcms.kbs.co.kr/. (2020년 9월 20일부터 2020년11월 10일까지 접속)

세히 서술한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바뀜에 따라 제도적 장치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번안가요 생산 수치와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 대중가요의 장르에도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번안가요와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음악 내적 분석이 아닌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목록에서 원곡과 번안가요에서 음악적으로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악적 분석도 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서양대중가요의 유입과 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힐 것이다. 정치적 지형에 따라 번안가요의 생산 형태가 상이한 원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며 정책과 더 나아가서 정책의 기저에 있는 요인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대중 가요사 속에서 번안가요의 의의는 물론, 번안가요를 통해 본 한국 대중 가요사 속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 2. 일제강점기 (1910년 - 1945년)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식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교육정책을 이용하였고, 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들에 맞게 교육정책을 바꾸어 나갔다.[21] 곽진오(2011)에 의하면, 조선에 대한 초기 교육정책은 동화주의 성격을 가미한 무단통치 형태를 띠었고, 3.1 운동을 겪으면서는 문화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 조선을 정치의식이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일부인 것처럼 동화시키는 정책의 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22] 당시 교육정책은 집중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조선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킬지에 집중했으며, 통제적인 교육정책을 펼쳤다.

### 2.1. 1910년 - 1922년

1907년 한국에서 첫 레코드가 발매된 후 1909년부터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음반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음반회사인 일미 축음기가 설립되었다.[23] 이후 1911년 9월부터 한국 음악을 다량으로 발매하였는데 이 당시 회사 이름은 닙보노홍(Nipponophone) 즉, 일축조선소리반[24] 이었다.[25] 1차 녹음은 국악장르의 곡들로, 2차 녹음은 정가, 잡가, 경기소리

---

21) 김지혜, 정호붕, "일제 강점기 교육령에 따른 교육 확대과정과 학교 음악교육 정책 연구", 『한국음악연구』, 한국국악학회발행, vol.56., 2014, p.63.

22) 곽진오,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 조선 교육령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vol.50, 2011, p. 256.

23) 배연형,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해제. 색인』, 서울: 한걸음 더, Vol. 5, 2011. 와 한국 유성기 음반 사이트 "3.유성기음반의 성장기 (나팔통 녹음, 1907~1927)" http://www.sparchive.co.kr/v2/sub/story/story.php?at=view&bid=11&uid=4164을 참고함.

24) 레코드 회사 이름이기도 하며, 하나의 분류반으로도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회사에 보급반과 고급반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일축 조선소리반'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쓰이기도 하였다.

등 한국의 소리 장르들과 함께 찬송가들로 구성했다. 당시의 녹음 기술은 전기 녹음 기술이 아닌 나팔통식 녹음기술이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녹음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1년 쪽판으로 판매되던 음반들이 1913년 양면판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근대 대중문화와 함께 레코드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26)]

초기 일제 강점기 시기에서는 레코드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으며, 레코드 산업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었다. 그럼에도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몇 가지의 규율은 있었다. 당시의 음악에 대한 매체인 종이 악보에 대해 일제는 1909년 법률 제 호로 〈출판법〉을 공포하였고, 별도로 1908년에는 학부령 제 16호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발표하여 음악교과서의 통제를 시행하였다.[27)]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한 이후 식민지화를 강화해 나아가던 헌병경찰통치기인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문화와 관련된 통제 철칙에서 음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옥배(2004)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25)한국 유성기 음반 사이트 “3 유성기 음반의 성장기 (나팔통 녹음, 1907-1927)” http://www.sparchive.co.kr/v2/sub/story/story.php?at=view&bid=11&uid=4165
26)앞의 사이트
27) 문옥배 “일제 강점기 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음악학』, 2006, vol. 13, 385-386.

*치안 방해 사항*

*1.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우려가 있는 사항*

*3.조국의 유래, 국사의 대체를 곡설분경하고 기타 국체관념을 동요케 할 우려가 있는 사항*

*8.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이론 내지 전략 전술을 지원 선전 또는 그 운동의 실행을 선동하는 사항*[28]

*9. 혁명운동을 선동하거나 이를 찬양하는 것 같은 사항*

*17. 반만항일 또는 배일을 시위 선동하거나 또는 이를 찬양하는 것 같은 사항*[29]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조선총독부는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일 투쟁의 노래와 같이 식민지 지배를 방해할 수 있는 곡들을 출판법에 의해서 금지했다, 또한,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곡도 통제를 당했다. 이는 조선어로 된 음악뿐 아니라 다른 음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10년부터 1922년 사이 발매된 번안가요의 제목과 연주자는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유성기 음반 목록 중 외국곡들은 모두 1921년에 발매되었다. 레코드의 전기 녹음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조선은 단일 음반회사체제였으며, 그로 인해 레코드가 한정적으로 발매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불법으로 복사된 해적판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후 10년간 발매되었던 곡들이 재 발매되면서, 레코딩 레파토리 또한 한정적이었다. 재발매된 곡들 중에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외국곡이 아래의 15곡에 해당된다.

---

28) 일제는 식민지 지배 체제에 반하는 사회 운동 노래들을 통제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농총동맹, 조선 공산당 등이 결성된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지도 사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였고, 사회주의 운동과 관계된 노래 역시 금지하였다. 이는 레코드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에 행해졌다. 문옥배, 앞의 글,, 2006, vol. 13, p. 386.

29) 문옥배, 『한국 금지곡 사회사』, 서울: 예솔. 2004, p.27.

| 발매회사 | 발매연도 | 장르 | 제목 | 원곡장르 | 가수 |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6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37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52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18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17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21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230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32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학도가 급 권학가 | 창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산아 높은 산아 | 창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부모은덕 | 창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252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160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5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72장) | 찬송가 | 기독교청년회원 |

[표 1] 1910년 – 1922년 발매된 번안가요[30]

첫 번째 시기에 발매된 외국곡은 총 15곡으로 그 중에서 12곡이 찬송가이다. 찬송가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조선에서 찬송가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다. 1884년 한미 수호 조약과 함께 클래식과 찬송가와 같은 서양음악이 조선으로 들어왔으며,[31] 서양음악 어법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접할 수 있었다. 찬송가는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유성기 음반으로 발매되는 등 한국 내의 서양 음악 도입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었

30) 한국 유성기 음반 총목록 저서들과 해당 사이트 http://www.sparchive.co.kr/v2/index.php 에 나온 외국가요, 외국곡 으로 분류된 곡들을 추출한 것이다.

31) 찬송가와 성가 유입 이후 1901년에는 군악대가 설립되었고, 에케르트를 초빙하여 군악대를 형성하고 지휘하였다. 박순애, “조선 총독부의 대중문화 정책-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일 민족 문제 연구』, Vol. 20 , 2011, p. 241.

다.

찬송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곡의 장르는 창가이다. 창가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학교교육에서 사용된 노래 또는 교육용 노래라는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조선에 있어서 창가란 서양의 노래, 서양식 노래 모두를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32] 창가의 유입은 제 1차 조선교육령과 연관이 있다. 제 1차조선 교육령에서 음악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는 일본화를 비롯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양악과의 동화를 꾀하려고 했다.[33] 특히, 여기서 '양악'이라고 함은 일본 근대 양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양음악이 일본에 정착하여 일본음악과 접목되면서 형성된 음악 혹은 음악어법을 의미한다. 양악을 바탕으로 창작한 창가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급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초기 번안가요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혼재되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창가는 번안곡으로 출발했다. 최초의 번안 창가는 1910년 발행된 이상준의 〈〈보통교육창가집〉〉에 수록된 〈장한몽가〉, 〈카츄사의 노래〉등이다.[34] 이 창가집은 악보형태로 발간되었으며, 일본에서 사용한 양악적 어법이 담겨 있는 곡이다. 이 창가집을 참고하여 한국의 창작 창가[35]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곡들과 함께 위의 목록에서 제시된 창가곡들은 번안 '가요'가 아니다. 이 곡들은 모두 교육적 목적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창작

---

32)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창가 범주 안에 속하는 노래들로는 찬송가를 비롯하여 찬송가 선율을 차용하여 만든 모든 노래를 의미하기도 하며, 찬송가 이외의 서양 노래의 선율을 차용해서 만든 모든 노래, 일본의 군가와 창가 및 그 선율을 차용한 노래 혹은 한국의 창작가곡이 출현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성악곡, 그리고 1945년 이전 학교교육에서 사용된 모든 노래 등이 있다. 민경찬,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p.74.

33) 앞의 책, p.77

34) 서양음악 혹은 서양군가의 경우 1890년대에도 에케르트와 서양군악대에 의해서 유입되었으나, 이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계층만이 들을 수 있었으며, 대중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서양음악이 번안되어 상업적으로 들어온 시작점은 창가집으로 보는 것이 맞다. 〈〈보통교육창가집〉〉에는 일본의 창가와 서양음악이 번안된 번안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35) 민경찬, 위의 글, p. 88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한국에 정착한 창가는 서양의 장·단조 조성음악에 바탕을 두고 있고, 기능화성의 음 진행 원리에 의해 선율이 진행되어 있으며, 반주가 없는 단선율과 평균율로 되어 있으며 행진곡풍의 노래가 대부분이다."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15곡은 번안가요와 번안된 곡의 경계에 위치해있다. 원판을 매체로 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번안가요라고 지칭할 수 있으나, 장르적으로 경제적인 목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창가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형성되어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점에서, 찬송가는 종교적 목적이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상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부재한다. 그럼에도 위의 곡들은 전기 녹음이 상용화되기 전 혹은 상업가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조선에 서양음악을 레파토리로 한 레코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찬송가와 창가가 하나의 레코딩 장르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2. 1922년 - 1938년

1922년부터 1938년까지 발매된 번안가요는 총 198곡으로 이전 시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1928년 전기 녹음의 상용화가 이루어진 이래로 전반적인 레코드 생산 수치는 증가하였고, 번안가요 발매 수치 또한 증가했다. 아래 표는 1922년부터 1938년까지 발매된 번안가요 목록이다.

| 발매회사 | 발매연도 | 장르 | 제목 | 원곡장르 | 가수/작곡가 |
|---|---|---|---|---|---|
| 뉴코리아 | 1936 | 재즈송 | 청춘랑데뷰 | 서양곡 | 김정구 |
| 닙보노홍 | 1926 | 외국곡 | 부활의기쁨 | 찬송가 | 윤심덕 |
| 닙보노홍 | 1926 | 외국가요 | 탕자경계가-이풍진세상을만났으니 | 창가 | 박채선,이유색 |
| 닙보노홍 | 1927 | 외국곡 | 너와나와살게되면 | 서양곡 | 박채선,이유색 |
| 디어레코드 | 1931 | 유행가 | 명사십리 | 일본곡 | 강금자/디어재즈밴드 |
| 리갈 | 1931 | 테너 독창 | 메기의 추억 | 서양곡 | 차재일 노래 |
| 리갈 | 1933 | 스켓취 |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 일본곡 | 이리안 범오 |
| 리갈 | 1934 | 관악 | 스워드 앤드 쉴드 | 서양곡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4 | 관악 | 애니라으리 | 서양곡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4 | 외국곡 | 매기의 추억 | 서양곡 | 차재일 관현악 |
| 리갈 | 1935 | 스켓취 | 카츄사의 하소 (상,하) | 창가 | 도무 이리안 |
| 리갈 | 1935 | 찬송가 | 평화한 밤 | 찬송가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5 | 찬송가 | 천사 | 찬송가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5 | 찬송가 | 주 날개 밋 | 찬송가 | 최연순 |
| 리갈 | 1935 | 찬송가 | 내 주여 뜻대로 | 찬송가 | 최연순 |
| 리갈 | 1935 | 관현악 | 미뇨트 서곡 | 클래식 | 연희전문관현악단 |
| 리갈 | 1935 | 관현악 | 모사익 | 클래식 | 연희전문관현악단 |
| 리갈 | 1936 | 합창 | 하와이의 노래 | 서양곡 | 연전합창단 |
| 리갈 | 1936 | 합창 | 올드 블랙 죠 | 서양곡 | 연전합창단 |
| 리갈 | 1938 | 재즈송 | 어두운 세상 | 서양곡 | 탁성록 |
| 리갈 | 1938 | 재즈송 | 모던 봉변 | 서양곡 | 안일파 |
| 리갈 | 1938 | 재즈송 | 하와이의 꿈 | 서양곡 | 임원 |
| 빅타 | 1932 | 유행가 | 봄소식 (캐래밴) | 서양곡 | 이애리수 |
| 빅타 | 1935 | 찬송가 | 주께로 옴내다 | 찬송가 | |
| 빅타 | 1935 | 복음가 | 주가 인도하는대로 | 찬송가 | |
| 빅타 | 1935 | 외국곡 | 자장가 | 클래식 | 슈벨트 |
| 빅타 | 1936 | 외국곡 | 내주를가까이 | 찬송가 | 박경희 |
| 빅타 | 1936 | 외국곡 | 기쁘다구주오셨네 | 찬송가 | 박경희 |
| 빅타 | 1936 | 외국곡 | 다뉴브강 | 서양곡 | 박경희/이바노비치곡 |
| 빅타 | 1936 | 외국곡 | 푸른하와이 | 서양곡 | 박경희 |
| 빅타 | 1936 | 재즈송 | 맘속의 꽃다리-스미스 | 서양곡 | 홍희명, 이복본, 빅타관현악단 |
| 시에론 | 1933 | 재즈송 | 명사십리 | 일본곡 | 전수린 |

| | | | | | |
|---|---|---|---|---|---|
| 시에론 | 1935 | 유행가 | 소망의노래 | 창가 | . |
| 시에론 | 1935 | 댄스 음악 | 다이나 | 서양곡 | . |
| 시에론 | 1936 | 재즈송 | 세인트루이스블루스 | 서양곡 | . |
| 시에론 | 1937 | 재즈송 | 코로라드의 달 | 서양곡 | . |
| 오케 | 1935 | 유행가 | 집시의노래 | 서양곡 | 손목인 |
| 오케 | 1935 | 댄스 음악 | 다이나 | 서양곡 | 다크미네 |
| 오케 | 1935 | 외국곡 | 니나의죽엄 | 클래식 | 이인선 |
| 오케 | 1935 | 외국곡 | 월계꽃-슈베르트 | 클래식 | 박경호,정훈모독창,<br>오케 교향악단 |
| 오케 | 1935 | 외국곡 | 주를찬양하라 | 찬송가 | 이화그리클럽 |
| 오케 | 1935 | 재즈송 | 우쿠레레삐비 | 서양곡 | 삼우열<br>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5 | 재즈송 | 집시의달 | 서양곡 | 삼우열 |
| 오케 | 1936 | 테너 독창 | 하날 가는 밝은 길 | 찬송가 | 이유선(독창)/째링<br>케 |
| 오케 | 1936 | 테너 독창 | 거룩한 성 | 찬송가 | 이유선(독창)/째링<br>케 |
| 오케 | 1936 | 댄스음악 | 바람이 산들/ 우쿨렐레<br>삐비(35) | 서양곡 | . |
| 오케 | 1936 | 재즈송 | 세인트루이스블루스 | 서양곡 | 삼우열 |
| 오케 | 1936 | 재즈송 | 코로라드의 달 | 서양곡 | 손 안드레아 |
| 오케 | 1936 | 재즈송 | 애 상의 브루스 | 서양곡 | 김해송 |
| 오케 | 1936 | 재즈송 | 다이나 | 서양곡 | . |
| 오케 | 1936 | 외국곡 | 미뉴엩 (사장조) | 클래식 | 베토벤 |
| 오케 | 1936 | 외국꼭 | 유모레스크 | 클래식 | 곽정순 |
| 오케 | 1936 | 소프라노 | 아베마리아 | 클래식 | 안병소,째링케 |
| 오케 | 1936 | 소프라노 | 안락한 가족 | 클래식 | 삐숍 |
| 오케 | 1936 | 안병소 | 무용환상곡 1,2,3, | 클래식 | 베리오 |
| 오케 | 1936 | 안병소 | 칸소네타 | 클래식 | 담부로지오 |
| 오케 | 1936 | 재즈송 | 라파로마 | 서양민요 | 이인선/오케관현악<br>단 |
| 오케 | 1936 | 외국곡 | 마리아 마리( | 서양민요 | 이인선/오케관현악<br>단 |
| 오케 | 1936 | 크리스마스 쏭 | 거룩한밤 | 찬송가 | 이인선 |
| 오케 | 1936 | 크리스마스 쏭 | 주여 인도하소서 | 찬송가 | 이인선 |
| 오케 | 1936 | 독창 | 오나의 태양 | 서양곡 | 이인선 |
| 오케 | 1936 | 독창 | 슈벨트 소야곡 | 클래식 | 이인선 |
| 오케 | 1936 | 독창 | loreley | 클래식 | 리스트/정훈모 |
| 오케 | 1936 | 외국곡 | 라-고 (라르고) | 클래식 | 이인선 |
| 오케 | 1936 | 근대가곡 | 자장가/ 월계꽃 | 클래식 | 슈베르트/정훈모 |
| 오케 | 1936 | 외국곡 | 아베마리아 | 클래식 | 정훈모/오케관현악<br>단 |
| 오케 | 1936 | . | 애의 비가 | 클래식 | 크라이슬러 |
| 오케 | 1936 | 외국곡 | 제비의 노래 | 클래식 | 로듸/정훈모 |
| 오케 | 1936 | . | 자장가 | 클래식 | 브람스 |
| 오케 | 1936 | 외국곡 | 쏠베이지의 노래 | 클래식 | 정훈모 |
| 오케 | 1936 | 외국곡 | 여자의마음-클래식 | 클래식 | 이인선 테너 |
| 오케 | 1936 | 외국곡 | 산타루치아 | 서양곡 | 이유선 |
| 오케 | 1936 | 재즈송 | 메랑코리 | 서양곡 | 손안드레 |
| 오케 | 1936 | 재즈송 | 캐리오카 | 서양곡 | 김해송 이난영 |
| 오케 | 1936 | 재즈송 | 카우보이노래 | 서양곡 | 삼우열 |
| 오케 | 1936 | 재즈송 | 스윗체리니 | 서양곡 | 삼우열 |
| 오케 | 1937 | 재즈송 | 라쿠카라차 | 서양곡 | 김해송 |
| 오케 | 1937 | 재즈송 | 목장의 로맨스 | 서양곡 | 김해송 |
| 오케 | 1937 | 재즈송 | 카푸리의섬 | 서양곡 | 김해송 |

| | | | | | |
|---|---|---|---|---|---|
| 일축조선소리반 | 1925 (1927) | 외국곡 | 내사랑아 | 서양곡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축조선소리반 | 1925 (1927) | 외국곡 | 우리가젊었을때 | 서양곡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축조선소리반 | 1925 | 외국곡 | 하날 가는 밝은 길 | 찬송가 | 권태호/관현악 |
| 일축조선소리반 | 1925 | 외국곡 | 주만난자들의 견고한터 | 찬송가 | |
| 일축조선소리반 | 1926 | 외국곡 | 아기재우는노래 | 클래식 | 이영희,오정화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동요 | 토기와거북이 | 일본곡 | 모양, 피아노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아기재우는노래 | 클래식 | 이순갑,홍난파,홍재우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시드른방초 | 창가 | 김산월/도월색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이 풍진세상을 | 창가 | 김산월/도월색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근대가곡 | 내고향을리별하고 | 서양곡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근대가곡 | 제비들은 강남에 | 서양곡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장한몽가 | 창가 | 김산월/도월색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다늡강의련파 | 서양곡 | 육국호산학교군악대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저 언덕을 넘어(오버더힐) | 서양곡 |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슷돈돈부시- | 일본곡 | 이난향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단조니보시 단쪼네 | 일본곡 | 이난향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베니스의 주래 베니스의 뱃노리 | 서양곡 | 박재국,바이올린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동요 | 속임 도레미파 쏠라시도 | 서양곡 | 이순갑,홍난파,홍재우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하이든작곡 미뉴엑서곡 | 클래식 | 홍난파,김원복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재즈송 | 매기의추억 | 서양곡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미뉴에트무용곡 | 클래식 | 하이든작곡,홍난파,김원복 피아노 |
| 일축조선소리반 | 1927 | 재즈송 | 클레멘타인 | 서양곡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축조선소리반 | 1928 | 외국곡 | 뒷동산 뻑국이 도앙에 돗는 달빗 | 클래식 | 박재국바이올린 |
| 일축조선소리반 | 1932 | 외국곡 | 나를인도하심 | 찬송가 | 리놀합스터루쓰 |
| 일축조선소리반 | 1932 | 외국곡 | 부르시네 | 찬송가 | 리놀합스터루쓰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경음악 | 이풍진세상을 | 창가 | 정위정,양우석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사의찬미 | 서양곡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신민요 | 이팔청춘가 | 창가 | 김죽사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파우스트노-엘 | 클래식 | 윤심덕/윤성덕 |

| | | | | | |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푸른갈닐니 | 서양곡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캔더키넨집 | 서양민요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쌘타크로쓰 | 서양곡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산타루치아 | 서양민요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가요 | 자라메라 | 일본곡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매기의 노래 | 서양곡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사랑스려운 클리멘트 | 서양곡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다뉴브강 | 서양곡 | 윤심덕,윤성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자비하신예수 | 찬송가 | 윤심덕,윤성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7 | 외국가요 | 시드른방초 | 창가 | 김산월/도월색 |
| 제비표 레코드 | 1927 | 외국가요 | 장한몽가 | 창가 | 김산월/도월색 |
| 콜롬비아 | 1929 | 경음악 | 대동강변 자라메라 | 일본곡 | 콜롬비아기악단 |
| 콜롬비아 | 1929 | 외국곡 | 리골레토-베르디 | 클래식 | 안기영 김은실 |
| 콜롬비아 | 1929 | 외국곡 | 뚜나-멕길 | 서양곡 | 안기영 김은실 |
| 콜롬비아 | 1930 | 재즈송 | 종로행진곡 | 일본곡 | 복혜숙 |
| 콜롬비아 | 1930 | 재즈송 | 그대그립다 | 일본곡 | 복혜숙 |
| 콜롬비아 | 1930 | 유행가 | 목장의노래 | 일본곡 | 복혜숙 |
| 콜롬비아 | 1930 | 유행가 | 애의광 | 일본곡 | |
| 콜롬비아 | 1930 | 외국곡 | 잘자라내아기 | 클래식 | 안기영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메리의 노래 | 서양곡 | 이애리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라인강 | 서양곡 | 이애리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베니스의 노래 | 서양곡 | 이 애리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젊은이의 노래 | 서양곡 | 강석연 |
| 콜롬비아 | 1931 | 외국곡 | 주자비하신 | 찬송가 | 띄엔루쓰/ 뿌쓰 |
| 콜롬비아 | 1931 | 외국곡 | 영광의찬송 | 찬송가 | 차재일,이광준 |
| 콜롬비아 | 1931 | 외국곡 | 매기의추억 | 서양곡 | 차재일 관현악 |
| 콜롬비아 | 1932 | 유행소곡 | 술은 눈물일까 한숨일까 | 일본곡 | 채규엽 |
| 콜롬비아 | 1932 | 외국곡 | 주의 뜻대로 | 찬송가 | 띄엔루쓰 |
| 콜롬비아 | 1932 | 외국곡 | 주내맘에오심 | 찬송가 | 차재일,이광준 |
| 콜롬비아 | 1933 | 경음악 | 하와이의노래 | 서양곡 | 최리차드(밴조독주) |
| 콜롬비아 | 1933 | 유행가 | 째즈 매기 | 서양곡 | 임헌익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니나의죽음 | 클래식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고요한밤거룩한밤-독일민요 | 서양민요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자장가 | 클래식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슈베르트세레나데 | 클래식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재즈송 | 바다로오너라-이탈리아민요 | 서양민요 | 현제명 동경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돌아오라소렌토로-디커티스 | 서양곡 | 현제명 동경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떨렁방울-스미스 | 서양곡 | 연전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흑인의망향가 | 서양민요 | 연전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사랑의노래-랑 | 서양곡 | 콜럼비아관현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황혼의종소리-월멧 | 서양곡 | 현제명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봄노래-스왈쓰 | 서양곡 | 임헌익 콜롬비아관현악단 |

| | | | | | |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멕시코세레나데 | 서양민요 | 현제명/나포타린만 돌린오케스트라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미네톤가호반-리유렌스 | 서양곡 | 콜롬비아관현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유행가 | 사랑의 유레이터 | 서양곡 | 채규엽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케트린마보닌 | 서양곡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스페니쉬세레나데 | 클래식 | 현제명 신 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산타루치아 | 서양민요 | 현제명, 동경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멍텅구리장가가요 | 서양곡 | 연희전문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4 | 재즈송 | 사랑의 랑데뷰 | 서양곡 | 채규엽 안일파 정일경 조금자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저건너스와니강 | 서양곡 | 포스터작품 |
| 콜롬비아 | 1935 | 재즈송 | 즐거운 내 살림(나의 푸른 하늘) | 서양곡 | 권영걸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오솔레미오 | 클래식 | 현제명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아베마리아 | 클래식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하바네라의노래 | 서양곡 | 박경희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낮잠자는마누라 | | 연전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빼국새는노래한다 | 클래식 | 채선엽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솔베이지의노래 | 클래식 | 박경희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삽살개-스미스 | 서양곡 | 연전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6 | 경음악 | 이팔청춘가 | 일본곡 | 콜롬비아기타 |
| 콜롬비아 | 1936 | 경음악 | 다이나 | 서양곡 | 콜럼비아기타척팔 사중추단 |
| 콜롬비아 | 1936 | 외국곡 | 보리타작 | 서양민요 | 현제명 |
| 콜롬비아 | 1936 | 외국곡 | 내주되신주 | 찬송가 | 경성성가합창단 |
| 콜롬비아 | 1936 | 외국곡 | 내주를 가까이 | 찬송가 | 경성성가합창단 |
| 콜롬비아 | 1936 | 재즈송 | 유쾌한 시골영감 | 일본곡 | 강홍식 |
| 콜롬비아 | 1937 | 경음악 | 희망의고개로 | 일본곡 | 콜롬비아재즈밴드 |
| 콜롬비아 | 1937 | 재즈송 | 이태리정원 | 서양곡 | 에르완 작곡 |
| 콜롬비아 | 1938 | 경음악 | 댓츠오케이 | 서양곡 | 콜롬비아재즈밴드 |
| 콜롬비아 | 1938 | 경음악 | 못부치는 편지 | 서양곡 | 콜롬비아재즈밴드 |
| 콜롬비아 | 1938 | 유행가 | 전화일기 | 서양곡 | 김해송,박향림 |
| 콜롬비아 | 1938 | 유행가 | 진주라 천리길 | 서양곡 | 임헌익 |
| 콜롬비아 | 1938 | 재즈송 | 정열의산보 | 일본곡 | 채규엽,콜롬비아리듬보이스 |
| 태평양레코드 | 1938 | 외국가요 | 아끼라메마스와요 | 일본곡 | 이남순 |
| 포리돌 | 1933 | 유행가 | 콘도라의 노래 | 일본곡 | 김활라/포리돌살롱 오케스트라 |
| 포리돌 | 1933 | 유행가 | 영치키 행진곡 | 서양곡 | 김용환/포리도루짜즈밴드 |
| 포리돌 | 1935 | 재즈송 | 도성의 밤노래 | 일본곡 | 김용환 |
| 포리돌 | 1935 | 외국곡 | 진실히 섬길것 | 찬송가 | 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5 | 외국곡 | 할렐루야 찬송 | 찬송가 | 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다이나 | 서양곡 |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청춘의 추억 | 서양곡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청춘리즘 | 서양곡 | 쪼핸리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집시합창 | 서양곡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룸바의 리듬 | 서양곡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죽음을이기심 | 찬송가 | 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전진합시다 | 찬송가 | 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참기쁘다 | 찬송가 | 요한 |

| | | | | | |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브람스자수가 | 클래식 | 브람스 작곡, 정훈모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애의비애 | 클래식 | 안병소,쩨링케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월계꽃 | 클래식 | 박경혼,정훈모,오케 교향악단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따이나 | 서양곡 | 배구자악극단 강덕월 |
| 포리돌 | 1937 | 재즈송 | 세인트루이즈부르스 | 서양곡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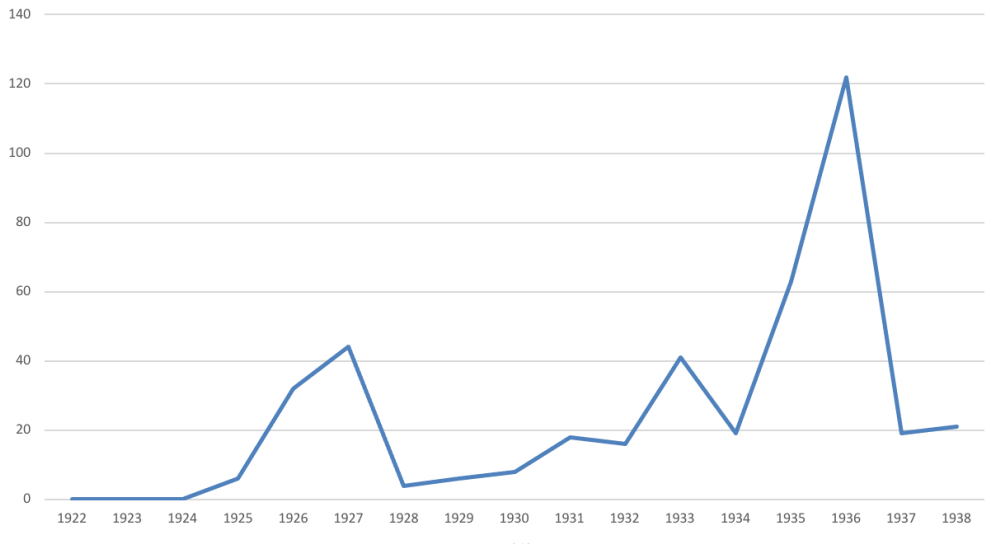
[표 2] 1922년 - 1938년 발매된 번안가요[36)]

이 기간 동안 번안가요 발매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조선총독부 제 2차 교육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제 2차 교육령이 단행되었던 시기는 1919년 3.1 운동 이후 통제가 아닌 문화적인 침투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문화통치기'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적인 요소를 배제하려 했던 이전의 움직임과는 달리 여러 문화적인 것의 투입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했던 시기였던 만큼 번안가요의 발매가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번안가요의 연도별 생산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36) 레코드사에서 간행하는 매일신보를 바탕으로 원곡의 장르를 작성하였다.




[그래프 1] 1922년 - 1938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927년과 1928년 사이, 1933과 1934년 사이, 1936년과 1937년 사이 총 세 지점에서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기 시작했던 기점인 1925년부터 중간에 감소하는 세 지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1925년부터 1927년까지의 증가하는 추세는 위의 [표 2]에서 나타나는 1925년 제비표 조선레코드와 닙보노홍의 레코드 녹음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닙보노홍은 1925년부터 20여곡에 달하는 번안가요를 발매했다. 제비표조선레코드는 1925년 설립 이래로 1926년 윤심덕의 〈사의 찬미〉와 함께 〈매기의 노래〉, 〈클레멘타인〉등 15곡의 번안가요를 발매했다. 제비표조선레코드는 1928년 전기녹음의 상용화와 함께 사라졌지만, 〈사의 찬미〉를 통해 레코드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기여를 했다.[37]

두 번째로, 1927년과 1928년 사이, 즉, 전기 녹음 상용화가 시작된 당

37) 배연형,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해제. 색인』 서울: 한걸음 더, Vol. 5, 2011 책의 '해제'부분에서 각 레코드 사별로 역사를 엮은 것이다.

시 번안가요 발매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제비표 레코드사의 폐쇄뿐만 아니라 한국 내의 서양 레코드 회사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 혼란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28년 콜롬비아 레코드를 시작으로 빅타 레코드, 포리돌 레코드, 1931년에는 오케 레코드, 1933년에는 시에론 레코드가 순서대로 설립되면서 1929년 안정기 이후부터는 많은 양의 번안가요가 발매되었다. 이들 중 콜롬비아, 빅타, 오케의 경우 미국에 본 지부를 두고 있는 회사이며,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번안가요를 생산하면서 번안가요의 발매 수치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종합하면, 전기녹음상용화로 인한 레코드의 활성화 및 레코드 회사의 설립이 1928년 이후부터 1936년까지 지속적으로 번안가요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핵심 요인이다.

반면 이 그래프에서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와 1936년과 1937년 사이에 감소한다. 이는 당시의 총독부에서 공포한 음반 검열의 결과이다. 음반의 녹음 기술이 한국에 정착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조선총독부는 음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경찰의 단속권이 임의로 적용된 통제의 규율은 존재했으나 공식적으로 음반검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레코드의 발매수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음악이 대중들에게 발현하는 힘을 인지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민족말살통치' 정책에 맞추어 음악에 대한 규율을 뒤늦게 만들었다.

음반법이 '민족말살통치'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것에 명백한 이유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음반 검열의 법적 근거가 조선에서 마련된 것이 1933년이었음에 비해, 일본 본토에서 비슷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1년 늦은 1934년이라는 것이다.[38] 즉, 조선에서의 1931년 '민족말살통치'가 시작된 이후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코드 검열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1933년 책정된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은 일제시대 음반 검열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으며, 공포되기 이전 언론을 통해 보도될 만큼 음반 검열의 공식적인 시행은 사회적 문화적 관심으로 부각되었다.

---

38) 이준희, "일제 시대 음반 검열 연구", 『한국 문화』, vol.39, 2007, p. 169.

*레코드 취체 규칙을 발표*

*레코드 취체/규칙을 발표/ 육월십오일 부터 시행*

*조선에 축음기가 보급됨을 따라 "레코드"의 판매수는 놀랠만치 않아져서 일년간 경기도에만 백만 가량이오 기타 각도를 통하여 백만매 전후 이백만매에 달한다.*

*그중에서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도 적지 아니하니 그 반면에는 풍속을 문란 또는 사상을 악화시키는 것도 없지 많다하야 총독부청수 도서과장은 부임 이래 그 방면에 대한 것을 조사 연구하야 이와같이 감화력이 위대한 "레코드"를 경찰의 시찰하는 권외에 방치하야서는 아니되겠으므로 이번에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측을 제증하게 되었다.* [39]

1933년 5월 22일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의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검열의 주된 고려대상으로 치안과 풍속이라는 두 가지 면이 선정되었다. 검열은 생산 전과 생산 후 두 과정 모두에서 자유롭게 행해졌으며, 새롭게 출판되는 음반뿐만 아니라 이미 출판되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음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검열 법을 통해서 1933년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단속된 레코드는 무려 44종 7천매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다.[40]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은 조선에서 시행된 음반 검열이라고 하여 한국어 음반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일본은 내선일체 전략을 위해 조선인들로 하여금 민족정서를 우러나오게 하는 곡들을 듣지 못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있으나, 조선음악보다도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서양음악이다. 일제 말기에 미국, 영국 음반이 금지된 것이다. 1930년대 말부

39) "레코드 취체 규칙을 발표", 동아일보, 1933년 5월 23일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3052300209202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05-23&officeId=00020&pageNo=2&printNo=4468&publishType=00020 .

40) 김은경 "유신체제의 음악 통제 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 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호, 2011, p. 69.에 나온다.

터 재즈를 중심으로 한 영, 미 음악을 배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41]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레코드 산업보다는 물자 산업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레코드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의 그래프의 지정된 두 지점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발매되었던 곡들 중에서도 원곡과 대조하여 분석이 가능했던 곡은 총 7곡으로 〈사의 찬미〉(1926), 〈재즈 매기〉(1933), 〈즐거운 나의 살림〉 (1935),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1935), 〈유쾌한 시골영감〉(1936), 〈다이나〉 (1936), 〈명물남녀〉 (1937)가 그것이다.

〈사의 찬미〉와 같이 원곡이 기악곡으로 명시되어 있는 곡들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스탠다드 재즈풍의 서양곡이 원곡이다. 〈사의 찬미〉는 기악곡 위에 가사를 창작하여 입힌 것으로 재창작된 번안가요라고 할 수 있다. 〈재즈 매기〉는 미국에서 처음엔 민요로 시작되었는데, 이 민요가 미국에서 블루스로 편곡되어 1914년과 1922년 발매된 바 있으며, 그를 번안한 곡이다. 〈다이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크루너인 빙 크로스비(Bing Crosby)가 1932년에 노래한 바 있다.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는 미국에서 초창기에 팝음악으로서 성공한 블루스 곡이며, 베시 스미스(Bessie Smith),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등 블루스와 재즈의 대가들이 앨범을 낸 바 있다. 특히, 이 두 곡은 모두 일본에서 먼저 일본어로 번안하여 발매하였으며, 직후에 한국어로 번안되어 한국 번안가요로 발매된다.

이 같은 음악적 차이를 번안가요 별로 원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1) 이준희, 위의 글, p. 170-173.을 참고하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 | 원곡 | 번안가요 |
|---|---|---|
| 〈사의 찬미〉 | 가사 없는 기악곡<br>반음계적 베이스 진행<br>전조됨 | 성악적 발성<br>멜로디에 이끈음 등장<br>오케스트라반주<br>fm의 I-V-I진행 |
| 〈재즈 매기〉 | 〈메기의 추억〉 원곡<br>〈When You and I were Young〉<br>민요와 동일한 선율<br>1914년과 1922년에 각각 블루스로 편곡<br>반음계적 반주 | 강약강약 리듬<br>색소폰의 즉흥연주<br>4박자 단위<br>아코디언 소리<br>원곡의 멜로디와 달리 붙임리듬이 사라짐 |
| 〈즐거운 나의 살림〉 | 〈My Blue Heaven〉(1928)이 원곡<br>베이스의 반음계적 움직임<br>G-Ab-Bb-C-Bb-Ab-A-Bb<br>일본어번안곡이 먼저 발표됨<br>7화음이 사용됨 | 4박자 계열의 리듬<br>블루스 형식<br>색소폰의 솔로 연주<br>반음계적 화음이 사용됨<br>중심 음계는 Bb-C-Eb-F-G |
|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 〈St. Louis Blues〉(1925)<br>베시 스미스의 노래가 원곡<br>전주 없음 | 삼우열이 노래함<br>전주 있음.<br>F#m에서 시작함<br>Blues의 창법과 트로트 창법이 혼용됨<br>왈츠풍의 Bridge 사용 |
| 〈유쾌한 시골영감〉 | 〈The Laughing Policeman〉 (1922)가 원곡<br>I-II7-V7 진행이 빈번히 사용됨 | 원곡과 동일한 진행<br>C-D-E로 상행하는 베이스<br>중개화음 II를 사용한 곡 |
| 〈다이나〉 | 〈Dinah〉(1932) 빙 크로스비의 노래<br>후렴구 뒤에 아카펠라가 빠른 리듬으로 등장함<br>FM에서 I-V7-I-V-I의 진행을 사용 | 〈다이나〉(1936) 삼우열 노래<br>색소폰의 즉흥연주<br>반주에 기타가 사용됨<br>원곡과 달리 아카펠라는 없음<br>I-V7-I, VI-IV-V-I-V7의 진행<br>〈다이나〉 강홍식 (1936)<br>전주가 짧아지고, 중간에 나레이션 등장<br>뒤에 빠른 리듬이 등장하는 부분이 축소됨 |
| 〈이태리 정원〉 | 〈Garden in Italy〉<br>I-V-I-VI-IV-I 의 진행<br>왈츠 풍 리듬<br>크루닝 창법 사용됨 | 1936년 최승희 노래<br>원곡과 동일한 진행<br>색소폰 연주가 들어가 있음<br>크루닝 창법 사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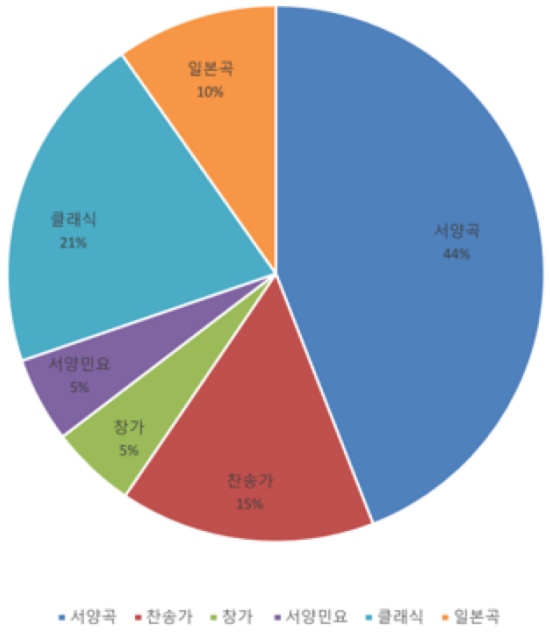
[표 3] 1922년 - 1938년 발매된 번안가요와 원곡의 대조표

위의 곡들을 살펴보면 7화음이 사용된 곡들이 대부분이다. 반음계의 사용은 조선 내의 대중가요들의 반주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로 5음 음계를 사용하던 조선의 대중가요와 달리 멜로디에서 이끈음이 등장하면서 반음계적 화성어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쾌한 시골영감〉과 〈다이나〉는 화성진행에서 II, VI와 같은 부차적인 화음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조선 내의 유행가와 신민요 장르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은 화음들이다. 이소영에 의하면, 신민요의 반주에서 I, IV, V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신 아리랑〉이라는 곡에서만 VI7이 지나가듯이 존재한다.[42] II, VI는 조선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화음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대중가요와 서양 대중가요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안된 곡들의 리듬과 창법은 조선의 음악에서 등장하는 어법을 주로 사용했다. 대부분의 원곡은 강조된 약박 혹은 싱코페이션과 같이 중첩된 리듬을 사용하였으나, 번안된 곡은 강-약-중간-약의 리듬으로 주로 홀수 박에서 강박이 등장한다. 창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전까지 토착화 되어 있던 트로트 혹은 유행가 창법이 비교적 약하지만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즉. 창법과 리듬이 조선의 방식에 따라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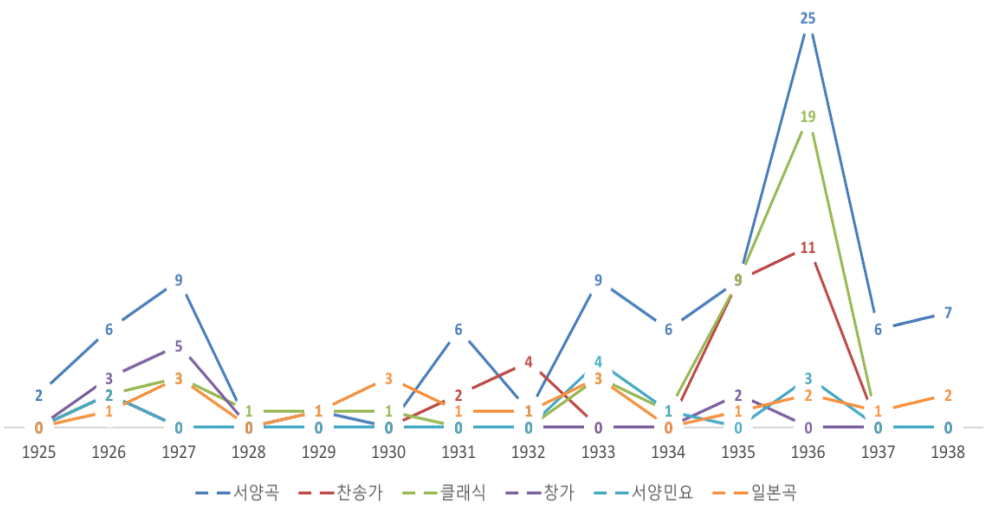
위의 [표 2]에 기초한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42) 이소영, 『20세기 한국음악의 혼종적 음악하기: 신민요를 중심으로』, 서울:민속원, 2018에서 신민요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중 특징적인 것에 집중하여 요약한 것이다.




[그래프 2] 1922년 -1938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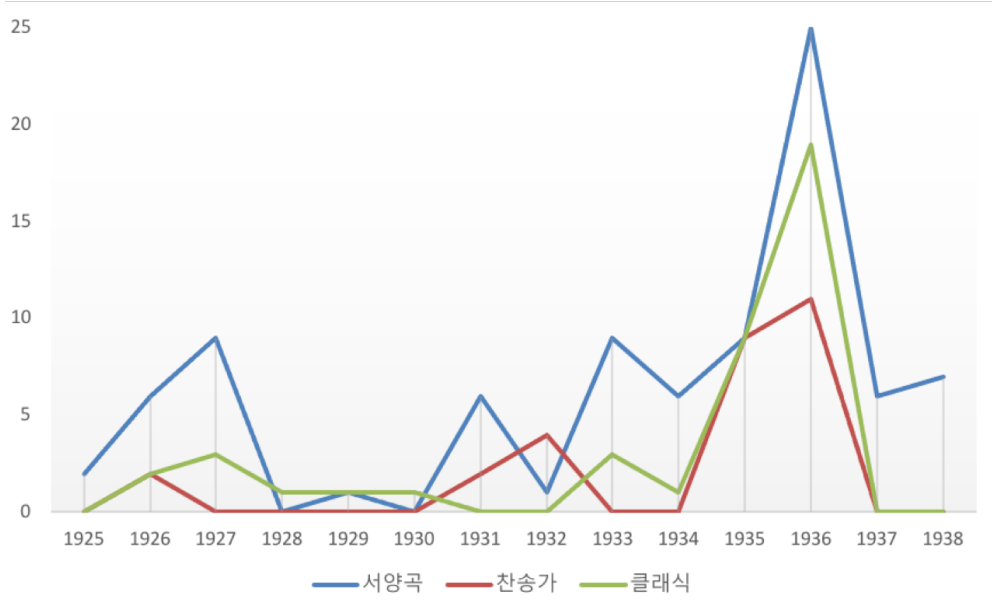
위 그래프에서 서양가요, 블루스, 재즈를 다 포함시켜 서양곡으로 지칭했다. 비율이 가장 많은 순부터 나열하면, 서양곡, 클래식, 찬송가, 서양민요, 창가 그리고 일본곡 순이다. 번안가요에서 일본 번안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며, 찬송가와 클래식 장르를 포함하여 서양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이다. 번안가요의 대부분이 서양 대중음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도별 장르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3] 1922년 – 1938년까지 연도별 장르 발매 수

일본곡, 서양민요, 창가의 경우는 변동이 거의 없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서양 대중가요들이 번안가요로 발매되었다. 큰 변동이 있는 장르는 서양곡과 클래식인데, 두 그래프의 형태가 위의 연도별 통계 수치와 유사하다. 이는 연도별 통계 수치에 서양음악의 발매 수치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된다. 또한, 1936년과 1937년 사이 클래식과 서양곡의 그래프에서 큰 감소폭이 보이는데, 이는 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생산 된 서양곡과 찬송가와 클래식만 연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4] 1922년 -1938년 연도별 장르 발매 수

찬송가는 꾸준히 10개 이내의 곡이 발매되었으며, 클래식과 서양곡은 193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다. 특히, 1935년부터 193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며, 1937년부터는 크게 감소한다.

1930년대 다양한 서양곡이 번안곡으로 발매된 데에는 조선이 일본과 일본의 영향력 뒤에 있었던 서구권 제국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구권 국가에 레코드 본사가 위치하면서 서구권 국가의 음반 레파토리는 일본 지부와 한국지부에서 발매되는 레코드 레파토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30년대 일본은 서양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며, 1920년대 미국의 재즈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표 2]에서 번안곡 중 서양곡의 대부분이 재즈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연관이 있다. 위의 [표 2]에서 살펴보면 서양곡에 해당되는 곡 중 27개의 번안가요들은 '재즈송'으로 분류되어 있다.[43] 또한 서양곡 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서구권의 다른 국가들의 민요도

재즈송에 포함된다. 즉, 모든 서구권 대중가요의 번안가요는 재즈송이라는 분류로 발매되었고, 마땅한 분류 체계가 없었기에 일본과 조선에서 모두 '쟈스'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수용[44]되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재즈송은 서양 번안가요로 시작하였기[45]때문에 모든 서양곡들을 재즈송으로 발매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다.

재즈송 외에도 번안가요가 유행소곡, 유행가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당시 대중음악에서의 주류 장르는 신민요와 유행가 그리고 재즈송이며, 그들 중에서도 유행가와 신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유행가와 신민요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장르이자 서양대중가요 유입이후 악기편성에 있어서 재즈송 장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재즈송은 주로 빅밴드 혹은 재즈밴드가 반주를 맡았는데, 서양 대중가요의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악기의 반주 방식이 이후 발매된 유행가와 신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통음악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성악에 서양반주를 처음으로 넣은 곡인 〈양산도〉(1933)[46]와 서양악기 반주로 녹음된 유행가 〈노들 강변〉(1934), 신민요 〈신 아리랑〉(1933), 〈신 방아타령〉(1933) [47]등이 있다.

재즈송은 또한 경음악과 보컬그룹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첫 번째로 경음악이란 악기로만 연주된 형태의 음악을 말한다. 이전에도 군악대와 같은 서양악기로 이루어진 악단이 있었으나, 재즈 경향의 '댄스 음악'을 연주한 밴드는 없었다. 1926년 이후 서양 대중가요가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되는 동시에, 각각의 레코드 회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재즈 밴드를 결성했다.

---

43) 외국곡이라는 표기는 한국 유성기 음반 사이트에서 찾은 목록이며, 실제로는 한국 유성기 음반 총목록 저서에서는 다른 분류들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4) 재즈송은 본격적인 의미의 재즈만이 아니라 팝송이나 샹송, 그리고 라틴 음악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범박한 갈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양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련의 노래를 '재즈송'이라는 갈래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 장유정, 서병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서울 : BM 성안당, 2015, p. 117

45)물론 서양음악 번안곡이라 해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즈송'이라는 곡 종명을 달고 우리나라 가수가 처음으로 부른 노래는 1930년 2월에 콜롬비아에서 발매한 〈종로 행진곡〉이다. 이후 블루스 등이 유입되었고, 재즈송 중 하나였던 〈청춘계급〉은 그야말로 당대 서양에서 유행한 빅밴드가 연주하는 스윙풍의 재즈를 연상케 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장유정, 서병기,  앞의 책, p. 118.

46) 이소영, 위의 책, p.82

47) 앞의 책,p.82.

이들은 빅밴드와 댄스 장르의 음악을 녹음했다. 이처럼 재즈송으로 분류되어 유입된 서양 대중음악은 화성적 어법 뿐만 아니라 경음악 장르 형성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컬그룹의 탄생은 [표 2]에서 보면 포리도루리듬보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보컬그룹의 결성은 빅밴드 재즈에서 사용되는 아카펠라 혹은 코러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포리도루리듬보이스는 포리돌 레코드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보컬 그룹으로 추측된다. 이전까지 주로 솔로로 활동하는 가수와 재즈밴드가 함께 녹음해왔으나 그룹으로 등장한 것은 이 아티스트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재즈송을 통해 발매된 번안가요는 이후 그룹 형태의 아티스트를 결성하는데 있어서 기초를 마련했다.

## 2.3. 1938년 - 1943년[48)]

1937년 레코드 취체규칙 공포 이후, 총독부는 음반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사항을 더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1941년부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의 음악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1938년 의 목록은 위에서 다루었고, 행정명령이 실행된 1939년부터 1943년까지의 번안가요 목록[49)]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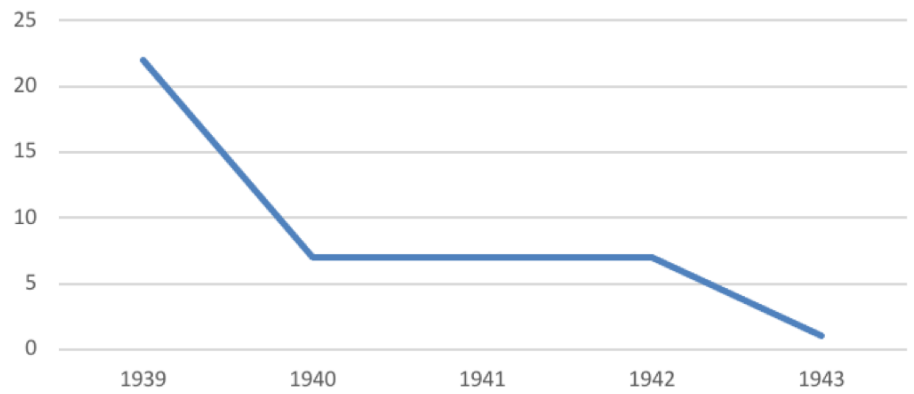
| 발매회사 | 발매연도 | 장르 | 제목 | 원곡장르 | 가수/작곡가 |
|---|---|---|---|---|---|
| 리갈 | 1939 | 재즈송 | 어두운 세상 | 서양곡 | 탁성록 |
| 리갈 | 1939 | 유행가 | 마리네라 | 일본곡 | 오천포 |
| 리갈 | 1939 | 유행가 | 비오는 청등가 | | 이병한 |
| 리갈 | 1939 | 유행가 | 서광빗긴 대륙 | | 박랑객 |
| 리갈 | 1939 | 유행가 | 안개낀 항구 | | 박랑객 |
| 리갈 | 1939 | 유행가 | 노치 마르세요 | | 함국절/박윤선 |
| 리갈 | 1939 | 재즈송 | 집시의달 | 서양곡 | 손목인 |
| 리갈 | 1939 | 재즈송 | 싱.싱.싱 | 서양곡 | 손목인 |
| 리갈 | 1940 | 유행가 | 골불견 네거리 | | 최인호와윤금숙 |
| 빅타 | 1942 | 외국곡 | 산속의집으로 | 클래식 | 현제명 김자경 빅타교향관현악단 |
| 빅타 | 1942 | 외국곡 | 마레키아레 | 클래식 | 현제명, 빅타관련악단 |
| 시에론 | 1939 | 테너 독창 | 하소연 | | 안기영 |
| 오케 | 1939 | 경음악 | 향수의 휘파람 | | 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9 | 경음악 | 무정고백 | | 김해송(하와이안기타) |
| 오케 | 1939 | 재즈송 | 씽씽씽 | 서양곡 | 손목인/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9 | 외국곡 | godard joceyln"berceuse" | 클래식 | 조세린의 자수가 |
| 오케 | 1939 | 외국곡 | 츄라이 메라이 | 클래식 | 곽정순 |
| 오케 | 1939 | 외국곡 | 거룩한구주 | 찬송가 | 백조혼성합창단 |
| 오케 | 1939 | 재즈송 | 바다의 교향시 | | 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9 | 재즈송 | 알아달라고요 | | 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9 | 재즈송 | 따이나 | 서양곡 | 김리자, 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40 | 경음악 | 항구선술집 | | 오케밴드 |
| 오케 | 1940 | 경음악 | 안개낀상해 | | 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40 | 경음악 | 코스모스탄식 | | 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40 | 경음악 | 향수열차 | | |
| 오케 | 1940 | 유행가 | 꿈꾸는백마강 | 일본곡 | 이인권 |
| 오케 | 1940 | 유행가 | 차이나 아가씨 | | 이난영 |

48) 1938년 발매된 곡들은 앞의 장에서 앞서 분석했으므로 여기서 제외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흐름은 뒤의 종합적 분석에서도 등장하니 그때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 | | | | |
|---|---|---|---|---|---|
| 오케 | 1941 | 하와이노래 | 그리운 하와이 | 서양곡 | 하와이 |
| 오케 | 1941 | 하와이노래 | 하와이 아가씨 | 서양곡 | 하와이 |
| 오케 | 1941 | 외국곡 | 만세반석 | | 경성백조혼성합창단 |
| 오케 | 1941 | 외국곡 | 시온성 | 찬송가 | 백조혼성단 |
| 오케 | 1941 | 외국곡 | 더가까이 | 찬송가 | 백조혼성합창단 |
| 오케 | 1941 | 외국곡 | 믿는사람 | 찬송가 | 백조혼성단 |
| 오케 | 1942 | 경음악 | 울어라 문풍지 | | 박시춘,기타,아코디언 |
| 오케 | 1942 | 경음악 | 임전상서 | | 박시춘,기타,아코디언 |
| 오케 | 1942 | 경음악 | 눈물 젖은 두만강 | | 박시춘,기타,아코디언 |
| 오케 | 1942 | 경음악 | 역마차 | | 손목인,기타 |
| 오케 | 1943 | 경음악 | 꼬집힌풋사랑 | | 미상 |
| 포리돌 | 1939 | 유행가 | 마도로스의 노래 | 일본곡 | 김용환 |
| 포리돌 | 1939 | 재즈송 | 그리운 아미 | 서양곡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9 | 재즈송 | 유칼레리 삐삐 | 서양곡 | 김용환 |
| 포리돌 | 1939 | 유행가 | 눈물의 폭스트롯트 | 서양곡 | 이훈식 |

[표 4] 1939년 -1943년 발매된 번안가요

이 시기에는 총 42곡이 발매되었는데, 이전시기 보다도 80% 감소한 수치이다. 이를 연도별 번안가요 생산 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5] 1939년 - 1943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49)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작자 미상인 곡들이 많았으며, 그들 중에서도 레코드 회사의 매일 신보를 통하여 번안가요로 추정되는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1939년부터 1943년까지 번안가요의 발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30년대가 레코드의 활성기 혹은 전성기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레코드의 침체기 시작지점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일제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이에 대해 『한국대중가요사Ⅰ: 1886-1945』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41년 일본은'대동아전(大東亞戰)'이라고 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 들기 이전에 식민지인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정책은 날로 강압적이었다.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미국과 영국, 그 밖의 모든 음악을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시의 물자 궁핍으로 일체의 레코드 생산은 중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모든 문화정책을 자국의 승리에로만 초점을 맞추어 갔다. 그들이 부르짖던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선양과 선전 . 계몽에 전 연예인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했으며 우리 노래까지 일본말로 바꿔 부르도록 강요를 했다.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요인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비위에 맞는 노래를 만들고 불러야 했다.1937년부터는 전시에 맞지 않는 노래, 즉 일본의 엥카조(演歌調)가 너무 감상적이고 무기력하며 현실 도피적이라고 해서 이러한 노래들을 차차 금지시키고, 대신 방송을 통한 소위'국민가요'라는 것을 보급시켰다. 작곡은 수준급 이상의 작가들이 만들었으며 가사의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애국이요, 승전의 노래뿐이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학무국 정보과의 통제 . 감독 하에 조선연극문화협회(朝鮮演劇文化協會)라는 것을 만들었다. 연극 . 음악. 악극(가수 .연주 . 연기 . 무용) . 연예(서커스)로 구분하여 모두 이 협회가 발행하는'기예증(技藝證)'을 소지해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 허울 좋은 명목은 전시체제 하에서 후방요원 확보라는 것이었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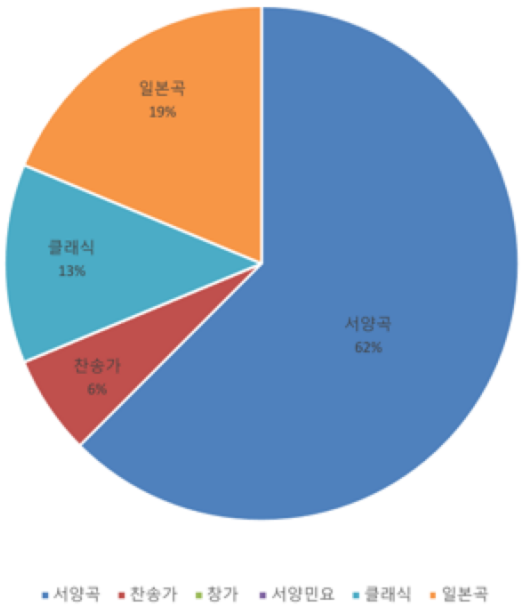
이처럼 1937년 이후 시행된 레코드 검열과 함께,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인해 유성기 음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1930년대에 시행한 '민족말살통치'와 같은 맥락에서 레코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기 때

50)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2003), 『한국대중가요사Ⅰ: 1886-1945』,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p. 317.의 내용이 이고운, "권위주의적 정권 하의 한국 국책가요 연구 - 일제 강점기 제 3,4 공화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대중음악학과 대중음악 제작경영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7. 39페이지에서 재인용.

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은 국민개창운동 등을 통해 친일가요, 군국가요를 창작을 장려했다. 이전에 있었던 유행가와 같은 다른 장르들의 음반 활동이 통제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생산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레코드시장이 위축되었다. 이렇듯 일제는 음악에 대한 통제 정책을 통해 조선사회가 식민 지배 체제에 완벽하게 순응하도록 유도했다.

전쟁과 통치 방식의 변화로 인해 1941년부터의 대중가요 산업은 침체기를 맞았다. 유행가와 신민요 등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적성국가로 인지되는 서구권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 관련된 음악에 대해서도 금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 공포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제의 움직임에 의해서 번안가요의 발매 수가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레코드 침체기의 번안가요에 대한 원곡과 그 원곡의 장르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악기 편성 그리고 매일 신보에 나와 있는 설명을 토대로 추측한 원곡을 장르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6] 1939년 -1943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레코드 침체기 임에도 불구하고 서양곡을 원곡으로 한 번안가요가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위의 표를 기초해서 보면 1941년 이후 클래식 장르의 음악 혹은 찬송가 장르의 음악을 제외하고 서양곡이 번안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하게 일제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발매된 번안가요 중 원곡과 대조 가능한 곡은 아래의 3 곡이다.

| | 원곡 | 번안가요 |
|---|---|---|
| 〈집시의 달〉 | 다크 미네의 원곡<br>화성진행: I-II-Vi-V-II-IV-V-I<br>7화음 사용됨<br>멜로디의 반음계적 진행 | 원곡보다 빠른 템포<br>강약강약 리듬<br>vII, III 화음이 사용됨<br>유행가 창법보다도 바이브레이션 강도가 약함 |
| 〈싱싱싱〉 | Benny Goodman<br>〈Sing, Sing, Sing〉(1936)<br>빅밴드, 스윙 재즈 장르<br>A-B-A 형식<br>am 로 전조된 부분에서 색소폰의 솔로 연주 | 손목인의 1939년<br>타악기, 색소폰 사용<br>바이브레이션 강도가 약함<br>스캣이 사용됨<br>전조되는 부분이 있으며 A-A-B-A 형식 |
| 〈어두운 세상〉 | 〈Gloomy Sunday〉(1932)<br>피아노 반주<br>강박이 뒤의 박에서 나오는 리듬<br>7화음 사용<br>Vii/V과 같은 반음계적 화음 사용 | 탁성록의 노래<br>전주는 색소폰이 연주<br>피아노와 현악기, 빅밴드 반주<br>4박에 리듬 중심<br>7화음이 사용됨 |

[표 5] 1939년 - 1943년 발매된 번안가요와 원곡의 대조표

손목인[51]은 일제강점기 당시 유명했던 싱어송라이터들 중 한 명이다. 그는 베니 굿맨(Benny Goodman)이 작곡한 〈Sing, Sing, Sing〉을 취입하여 〈싱싱싱〉이라는 이름으로 1939년에 번안가요를 발표하였고, 일본어로 먼저 번안된 〈집시의 달〉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같은 해에 발표하였다. 〈어두운 세상〉은 1939년 리갈 레코드에서 발매된 번안가요로 1932년 〈Gloomy Sunday〉가 원곡이다.

위의 세 곡은 공통적으로 7화음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행가 창법보다 상대적으로 바이브레이션 강도가 낮은 창법을 구사했다. '바이브레이션 강도가 낮다'고 묘사하는 것은 완벽한 크루닝 창법은 아니나 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나 1930년대의 미국의 재즈 창법의 정착[52]되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싱싱싱〉에서 스캣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스캣은 전형적

51)손안드레아, 임원 등 여러 예명으로 활동했다. 해방이후에도 작곡가로 활동했다.
52)래리 스타, 크리스토퍼 워터맨, (김영대, 조일동 옮김), "천연두처럼 전염되는 음악: 댄스 음악과 재즈(1917~1935)", 『미국 대중음악』, 한울, 2010, p. 77-108.

인 재즈의 창법 중 하나로 리듬을 타면서 목소리로 즉흥연주를 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창법은 이전 시기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미국의 재즈음악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 2.4. 1943년 - 1945년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번안가요는 없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레코드 회사들이 폐쇄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1939년부터 통제 경제가 되면서 조선총독부는 빅타, 콜롬비아 등의 레코드 회사가 적성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53] 로 폐쇄시켰다. 5대 레코드 회사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는 돔보, 뉴코리아, 밀리온 레코드 등이 존재했으나 대부분의 레코드 회사들은 1935년에서 1936년 기점으로 문을 닫았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전반적인 레코드 생산 수치는 감소했으며, 레코드 기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유는 적성국가의 음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30년대 말부터 재즈를 위시한 미, 영 음악을 배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 중인 1943년 1월에는 일본에서 연주금지 미영음반 알림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54] 미영음반이 금지된 것은 일본정보국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군으로 참가한 나라의 음악을 적국의 음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55]이 목록을 통해서 미영음반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였고, 그 결과 서양곡을 기초로 하는 번안가요는 생산되지 못했다.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인 대립과 군사적인 대립은 번안가요 생산을 위축시켰으며 동시에 레코드 산업계까지 침체기를 겪게 했다.

번안가요,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조선어로 된 친일가요도 사라지기 시작했다.[56]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발매된 건전가요 혹은 친일가요들 중에서 한국어로 작사 된 곡은 43년 이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중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와 더불어 일제의 통제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1943년

53) 박순애, “조선 총독부의 대중문화 정책-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일 민족 문제 연구』, Vol. 20 , 2011, p. 251.
54) 박순애, 위의 글, 2011, p.172
55) 이미 일본어로 학교교육을 통해 알려진 노래는 제외되었으나, 재즈는 적성 음악으로 분류되어 금지되었다.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솔, 2004, p. 73-74.
56) 이전 시기에는 〈지원병의 어머니〉, 〈결사대의 아내〉와 같은 조선어로 된 친일 가요들이 있었다.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p.116

이후로 조선어로 된 친일 가요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57] 이 시기에는 일본어로 된 가요들만이 생산되었으며, 대부분 친일 혹은 국군가요였다. 또한, 레코드 생산도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의 레코드 산업은 이영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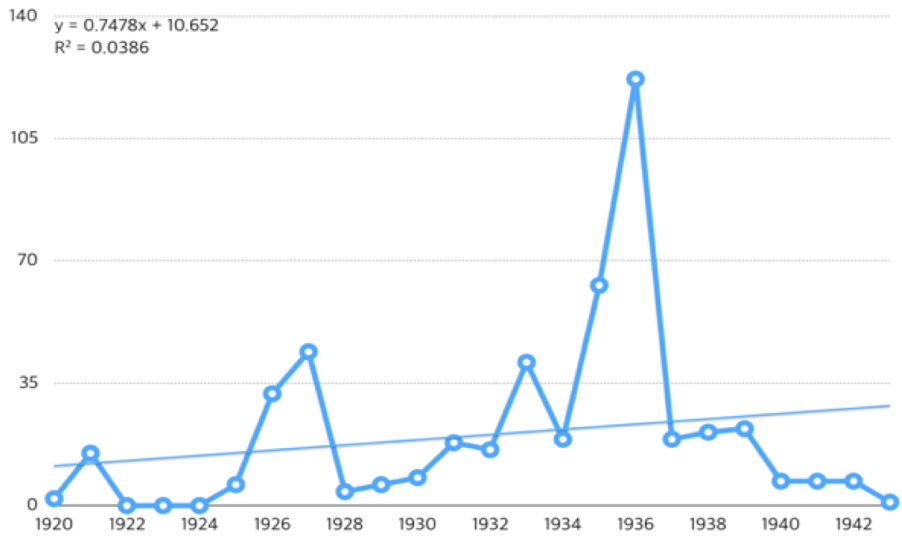
*1942년 이후 전 공연예술인들과 함께 대중음악인들도 한반도 전역과 일본, 만주 등지에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는 공연을 다니게 됨으로써, 작품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유통조차도 철저하게 전시체제의 선전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58]

레코드 산업은 일제강점기 초기와 중기의 대표적인 문화매체였으나, 1941년 이후에는 레코드 산업 자체가 선전정책의 매체로 전환되었다. 레코드와 음악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레코드는 대중매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레코드 산업의 침체기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이는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7) 이영미, 위의 책, p.117.
58) 이영미, 위의 책, p. 118.

## 2.5. 종합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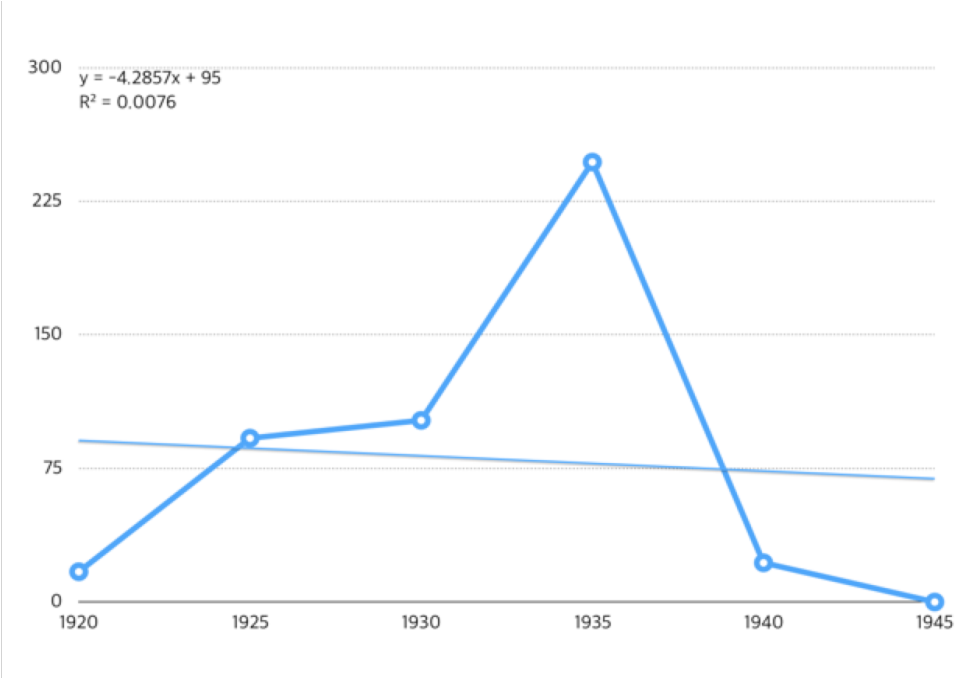
1910년 일제의 식민지배와 함께 한국의 상업가요가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함께 레코드 기술이 조선으로 도입되었으며, 1928년 전기녹음 상용화 이후 레코드 산업이 활성화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체 기간 동안 연도별 번안가요 생산 수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7] 1910년 - 1945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전체적인 1920년부터 1942년까지 번안가요 생산 수치는 증가한다. 그럼에도 몇몇 지점에서 큰 감소가 발생한다. 1933년, 1937년, 1939년, 그리고 1942년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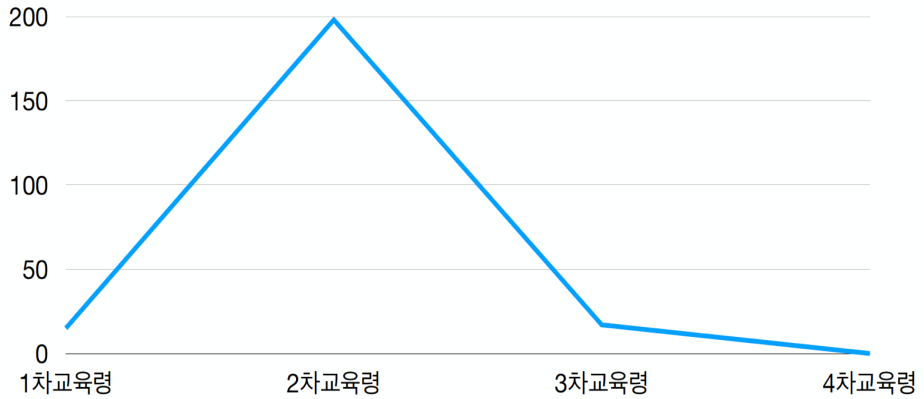
5년 단위로 번안가요 생산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거시적인 발매 수치를 알 수 있다.




[그래프 8] 1910년 – 1945년 5년 간격 번안가요 발매 수

위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7]과 달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1935년부터 1945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정책과 연관된 시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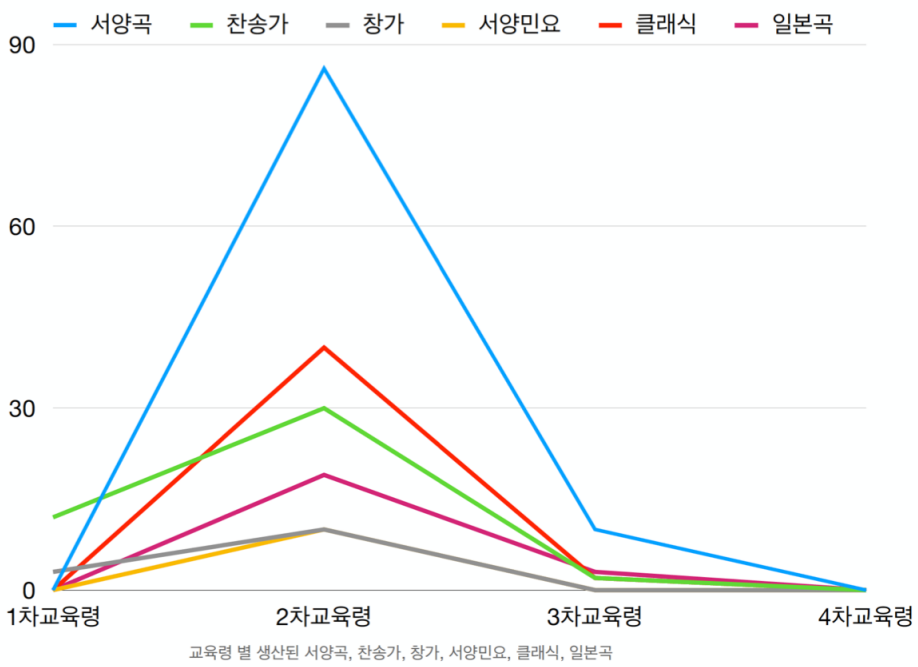
그리고 유성기 음반 중 번안가요만을 추출한 총 목록에 기초하여 본문에서 일제강점기를 나누었던 기간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9] 일제강점기 교육령에 따른 번안가요 발매 수

[그래프 9]는 본문 2장에서 다룬 일제강점기 번안가요를 통한 서양 대중가요 유입과 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인다. 제 1차 교육령과 제 2차 교육령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양악과의 동화를 꾀했다는 점에 있어서 번안가요의 생산 즉,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러나 제 3차 교육령과 제 4차 교육령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민족말살통치와 함께 전시체제로 인하여 레코드 산업이 침체되었고, 적성국가의 음반이라는 이유로 서양대중가요의 유입이 지양되면서 번안가요 생산 수 또한 감소한다. 이처럼 번안가요의 발매 수치의 변화는 서양대중가요에 대한 정책에 따라 발생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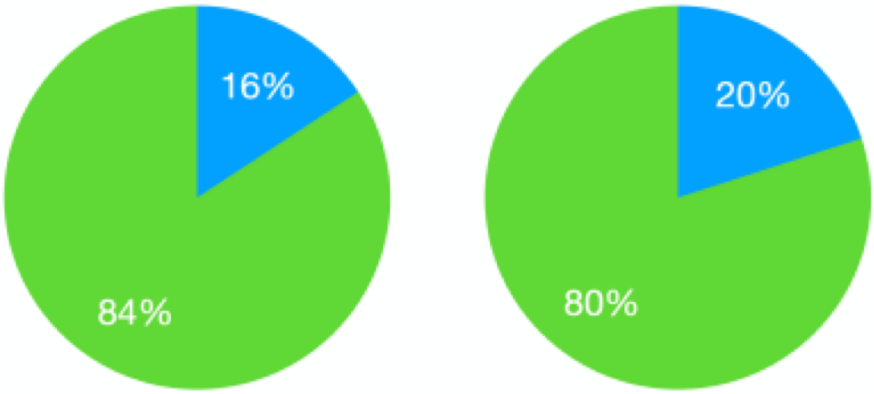
교육령 별 생산된 번안가요의 원곡의 장르별 생산 수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0] 일제강점기 교육령 별 생산된 번안가요의 장르별 분포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음악의 장르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2차 교육령에서 모든 장르들이 공통적으로 최고 수치를 찍으며, 그 중에서도 서양곡이 최대수치를 기록하데 이는 서양 음악 유입에 대한 장려 정책의 결과이다.

번안가요와 정책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번안가요와 유성기 음반 시기의 주류 장르인 '재즈송'과 의 연관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유성기 음반 시기 속 주류장르들 중 하나였던 '재즈송'은 서양의 음악적 어법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장르적인 특성을 음악적 어법이나 문화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해왔으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그 이유는 재즈송이 번안가요를 통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유성기 음반 재즈송은 번안가요이기 때문이다.




[그래프 11] 재즈송(왼쪽)과 경음악(오른쪽)의 번안가요 비율[59]

재즈송은 서양번안가요로부터 시작되었다[60]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소영에 의하면, 1935년 한국 창작 재즈송이 다량으로 발매되기 이전까지 가장 처음으로 발매된 창작 재즈송은 〈세 동무의 노래〉이다.[61] 그러나 일제강점기 번안가요 총 목록에 따르면, 한국 첫 재즈송은 1927년 발매된 〈매기의 추억〉이다. 필자의 총 목록을 통해서 재즈송의 시작이 번안가요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유성기 음반 추출한 목록 중에서 재즈송에 번안가요가 차지하는 비율은 84%로, 번안가요가 재즈송 장르를 거의 다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이 장르 안에 속하는 대중가요 전부다 재즈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에서 밝혔듯이 블루스 혹은 재즈 형식으로 된 곡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게 빅밴드가 반주를 맡고 있었다.

위의 그래프에서 오른쪽은 경음악에서 외국 번안가요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포리도루 재즈밴드, 콜롬비아 재즈밴드 등 각 레코드사 별로 재즈밴

59) 그래프에서 초록색 부분이 번안가요 비율에 해당된다.
60) 장유정, 서병기, 위의 책, 2015, p.118.
61) 이소영 “193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장르 혼용 양상 - 재즈송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 18권, 제 2호, 2010, p.197.

드가 존재했으며, 이는 번안가요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 서양 대중가요가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되면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편성까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번안가요의 총 목록과 통계 수치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번안가요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업 음악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상업가요 시장의 출발점에 있었다.

## 3.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 (1945년 - 1961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전쟁 패배와 함께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직후는 혼란의 시기였다. 미소공동위원회와 반탁운동을 기점으로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반도에 분단국가가 성립한다. 전쟁 이후 발췌개헌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 했던 때도 있으며, 이에 대한 투쟁 운동인 4.19혁명도 일어났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정치적인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레코드 산업의 침체기는 계속되었다. 이 당시 발매된 레코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수치 혹은 공식적인 목록이나 기록은 거의 없다.[62)]

이 시기에 대해서 이영미(1998)는 “트로트의 재생산과 새로운 양식의 혼돈의 시기”[63)]라고 명명하였으며, 장유정(2009)은 이 시기에 대하여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 대중음악사의 공백기처럼 남아 있었다”[64)]고 말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번안가요를 통한 서양대중가요의 유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 3.1. 1945년 - 1948년

일제의 지배를 벗어난 한국 사회는 자체적인 문화와 더불어 자체적인 음악의 필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실현을 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체적인 음악의 필요성은 ‘민족음악’에 대한 발현의 논의로 이어졌고, 이는 좌파와 우파 음악가들의 대립으로부터 시작된다.

1945년 해방직후 우파와 좌파로의 분화는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중심

62)박성서,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서울: 책이 있는 풍경, 2010, p. 68-93. 에서 ‘LP음반’이라는 제목으로 LP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진중가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 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
63)이영미, 위의 책, p. 121.
64)장유정, “한국 대중가요의 전개 양상 고찰” 『한국문학 논총』, 제 51집, 2009, p. 206.

으로 한국을 나누어 신탁통치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들은 몇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합의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인 인물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1945년 12월부터 시작된 반탁운동은 '소련이 신탁통치를 추진'했다는 주장과 맞물리면서 반공운동과도 맞물렸으며, 이는 다시 소련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으로 규정되었다.[65] 즉, '반탁=반공=민족운동'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면서[66] 3.8 이남에 있었던 해방공간 속에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신탁통치로 인해 정치적인 이념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는 남한 사회 내에서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음악가들에게도 적용되었고, 해방 공간에서 우익과 좌익 진영의 음악가들은 민족음악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67] 둘의 논쟁 중에 미국의 영향력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작용으로 인하여 좌파진영의 활동은 저해되었고,[68]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관심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정부[69]로 옮겨졌다.

한편, 신탁통치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에 미국대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에 정착된 미국 대사들과 미군은 한국에게 '해방'의 상징으로 남는다. 그들이 정착한 시점이 해방직후이기도 하며, 일본이 패망하는데 있어 미국의 공세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

---

65)박태균, "196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진화", 『반공의 시대-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p.268.

66)앞의 글, p.268.

67)당시 좌파 진영 음악가들은 민족성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보로 해방가요 운동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일제 잔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민족음악을 수립하고 동시에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하려고 하였다. 반면, 우파 음악가들의 경우, 저속한 유행가 대신 대중을 위한 건전한 노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나, 음악 대중화 운동보다는 실내악이나 교향악단 활동을 통해 순수음악의 대중적인 저변 확대로 이를 수행하고자 했다. 심재겸, "국민을 위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 운동의 전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적 구상", 『대중음악』, 2016, vol.18, no.1, p. 98.

68) 이데올로기적인 냉전적 대립이 첨예화 되고 1947년 여름경부터 좌익의 정치활동에 대한 미 군정의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좌익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소비에트 지대로 건너갔고 이와 더불어 좌익과 우익의 정치적 양극화는 지리적으로 전치되었다. 신현준, 허둥홍, "냉전 초기 남하과 타이완에서 대중연예의 국가화 및 미국 대중문화 번역",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1940-50년대』,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편, 2008, p. 326

69) 심재겸, 위의 글, p. 98.

다. 또한 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미국은 한국 사회의 대중들에게 해방의 상징이자 수호의 상징으로도 수용되었다. 이 당시 미국음악이나 번안가요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이 시기에 남한 사회 내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전쟁 이후 미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 3.2. 1948년 - 1953년

1948년 11월 이승만 정권 하에 문화공보처가 설립되어 문화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공보처[70]는 한국만의 '민족적'인 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민족성 고취 및 왜색 가요 지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왜색적인 가요는 일본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민족적인 문화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하는 음악으로 변모하였다. 정부에게 유행가란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지배의 잔재였던 것이다. 1946년 정부 산하 단체의 문교부와 경무부에서는 유행가를 단속하려는 시도를 하였다.[71] 즉, 음반의 검열은 군사정권 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달리, 이 시기에 발매된 대중가요들은 유행가의 면모를 가진 경우가 다수였다. 한국 상업 가요 장르들 중에서도 유행가는 여전히 주류 장르였다. 유행가가 한국 사회 내에 정착된 지 오래되어 대중성이 있다는 점과 유행가 창작자들이 많았다는 점은 유행가의 지속적인 생산의 요인이었다.

레코드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레코드가 생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 레코드 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첫 국산 음반을 발매한 고려레코드[72]와 함께 서울에는 오케, 서울, 럭키, 아세아레코드 등이 등장하였고,[73] 1948년경에 대구에는 오리엔트 레코드, 유니온 레코드, 서라벌 레코

70) 한편 공보처는 국민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도로 1949년 '국민 가요 보급운동'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 박태현, 윤용하, 이흥렬 등의 노래를 선정하였다. 본래 '국민 가요 보급 운동'은 일제 강점기 '국민 가요 개창 운동'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시 체제 속에서 국민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가요 개창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방 공간에서 유사한 시도를 행한 것이다. 당시 음악 교과서나 국악 관련된 음악책을 내고 있던 공인된 출판사인 국제 음악 문화사에 의뢰하여 〈〈새나라의 노래〉〉를 대중적으로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가요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중화에 실패하였다.

71) 김은영 "1950년대 양악 작곡가들이 상상한 국민음악: '국민'과 '민족' 사이에서", 『음악과 민족』, Vol. 58, 2019, p.106-107

72) 앞의 글, p.211.

73) 이 사실을 미루어보아, 1945년과 1946년에는 레코드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준희, "195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대중서사연구』, 제17호, 2007. p. 86.

드, 승리레코드 등과 부산에는 전쟁 전에 설립된 코로나 레코드와 도미도 레코드 등이 있었다.[74] 그러나 전시 상황 이전까지 설립된 여러 레코드회사들이 음반을 발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60년대 레코드 황금기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였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레코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한국 사회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문화적인 현상들이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반공이데올로기는 강화되었고, 분단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로 인해 음반 산업의 중심이 서울에서 피난지였던 대구와 부산으로 옮겨가게 된다. 음반 산업이 아예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음반 제작이나 발매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 계신 전선〉(1951), 〈전우야 잘자라〉(1950), 〈삼다도 소식〉(1952)[75]등 전쟁과 관련된 가요들이 발매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노래들은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위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진중가요'라는 장르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장르는 한국 전쟁이 반영된 대표적인 음악 장르이다.

애국심의 고취와 반공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몇몇 대중가요들은 정치적인 성격을 반영하였다. 태평양 전쟁 때 대중예술인들이 동원되었듯, 6.25때도 대중음악인들은 육해공군의 정훈공작조에 편성되어 위문공연[76]을 다녔다. 이들은 위문 공연을 통해서 군인들의 애국심을 자아내게 하려고 했으며,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세태들을 반영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들을 행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 심화되었다. 전쟁에 미군이 가담하였고, 휴전협정 이후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였다. 미군의 주둔

74) 이준희, 앞의글, p. 87.
75) 장유정, 위의 글, 2009, p.222.
76) 이영미, 위의 책, p. 135.

은 단순한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화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 3.3. 1953년 - 1961년

휴전협정 이후 레코드 산업은 정상화되는 듯 보였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 속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음반 산업계는 1954년에 정착하게 된다. 대표적인 레코드사로 꼽히는 유니버살, 오아시스, 킹스타, 신세기, 도미도, 미도파 레코드 등은 1954년 서울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며, 이로 인해 서울이 다시 음반의 중심지가 되었다.[77] 이전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레코드가 생산되었으나, LP의 시대인 1960년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대량생산은 불가능했으며, 그로 인해 대중매체로서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폐허가 된 남한 사회 속에서 민족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재도전을 했다. 공보처는 1956년 공보실로 편입되기 이전인 1953년 '국민 가요'를 제정하여 대중적으로 보급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공보처의 편입으로 인해서 '국민 가요 보급 운동'은 국민 개창 추진회'[78]로 넘어가게 된다. 이 협회에서는 주로 왜색가요를 비판하고 국민성을 논의하기 위한 계몽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요일마다 시민 강좌 및 음악회인 '새 노래의 밤'을 진행하였다. 1958년 문교부에서 의뢰를 받아 '건전가요'를 작곡하는데 도모했으며,[79]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가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길 바라였으나, 이는 무산된다.

민간단체의 실패 이후 정부는 매스미디어로 옮겨가 '국민 가요'를 대중들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다. 1956년부터 방송된 프로그램인 〈오늘도 명랑하게〉는 '건전 가요' 혹은 '국민 가요'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이는 '국민 가요

77)이준희 "1950년대 유성기음반사 연구 - 6대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Vol.14, 2004, p. 139.

78)국민 개창 추진회'는 한국 양악 작곡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나운영, 박태현, 윤이상, 이흥렬, 현제명 등 일제 시기에도 활동했었던 작곡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민 개창 추진회'는 1950년 한국 전쟁 중 부산에서 설립된 '전시 작곡가 협회'가 그의 전신이며, 1954년 '한국 작곡가 협회'를 거쳐 1954년 말에 정착된 협회이다.

79) 문교부와 공동작업을 통해서 국민가요가 수록된 〈〈이내 몸 바치리〉〉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고향역〉, 〈소녀의 꿈〉과 같은 대중적인 가요들과 더불어 민요, 타령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진원, "자료 : 〈국민가요곡집 새나라의 노래〉 영인 해제", 『한국음악사학보』, Vol.42, 2009, p. 291-327.

보급 운동'이 대중화에 실패하자 상업가요와 구분 되는 '방송 가요'를 만들어보려는 이승만 정권의 도전이었다.[80] 방송가요와 상업가요의 이분화를 통해 방송가요[81]만의 영역을 만들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유행가를 한국 사회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주류를 창시하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거듭된 실패로 인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은 미국 문화로 옮겨갔다. 이미 해방 이후 한국 사회 속에서 미국은 '해방'의 상징이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심화와 함께 미국은 '자유'의 상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미국은 한국을 냉전체제의 수단이자 전위로서 활용하고자 선전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스스로 냉전체제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82] 그렇기에 한국사회 속 미국문화의 영향력이 커졌다. 대중들의 눈을 제일 먼저 사로잡았던 것은 영화였다. 미군은 영화과를 신설하여 각종 영화를 통해서 미국식 제도와 가치관 및 생활 방식의 우월성을 보여주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미국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은 커져갔다.

영화 다음으로 한국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음악이었다. 당시 한국에 주둔하던 미8군에서 종종 위문공연이 열렸는데, 이를 '미8군쇼'[83]라고 한다. '미8군쇼'에 동원되는 한국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들이 생겨났으며, 이 때의 용역회사들은 한국 현대사회의 연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시초인 셈이다. 1950년대 중반에 설립된 미군 클럽의 수는 264개에 이르렀으며, '미8군쇼'에서 일하는 음악인들 및 매니저들에게 지불된 소득은 100만 달러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1950년대 한국의 대외 수출액을 상회하는 것이었다.[84]

---

80) 이영미, 위의 책, 2006, p. 195.
81) 이는 이후 1970년대 가정가요 운동 혹은 건전가요 보급의 토대가 된다.
82) 이하나, "미국화와 욕망하는 사회",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 창비, 2016, p. 139,
83)미군 기지 내부에서는 미군 병사를 위한 일종의 '쇼'가 발전한 미군 클럽들이 존재했다. 이는 미군 기지 쇼 혹은 단순하게 '미8군쇼;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8군쇼'라는 이름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24사단이 미8군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신현준 홍등홍, 위의 글, p.346.

미 8군 무대를 통해서 여러 미국 음악들이 한국어로 번역 혹은 번안되어 한국 사회로 유입되었으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8군 무대의 하락세가 보이기 이전까지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창구 역할을 했다. 미 8군 쇼의 아티스트들은 미국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이는 이후 방송으로 옮겨간 여러 미8군 쇼 아티스트들로 인해서 한국 음반 산업 시장에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미8군 무대뿐만 아니라 AFKN의 송출 또한 한국 사회 속 서양 음악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AFKN이 정식으로 송신을 시작한 연도는 1955년으로 미8군쇼의 시작과 같은 연도이며, 미8군쇼를 편성하는 곡들은 모두 AFKN을 통해 소개되었던 곡들이었다. 미8군쇼에 올라가는 한국 가수들은 AFKN을 통해 소개되는 곡들을 채보하거나 녹음한 이후, 가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공연하였다.[85] 이 때 AFKN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은 [East of Midnight] 과 [탑툰 쇼]등 이었다. 이 두 프로그램 중 [탑툰 쇼]의 경우 매주 빌보드 차트에 석권한 음악들을 틀어주었으며,[86] 이를 통해 번안하여 발매된 곡들이 1960년대 번안가요 레파토리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50년 대 초와 말에 명동에는 '은하수 다방'과 무교동의 '쎄시봉'과 같은 음악감상실들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다.[87] 음악감상실은 유입된 외국 가요 LP를 틀어주고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사회 속의 문화공간이었으며, 이후 60년대에는 여러 포크송 가수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이 공간에서는 최신 서양 대중가요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들은 노래를 바탕으로 번안가요 앨범을 낸 경우도 다수 있다고 밝혀져 50년대 서양 음악 유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84)신현준 홍둥홍, 위의 글, p. 348.
85)원재웅, 위의 논문, p.16.
86)박기영 『이식, 그리고 독립: 한국 모던 포크 음악의 성립과정』,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p.64-65.
87)1955년 되면서부터 충무로, 명동, 그리고 무교동이나 관철동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대형 음악 감상실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 음악감상실의 시작은 50년대 중반에 문을 연 '세시봉'이 시초로 여주인이 미 군사 고문과 국제결혼한 사람이어서 레코드 자료가 풍부했다. 곧이어 종로 2가 YMCA 뒷골목에 '디쉐네', 미도파 옆에 시대백화점 자리에 '라 스칼라' 등 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감상실들이 생겨 나게 된다. 원재웅, 위의 논문, p. 21.

있다.[88]

위에서 언급했던 〈체리 핑크 맘보〉뿐만 아니라 아래의 신문기사를 통해 언급되는 네 곡을 포함하여 총 다섯 곡은 이 시기에 서양대중가요가 유입되면서 발매된 번안가요였다.

*해방이 되고 미군의 진주와 함께 이 땅에 밀어 닥친 것은 다름 아닌 재즈붐이었다. 재즈는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대중들 속에 무서운 기세로 파고들어 해방과 더불어 대중가요를 크게 바꿔 놓은 것이다.*

*미군 부대 주변에서 흘러나온 재즈 레코드와 미군 쇼무대에서 활동하던 가요인들에 의해 전국에 퍼져간 재즈곡은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유 어 마이 선샤인〉, 〈베사메무초〉, 〈슈 샤인 보이〉등 미국풍의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자 가요계는 급속하게 재즈리듬으로 변해갔다. 상해에서 돌아온 현인은 당시 세계를 휩쓸던 '멕시코' 노래 〈베사메무초〉를 럭키 레코드에 취입, 유행시켰고, 〈붕가완 솔로〉와 샹송으로 〈낙엽〉, 〈도미노〉등을 내 해방 후 재즈와 샹송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89]

〈유 어 마이 선샤인〉의 원곡은 〈You are my sunshine〉으로 1939년 미국에서 지미 데이비스와 찰스 미첼이 작곡한 컨트리 장르의 곡이다. 이 곡은 창작된 이후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 하였는데, 당시 US chart에 기록을 올리는 등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곡이다. 〈베사메 무초〉는 멕시코 노래로 1970년대에 〈현인 히트 골드 앨범〉을 통해 재 발매된 바 있다. 단조풍의 노래이며, 미국의 노래가 아닌 서구권 국가의 타 지역의 곡으로 이를 통해서 서양대중가요 중에서도 미국 대중가요만 한정적으로 유입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90] 미국 대중음악의 주류 분야였던 컨트리 혹은 재즈뿐만

88) 트윈폴리오, 뚜아에무아 등 70년대 가수들이 앨범을 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89)"연예수첩 반세기 가요계 (4) - 미군 진주와 재즈붐", 동아일보, 1973년 3월 31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3310020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3-31&officeId=00020&pageNo=7&printNo=15844&publishType=00020 .

90) 이는 뒷장에서 곡 분석하면서 더 논의할 예정이다.

아니라 샹송과 칸조네와 같은 유럽 지역의 대중가요들이 기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 한국 음악시장에 다양한 장르의 서양음악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4. 종합적 분석

해방 공간은 전쟁과 좌우 대립으로 인한 혼돈의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발발로 인해 레코드 산업은 암흑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색가요를 지양하는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대중과 지배계층의 관심은 높아졌다. 해방 이후 미국은 해방의 상징이었으며, 한국전쟁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일감정에서 비롯된 왜색가요 지양정책으로 인해 이전까지의 활발히 생산된 유행가 장르가 통제를 받게 되면서 서양 대중가요는 그의 대안에서 주류로 성장하게 되었다.

반일감정 뿐만 아니라 해방이후 고조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반공주의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집단에 의해서 유입된 이래로 해방이후 사회에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해 정착된 미군의 선전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공산주의의 성장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원조한 남한에 반공주의를 교육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배계층이 수용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1950년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향으로서 이후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중요한 정책적 지향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다. 196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의 형태는 다르지만, 서양 대중가요 특히 미국 대중가요에 대한 지배계층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기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 가요사를 비롯해 번안가요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미 8군쇼의 영향력이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미 8군쇼를 통해 생산된 곡들이 대부분 1960년대에 재발매 되었다는 사실[91]을 통해 이때 발매된 곡들이 1960년대 초의 레파토리를 형성했다는

91) 조장원, “한국 대중음악 수용자 연구”, 『음악과 민족』, 제 56호, 2018, p. 195-223.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8군쇼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은 미8군쇼의 하락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레코드 산업의 주역이 되어 번안가요를 발매하고 음반 활동을 전개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다루어졌던 여러 레파토리들이 1960년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미 8군쇼를 통해서 '무대연예사'[92]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 상업 가요는 미8군쇼 즉, 무대를 통해 유입된 번안가요 레파토리를 통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를 기반으로 한 음악활동이 음악사에서 중요성을 띄게 되었으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음악 감상실에서 있었던 공연 활동들의 활성화를 초래했다. 1970년대 공연활동의 주역은 청년문화를 형성한 청년세대들이며, 이들은 모두 해방 이후에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였다. 당시의 기성 세대와 달리 이들에게 미국 문화는 낯선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이며 정서적 자원이었다.[93] 그들은 서양 대중가요를 전유매체로 하여 공연을 했고, 공연예술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넘어 저항문화를 형성했다. 이 때 특정 장르의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이 번안가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94] 이러한 결과의 기저에는 미8군쇼가 있다.

92) 신현준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의 논문 "1970~1980년대 대중음악사 서술의 쟁점: 불확정적 텍스트와 복합적 매개의 난점", 『대중음악』, Vol.15, 2015, p.93-112.를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이준희, "195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대중서사연구』, Vol.17, 2007, p. 93에서 음반과 함께 '이중 유통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93) 김창남 "제 9장 한국 대중문화의 정체성과 미국문화",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아카데미, 2003, p. 254.

94) 이혜림, "1970년대 청년문화 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사회연구』, 2005, Vol.6, p.7-40. 에서는 (1)일상생활에 대한 구속감, (2) 가치체계의 혼란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 (3) 문화적 빈곤감, (4) 차별화 의식, (5) 서구 지향성 총 다섯 가지의 요인이 청년문하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이었다고 서술한다.

## 4.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 (1961년 - 1987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대한민국은 제 5공화국 그리고 독재정권을 맞이하게 된다. 박정희는 쿠데타에 대한 제 1조를 '반공'으로 내세웠고 국민성, 민족성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하여 정책을 펼쳤다. 정권의 핵심목표는 부국강병을 위한 조국 근대화 실현이 있었으며, 문화정책도 이를 위해서 실행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 헌법 개정을 통해 18조 2항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95]하였고, 이를 통해서 검열에 대한 정당화를 하였다. 문화 혹은 매체에 대한 검열과 통제 시스템은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정권에서도 있었으며,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독재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 4.1. 1961년 - 1966년

1960년대 LP 판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음반 생산은 이전의 원판인 SP보다도 대량 생산을 하기에 용이해졌다. 레코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은 물론, 무단으로 복사하고 배포되는 '해적판' 시장이 생겨났다.[96] 1960년대 LP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해적판' 시장의 등장은 레코드 산업에서 회사의 경영상 손해[97]를 끼치는 것과 더불어 다방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1960년 11월 2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95) 채백,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개인의 언론 자유",『언론정보연구』, 제 53권, 1호, 2016 p.181.

96) 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1950년대의 음악 산업의 중심에는 공연무대가 있기에 해적판의 위협은 없었다. 1958년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공보실 레코드 제작소에서 LP가 생산되었고, 상업적 차원에서 LP가 처음 생산된 것도 1959년부터 이기 때문이다. 김병오 "1960~1980년대 해적판 레코드 대중화 과정 연구", 『공연문화 연구』, 제 24집, 2012, p 52.

97) 김병오 앞의 글, p. 55.

*4.19 전까지는 왜색 단속이라는 취지 아래 일본 레코드가 금수입되었고 노래도 틀지 못했던 것이나 이제는 일본 레코드의 금수가 해제되었으며 일본 노래의 단속도 풀린 틈을 타서 군소 레코드 회사들이 일본판 복사로 일제히 전향한 형편이다...*

*이와 같이 레코드 계에 불어온 니뽕부움으로 인하여 국산 레코드계는 독자적인 기업 형태를 갖추기 어려운 고비에 들어섰는데 이것은 비단 레코드계의 부진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레코드 문화를 향수하고 있는 광범한 대중층의 정시 문제와 감정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다. ... 요즘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은 거의가 외국의 포퓰라송과 일본 멜로디에 쏠리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젊은 세대를 매료할 만한 국산 노래의 빈곤에 이유가 있다고 레코드 관계자들도 솔직히 말하고 있다.* [98]

'해적판'은 검열의 눈을 피해 개인 소장되는 경우가 많아 레코드사별로 공식적인 발매 목록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생산된 LP에 대한 음반회사별 공식적인 목록은 없으며, '해적판'으로 인한 언더그라운드 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음반 판매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KBS 아카이브[99]에 있는 1960년대부터의 LP앨범들을 바탕으로 번안가요를 추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발매된 번안가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98) 동아일보 1960년 11월 2일 기사, "일본 바람에 멍든 국산 레코드" 를 김병오 "1960~1980년대 해적판 레코드 대중화 과정 연구", 『공연문화 연구』, 제 24집, 2012, p. 54-55에서 재인용.

99) KBS 본사에서 KBS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접속했다. 방송국이 개국한 것이 1960년대부터 이기 때문에 1950년대의 레코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1960년대부터 외국곡 혹은 작자 미상이라고 표기된 곡들 중에서도 원곡을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테이프가 발매되었으나, 테이프로 발매된 곡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에 LP 로 통일하였다.

| 레이블 | 앨범명 | 발매연도 | 가수 | 수록곡 | 원곡 장르 |
|---|---|---|---|---|---|
| 기록 없음 | 키스 도둑/ 피노키오의 편지 | 1964 | 유주용 | 피노키오의 편지 | 유로팝 |
| 미도파 | 최무룡- 단둘이 가봤으면 | 1964 | 현미 | 테네시 왈츠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머스크렐 램불 (muskrat ramble) | 댄스 |
| 신세기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1964 | 이 씨스터즈 | 태양은 외로워 (l'eclipse)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슬픈영화 (sad movie) | 이지리스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고독의 거리 (it's lonesome old town) | 재즈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이 세상의 끝 (top of the wolrd) | 컨트리 |
| 신세기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1964 | 이 씨스터즈 | 내 사랑 코리나 (corinna Corinna) | 컨트리 |
| 신세기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1964 | 이 씨스터즈 | 남녘 하늘 내 고향 ( south town USA)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1964 | 이 씨스터즈 | 그대 손목 잡고 싶어 (I want to hold your hand)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보사 노바의 추억 (blame it on the bossanova)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언제나 그대 곁에 (may you always)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워싱톤 광장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쟈니는 답답해 (jhonny got angry)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1964 | 이 씨스터즈 | 지난날을 위하여 (JUST FOR OLD TIME SAKE)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1964 | 이 씨스터즈 | 키스미 퀵 (kiss me quick) | 팝 |
| 신세기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1964 | 이 씨스터즈 | 희미한 사랑의 구름 다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 팝 |
| 신세기 | 귀여운 베이비 | 1965 | 김계자 | the longest day 사상최대의 작전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1965 | 이 씨스터즈 | 이별의 노래 (I understand) | 이지리스닝 |
| 신세기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1965 | 이 씨스터즈 | 그 맑고 환한 밤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 캐롤 |
| 신세기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1965 | 이 씨스터즈 |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 캐롤 |
| 신세기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1965 | 이 씨스터즈 | 저들 밖에 한밤 중에 (first noel) | 캐롤 |
| 신세기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1965 | 이 씨스터즈 | 징글벨 | 캐롤 |
| 신세기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1965 | 이 씨스터즈 | 천사 찬송 하기를 (Hark the herald angels sing) | 캐롤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허니비 씨스터즈 | 진주 조개 (pearly shell) | 기악곡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최 희준 | 밤 안개 속에 데이트 (la playa) | 기악곡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1966 | 이금희 | 쌍하이 트위스트 (shanghied twist) | 락 |
| 신세기 | 꿀맛/ 오죽하면 얌체냐(이금희 힛트 파레이드) | 1966 | 이금희 | 히피 히피 쉐이크 | 락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bye bye blondie | 락 |
| 신세기 | rock and key boy's | 1966 | 키보이스 | labamba and twist and shout | 락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love portion no.9 | 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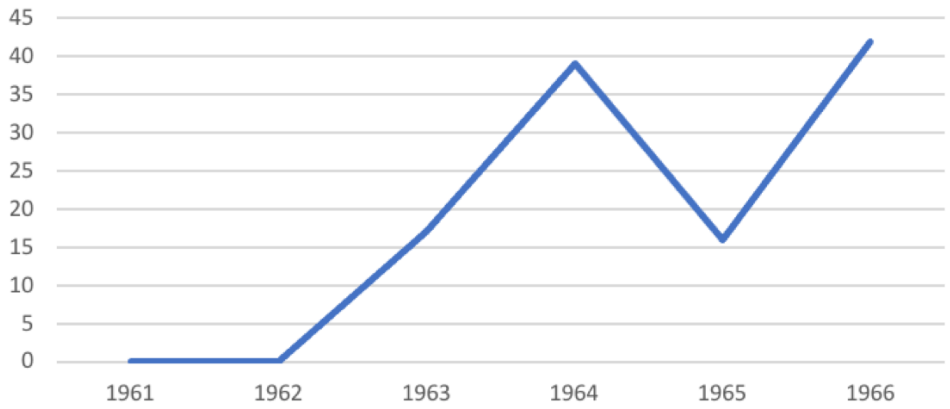
| 신세기 | rock and key boy's | 1966 | 서정길 | 얄궂데이 | 민요 |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최수진 | 내 사랑 로리팝 (my boy lolipop) | 블루스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1966 | 유주용 | 또 다시 트위스트를 (let's twist again) | 블루스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1966 | 이금희 | 사냥개 (hound dog) | 블루스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1966 | 유주용 | 언체인 마이 하아트 | 블루스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부베의 연인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최희준 | 언체인 멜로듸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이 씨스터즈 | 멕시칸 진주 (mexican pearls) | 재즈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이 씨스터즈 | 바람쟁이 (sinner man) | 재즈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1966 | 이금희 | 비밥파 룰라 (be-bop-a-lula) | 컨트리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황인순 |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리 (I can't stop loving you ) | 컨트리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crying in the chapel | 컨트리 |
| 신세기 | 방랑의 휘파람/ 내 마음 울고 있오 (노래의 성좌 vol.4) | 1966 | 이씨스터즈 | 돌아갈 수 없는 고향 | 팝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축제의 노래 | 팝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최희준 | 해변의 나그네 -strangers on the shore | 팝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beautiful brown eyes | 팝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wonderland by night | 팝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사랑의 기쁨 (piacer de amor) - giovanni maritini | 포크 |
| 신세기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1966 | 황인순 | 엄마와 아빠의 월즈 (mama and daddy waltz) | 포크 |
| 신세기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1966 | 이 씨스터즈 | lemon tree | 포크 |
| 아세아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1963 | 김영국 쟈니 브라더스 | 비치 파티 (beach party) | 댄스 |
| 아세아 | 안다성 애창곡집 | 1963 | 안다성 | 체리핑크 맘보 | 유로팝 |
| 아세아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1963 | 이지희 | 안개 낀 밤의 데이트 (La plage) | 영화 삽입곡 |
| 아세아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1963 | 아리랑 시스터즈 | 그이에게 다정히 (treat him nicely) | 이지리스닝 |
| 아세아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1963 | 쟈니브라더스 김영국 아리랑 시스터즈 | 윗 아이 쎄이 | 재즈 |
| 아세아 | 정씨스터즈의 힛트 앨범 no.1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1963 | 정씨스터스 |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luna liena) - santos lange | 팝 |
| 아세아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1964 | 모니카유 | 식어버린 사랑 (the thrill is gone) | 블루스 |
| 아세아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1964 | 모니카유 | 그대가 미소지을 때 (when you're smiling) | 댄스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유주용 | 라노비아 | 영화 삽입곡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정씨스터즈 | 벽에도 귀가 있다 (the wall has ears) | 영화 삽입곡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정씨스터즈 | 날이 갈수록 사랑해요 (i love you more an more) | 이지리스닝 |
| 아세아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1964 | 모니카유 | 달나라로 보내줘요 (fly to the moon) | 재즈 |
| 아세아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1964 | 모니카유 | 멋진그날 (you'd so nice to come home to) | 재즈 |
| 아세아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1964 | 정씨스터스 | 라콤파르시타 | 댄스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정씨스터즈 | 장미의 탱고 (tango dellerose) | 댄스 |

| | | | | | |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정씨스터즈 | 바바니들 (bobba needle) | 팝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정씨스터즈 | 불의 키쓰 (kiss of fire) | 팝 |
| 아세아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1964 | 모니카유 | 초원의 언덕 (Day's of wine and roses | 팝 |
| 아세아 | 라노비아 | 1964 | 정씨스터즈 | 비여! 오지 마라다오 (don't let the rain come down) | 포크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오늘밤을위하여 (just for tonight) | 댄스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하니문 챠챠 (honey moon chacha) | 댄스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오직 내 사랑 (your other love) | 알앤비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그대는 나의 모든 것 (you mean everything to me) | 이지 리스닝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차오차오 밤비나 (Ciao ciao bambina) | 팝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언덕위의 포장마차 (wheels) | 컨트리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귀여운 베이비 (pretty little baby) | 팝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달빛 아래 나포리 (tintarella di luna) | 팝 |
| 아세아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1965 | 정씨스터즈 | 젊은 날의 보사노바 (blame it on the bossanova) | 팝 |
| 아세아 | 나의 푸른 하늘 : 모니카유, 유주용 | 1966 | 유주용 | 빨리 키스해주세요 | 컨트리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정열의 마카레나 (La macarena) | 댄스 |
| 오아시스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1963 | 김치켓 | clementine | 민요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검은 상처의 부르스 (broken promises) | 블루스 |
| 오아시스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1963 | 김치켓 | historia de un amor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문리버 (moon river)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알디라 (aldila)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아름다운 하늘 (cielito lindo) | 팝 |
| 오아시스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1963 | 김치켓 | cu-cu-rru-cu-cu-paloma | 팝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월광의 룸바 | 팝 |
| 오아시스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1963 | 김치켓 | 라파로마(la paloma) | 팝 |
| 오아시스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1963 | 김치켓 | tennessee waltz | 팝 |
| 오아시스 | 손석우 탑 히트 | 1964 | 손시향 | harbour lights | 블루스 |
| 오아시스 | 손석우 탑 히트 | 1964 | 손시향 | I will be home | 알앤비 |
| 오아시스 | 손석우 탑 히트 | 1964 | 손시향 | if dreams come true | 재즈 |
| 오아시스 | 손석우 탑 히트 | 1964 | 손시향 | theres a gold mine in the sky | 컨트리 |
| 오아시스 | 손석우 탑 히트 | 1964 | 손시향 | round and round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위키리 | 사랑의 향수 love potion no.9 | 락 |
| 오아시스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1966 | 최양숙 | 빠담 빠담 빠담 | 유로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유주용 |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save the last dance for me) | 알앤비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현미 | 상처(hurt) | 알앤비 |
| 오아시스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1966 | 최양숙 | 쟈니 기타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최양숙 오리지날 힛송 총결산집 | 1966 | 최양숙 | 죽도록 사랑해서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모니카유 | 헬로달리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1966 | 최양숙 | 루나 롯사 | 유로팝 |

| | | | | | |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김상국 | take these chains from my heart 내 마음의 사슬을 풀어다오 | 컨트리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임현기 | 제저벨 jezebel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정재희 | 나의꿈 my dream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이금희 | 눈물의 태양 crying in a storm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한명숙 | 떠나가주오 walk away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1966 | 조애희 | 마리아 엘레나 maria elena | 팝 |
| 지구 | 이미자/ 동백 아가씨 | 1964 | 현미 | 눈물의 왈츠 | 팝 |
| 킹스타 | 라노비아/도미니크 | 1964 | 마운틴 씨스터 | 눈물에 젖어(la novia) | 영화 삽입곡 |
| 킹스타 | 라노비아/도미니크 | 1964 | 마운틴 씨스터 | 무심한 마음 (wooden heart) | 팝 |
| 킹스타 | 라노비아/도미니크 | 1964 | 마운틴 씨스터 | 파드레 (padre) | 팝 |

[표 6] 1961년 - 1966년 발매된 번안가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발매된 번안가요는 총 116곡으로 주로 서울에 정착했던 레코드 회사인 오아시스, 신세기, 아세아등을 통해 발매되었다. 다음은 이에 기초한 번안가요 연도별 생산 그래프 이다.




[그래프 12] 1961년 - 1966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위의 그래프에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번안가요 생산 수치가 증가한다. 1960년대부터 레코드 산업이 시작되고 많은 서양 대중가요가 번안가요

를 통해 유입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문화 예술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1962년에는 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100]를 창립하였고, 1964년 〈방송법〉과 〈심의규정〉을 제정하였다. 방윤의 〈심의 규정〉 중 음악방송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5장〉 음악 방송*

*제60조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가사와 곡(창법 포함)은 방송하지 아니한다.*

*제 63조 외국 가요를 우리나라 가수가 부를 때에는 그 가사를 원어로만 부르지 않도록 한다.* [101]

제 63조를 통해 외국 가요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음[102]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 가요를 번안한 번안가요들은 하나의 저작물로 발매될 수 있었다. 번안가요는 방송에 송출될 수 있었으며, 이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했다. 〈방송법〉은 한국 가요 시장 속에서 한국 창작 가요의 결여와 미8군 무대 가수들의 방송진출로 인한 번안가요의 유입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초기에 "'서구 물질 문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수용의 자세는 항상 '동양적인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취해야 한다"[103]고 주장했는데, 이에 번안가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구 물질 문명'인 서양 대중 가요를 한국적인 혹은 '동양적인'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존재로서 번안가요는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던 문화 수용 방식의 적합한 예이며, 그렇기에 이 시기에 정부에서

---

100) 방윤은 대게 방송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었으며, 본격적 검열기구가 설립되기 이전에 방송 검열 기구로서 역할을 했던 기관이었다. 1992년까지 방송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했으며, 방송 기관에 나가는 여러 예술 매체들을 주로 관리했다.

101) 문옥배, 『한국 금지곡 사회사』, 예솔, 2004, p.103

102) 1950년대에 한국 음악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상관없이 외국 가요는 원어로만 부르지 않으면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었다.

103) 이상록 "문화계, 획일주의에 맞선 저항의 우회로", 『한국 현대 생활 문화사 1970년대 - 새마을 운동과 미니스커트』, 창비, 2016, p. 124-125.

번안가요 장려정책을 시행했다.

〈방송 심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방송 심의 준칙〉 중 방송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4장〉 음악 방송*

*제 2조 외국가요는 그 가사, 창법, 선율 등 작품 전체가 풍기는 품성 등이 우리 사회 통념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곡한다.*[104]

여기에서 설명하는 '우리 사회 통념과 조화'는 왜색지양과 연관 있다.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일본풍 음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이 당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왜색풍[105]음악들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발표된 〈레코드 취체규칙〉과 유사하다.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하에서 영미권 음악이 금지된 것과 같이, 이 시기의 일본의 음악과 관련된 생산 행위를 저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시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통념과 조화'를 통해 일본의 음악을 통제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것이다.[106] 이는 한편으로 서양대중가요의 번안가요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였다.

위의 총 목록에는 이 씨스터즈, 모니카유, 현미, 패티김, 김치 캐츠 걸스, 최희준 등과 같은 모두 미 8군쇼에서 활동했던 아티스트들의 번안가요들이 있다. 이들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8군쇼의 하락세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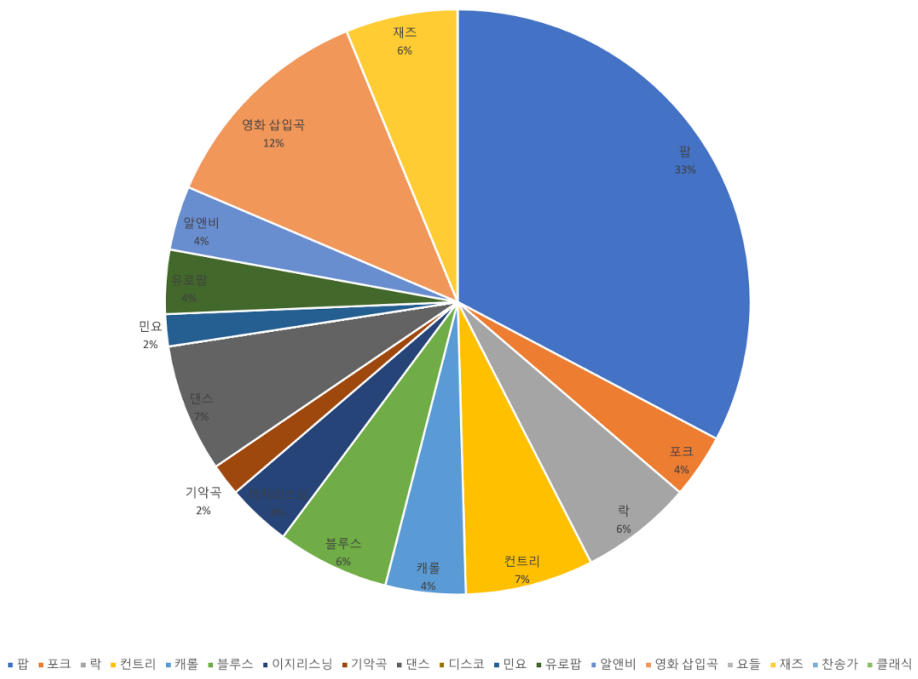
104)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방송심의준칙",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6%A1%EC%8B%AC%EC%9D%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05) 왜색풍 음악들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권정구 "대중음악 금지곡 중 왜색과 표절의 관계 고찰: 비공개 심의원본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Vol.39, 2018, p. 61-94를 참고하도록 한다.

106) 반면, 번안가요의 장려정책적인 면모와 동시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중문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는 '건전가요'가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졌던 시기인 1975년 이후의 단원에서 더 논의하도록 한다.

께 방송으로 진출했으며, 번안가요 장려정책으로 인해 번안가요의 주역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앞서 등장했던 미8군쇼의 영향력이 1960년대까지 지속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표 6]에 기초하여 번안가요에 대한 원곡의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 13] 1961년 – 1966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당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장르는 팝이었고 그다음으로 많은 장르는 영화 삽입곡[107]이었다. 댄스 장르도 7%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장미의 탱고〉, 〈정열의 마카레나〉등 유럽 지역의 댄스 음악들도 포함한다. 그 외에는 유로팝과 더불어 캐롤, 민요 장르의 곡이 번안되어 발

107) 영화 삽입곡은 영화의 타이틀 혹은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곡이 번안된 곡을 지칭한다.

매되었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서양대중가요들이 번안되어 유입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 음악 산업 장르의 다양화[108]가 번안가요를 통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장르는 이지리스닝이다. 이지 리스닝이란 미국의 팝 발라드의 전신이며, 프랭크 시나트라 등과 같이 크루너(Crooner)[109] 혹은 크루닝 창법을 구사하는 가수가 부른 가요를 의미한다. 대부분 잔잔한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피아노 반주 혹은 현악기 반주와 함께 등장한다. 미국 대중음악사에서 블루스나 소울과 같은 블루스 음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장르가 R&B라고 한다면, 영국의 발라드와 틴 팬 앨리의 스탠다드 팝의 음악적 어법을 기초로 하여 성장한 장르가 이지리스닝이다.[110] 이지 리스닝은 미8군쇼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장르이며, 한국 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된 트로트와 대조되는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지리스닝은 서양음악 어법과 크루닝 창법을 한국 음악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11]

번안가요들은 원곡의 악기 편성을 바탕으로 생산되었다. 그렇기에 미국 대중음악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한국으로 전이 되었다. 1930년대에 도입된 빅밴드부터 기타 반주까지 이전보다 음색이 풍부해졌다. 이 시기에는 컨트리 장르와 포크 장르가 처음 유입되면서, 번안가요를 통해 기타가 솔로로 반주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타 연주에 대한 관심은 다수의 기타 연주곡 유입과도 연결된다. 멕시코 풍의 기타 반주로 시작하는 〈Jezebell〉은 〈제저벨〉로 번안되었고, 기타 연주곡〈Luna Llena de Los〉의

108) 미국 대중음악사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격변기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장르가 탄생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재즈와 백인계열의 컨트리와 스탠다드팝, 흑인계열의 소울과 블루스가 있었다면, 비틀즈의 미국 침공과 함께 68혁명과 반전운동이 있었던 1960년대를 거치면서 포크, 컨트리, 이지리스닝, 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성립된다.

109) 크루닝 창법을 구사하는 가수들을 의미한다.

110) 래리 스타, 크리스토퍼 워터먼의 저서, 『미국대중음악』, 에서 이지리스닝은 언급되지 않지만, 틴 팬앨리 가수들과 작곡가들을 통해 생긴 스탠다드 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빌보드 차트에서 하나의 장르로 분류되어 있다.

111) 이지리스닝과 스탠다드 팝은 이후 1980년대 한국 발라드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된다.

경우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로 발매되었다. 위의 목록을 통해 청년문화에서 상징적 악기인 '통기타'가 이미 1960년대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기타뿐만 아니라 신디사이저도 새로운 장르의 도입과 함께 한국 음악 시장으로 도입되었다. 권현우와 박재록에 의하면 1970년대 미국 문화의 유입과 동시에 전자악기가 유입되었다고 하며, 1980년대에는 조용필[112]이 1집 앨범 수록곡인 "창 밖의 여자"에서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면서 락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신디사이저가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다.[113] 그러나 위의 목록에 기초한 분석을 살펴보면 1960년대 발매된 곡들 중에서도 이지리스닝 계열과 댄스 계열의 노래들에 전자 피아노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신디사이저의 사용이 1970년대가 아닌 196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2) 김경일 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80년대-스포츠 공화국과 양념통닭』, 창비, 2016. 의 "크게 본 1980년대:1980년대 5월에서 6월로, 그리고… "에서 '대중음악의 영역에서는 조용필의 지배 아래 언더그라운드에서 들국화의 전설이 형성되던 1985년을 분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조용필이 대중음악사에서 가진 위상을 알 수 있다.

113)권현우, 박재록,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전자 악기 수용 연구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Vol.51, 2016, p. 222-226.

## 4.2. 1967년 - 1974년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총 205곡의 번안가요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이전 시기보다 약 77%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오아시스레코드 사에서 대부분의 번안가요를 발매했다.[114] 이 시기에 발매된 번안가요들은 다음과 같다.

| 레이블 | 앨범명 | 발매연도 | 가수 | 수록곡 | 원곡 장르 |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브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뚜아에 무아 | 나의 사랑 나의 기쁨(let it be me) | 락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스카보로우의 추억 (scarbrough fair) | 팝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에델 바이스 (edelweiss) | 영화 삽입곡 |
| 그랜드레코드 | 뚜아에무아 1집 | 1970 | 서수남, 하청일 | 서울구경 | 컨트리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그대여 그대여 (to know is to love you) | 팝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썸머와인 (summer wine) | 팝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도나도나 (dona dona) | 포크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동전 한닢 (if I didn't have a dime) | 포크 |
| 그랜드레코드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1970 | 박인희 | 제네파 쥬네파 | 포크 |
| 그랜드레코드 | 뚜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1971 | 뚜아에무아 | 세월time | 컨트리 |
| 그랜드레코드 | 뚜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1971 | 뚜아에무아 | 이별의 카니발 manha de canival | 포크 |
| 대한 | 임용재 골든 팝송 | 1972 | 임용재 | 그대를 잊으라면 | 락 |
| 대한 | 임용재 골든 팝송 | 1972 | 임용재 | 마주칠 때마다 | 영화 삽입곡 |
| 성음 | 이태신과 탑송 vol.1 | 1967 | 이태신 | 오뚜기의 춤 | 락 |
| 성음 | 이태신과 탑송 vol.1 | 1967 | 이태신 | 내마음을 풀어주오 | 재즈 |
| 성음 | 바람아 불어다오 이태신과 탑송 | 1967 | 이태신 | 예~예~라고 말합시다 | 재즈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유주용 | 추억의 솔렌자라 | 기악곡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조영남 | 가야만 하리 | 락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수지베이비 | kansas city | 락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블루벨스 | 금지된 장난 | 영화 삽입곡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이주랑 | 태양은 가득히 | 영화 삽입곡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유주용 | 사랑하는 마음 | 유로팝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트윈폴리오 | 렛 이트 비 미 | 팝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수지베이비 | 뱅뱅 | 팝 |
| 성음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1968 | 펄씨스터즈 | 첫사랑 | 팝 |
| 성음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1969 | two ace | 그 얼굴 (all I have to do is dream) | 락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기다려 주렴 (wait for me baby please) | 락 |
| 성음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1969 | 조영남 | 외로운 사나이 (the great pretender) | 블루스 |
| 성음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1969 | 이석;저우 | 야생 (born free) | 영화 삽입곡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날 잊지 말아주 (please love me forever) | 이지리스닝 |

| | | | | | |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비정의 사나이 ] (a man without love) | 이지리스닝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언덕 위에 교회당 (chaple on the hill) | 컨트리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외로운 젊은이 (make the world go away) | 컨트리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귀여운 사랑 (don't be afraid little darlin) | 팝 |
| 성음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1969 | 이찬 | 사랑의 추억 (the way it used to be) | 팝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이별의 눈빛 (spanish eyes) | 팝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추억 (smorky places) | 팝 |
| 성음 | 김준과 top song vol.1 | 1969 | 김준 |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 팝 |
| 성음 | 주은경 : 꽃동산/그맹서 | 1970 | 비존스 | 어둠의 찬가 (sound of silence) | 락 |
| 성음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1970 | 이승재 | holiday (공휴일) | 락 |
| 성음 | 이태신과 탑송 vol.1 | 1970 | 이태신 | 나에게도 여자가 있네 | 블루스 |
| 성음 | 조영남 가요 힛트 수록 vol.1 | 1970 | 조영남 | 최진사댁 셋째딸 | 알앤비 |
| 성음 | 이태신과 탑송 vol.1 | 1970 | 이태신 | 샤레이드 | 영화 삽입곡 |
| 성음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1970 | 이승재 |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피닉스에 두고 온 사랑) | 컨트리 |
| 성음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1970 | 이승재 | I'm so lonesome I could cry (외로워서 나는 웁니다 ) | 컨트리 |
| 성음 | 황규현/애원 | 1970 | 준씨스터즈 | 하얀손수건 | 팝 |
| 성음 | 조영남 골든 히트 제1집 | 1970 | 조영남 | 내 고향의 푸른 잔디 | 포크 |
| 성음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1970 | 이승재 |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포크 |
| 성음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1970 | 이승재 | first of may (5월의 첫날) | 포크 |
| 성음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1971 | 템페스트 | 신비의 여인 (black magic woman) | 락 |
| 성음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1971 | 라나에로스포 | 태양의 파편 (kungsleden) | 영화 삽입곡 |
| 성음 | 남에게 물어봐/ 철새의 슬픔 | 1971 | 마상원,김현 | what a sky (태양의 유혹) | 영화 삽입곡 |
| 성음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1971 | 템페스트 | 나의 연인 (sweet caroline) | 팝 |
| 성음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1971 | 라나에로스포 |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 (beautiful brown eyes) | 팝 |
| 성음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1971 | 라나에로스포 | 내 사랑은 언제나 (love me tender) | 포크 |
| 성음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1971 | 템페스트 | 편지 (word's) | |
| 성음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1972 | 봉봉 | an old fashion love song | 락 |
| 성음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1972 | 봉봉 | the lion sleeps tonight | 재즈 |
| 성음 | I want to see my mother | 1972 | 서유석 | 사모하는 마음 (I do adore her) | 컨트리 |
| 성음 | I want to see my mother | 1972 | 서유석 | 빨간 댕기 (scarlet Ribbon) | 팝 |
| 성음 | I want to see my mother | 1972 | 서유석 | 새벽길 (the unquite grave) | 포크 |
| 성음 | I want to see my mother | 1972 | 서유석 | 아름다운 것들 (Mary Hamilton) | 포크 |
| 성음 | I want to see my mother | 1972 | 서유석 | 타박네(I want to see my mother) | 포크 |
| 성음 | I want to see my mother | 1972 | 서유석 | 파란 많은 세상 (blowin in the wind) | 포크 |
| 성음 | 호숫가/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못 잊어 (I almost lost my mind) | 락 |

| | | | | | |
|---|---|---|---|---|---|
| 성음 | 김세환 윤형주 〈호숫가/ 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그리움 | 락 |
| 성음 | 호숫가/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오늘은 일요일 (singin't the blues) | 락 |
| 성음 | 호숫가/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못다한 마음 (quentin's theme) | 영화 삽입곡 |
| 성음 | 호숫가/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님의 모습 (burning bridges) | 이지리스닝 |
| 성음 | 윤형주 리사이틀 | 1973 | 윤형주 | hush a little baby | 이지리스닝 |
| 성음 | 호숫가/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고이 간직하려 하오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 컨트리 |
| 성음 | 호숫가/못다한 마음 | 1973 | 김세환 | 보고픈 사람 (for the good time) | 컨트리 |
| 성음 | 윤형주 리사이틀 | 1973 | 윤형주 | okie from moskougee | 컨트리 |
| 성음 | 윤형주 리사이틀 | 1973 | 윤형주 | banks of the ohio | 팝 |
| 성음 | 윤형주 리사이틀 | 1973 | 윤형주 | 내곁으로 오세요 come to my bedside | 포크 |
| 성음 | 마음의 날개/ 꿈속의 연인 | 1974 | 김준 | 그대 맘 다한 사랑 (love me with all your heart) | 팝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현진수 | 첫사랑의 언덕 (danny's theme) | 기악곡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조영남 | 참사랑 (my true love) | 락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현진수 | 해 뜨는 고향 (house of the rising sun) | 락 |
| 신세기 | 패티김 힛트 앨범 | 1968 | 패티김 | somewhere my love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패티김 힛트 앨범 | 1968 | 패티김 | sound of music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위키리 | 정말 사랑해 (jailra bring me Water) | 재즈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남석훈 | 몰리 달링 (Molly darling) | 컨트리 |
| 신세기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1968 | 남석훈 | 그밤과 같이 | 팝 |
| 신세기 | 차중락 스테레오 힛츠 앨범 | 1968 | 차중락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팝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정미원 | 봐이아 콘 디오 (vaya condios) | 팝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조영남 | 빗줄기의 리듬 (rhythm of the rain) | 팝 |
| 신세기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1968 | 차중락 |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tell laura love her) | 팝 |
| 신세기 | 윤복희 스테레오 앨범 1집 | 1968 | 윤복희 |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 팝 |
| 신세기 | 패티김 힛트 앨범 | 1968 | 패티김 |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 팝 |
| 신세기 | 짬 좀 내줘요 | 1969 | 화니씨스터즈 | 로미오와 쥬리엣 -Mancini henry (a time for us)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짬 좀 내줘요 | 1969 | 봉봉 | 오브라디 오브라다 | 컨트리 |
| 신세기 | 최영희 애창곡집 신세기 | 1969 | 최영희 | 가버린 시절 | 포크 |
| 신세기 | 뚜아에무아 /약속 | 1970 | 뚜아에무아 | 아침에 보는 메리 | 락 |
| 신세기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1970 | 서유석 | 잊지 못할 이야기 | 락 |
| 신세기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1970 | 서유석 | 안젤라 | 유로팝 |
| 신세기 | 정민섭 작곡집 양미란/ 달콤하고 상냥하게 | 1970 | 양미란 |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What am I living for? B.B.king) | 알앤비 |
| 신세기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1970 | 서유석 | 고향 | 이지리스닝 |
| 신세기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1970 | 서유석 | 슬픔을 기타에 실어 | 유로팝 |
| 신세기 | 사랑하는 당신이/ 빗방울 | 1970 | 패티김 | yesterday | 팝 |
| 신세기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1970 | 패티김 | 빗방울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빗방울떨어지네 | 팝 |
| 신세기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1970 | 서유석 | 옛 사랑 | 팝 |
| 신세기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1970 | 패티김 | 철새는 날아가고 (el condor pasa) | 포크 |
| 신세기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1971 | 최희준 | 오! 쏠레 미오 (oh sole mio) | 클래식 |

| | | | | | |
|---|---|---|---|---|---|
| 신세기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1971 | 최희준 | 산골짝의 등불 (when it's lamplighting time in the )- 영국민요 | 민요 |
| 신세기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1971 | 패티김 | 비밀의 사랑 (secret love) - webster paul fransis | 영화 삽입곡 |
| 신세기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1971 | 패티김 | 슈벨트 세레나데 | 클래식 |
| 신세기 | 못 잊어/ 영에게 | 1971 | 임선아 | 눈물 속에 피는 꽃 | 팝 |
| 신세기 | 못 잊어/ 영에게 | 1971 | 임선아 | 밤에 피는 장미 (night of the rose) | 팝 |
| 신세기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1971 | 최희준 | 알로하 오에( ALOHAOE) | 팝 |
| 신세기 | 하얀 눈길/ 호반에 남긴 사랑 | 1972 | 키브라더스 | 목이 매여 | 팝 |
| 신세기 | 패티김 creates hit 3집 | 1973 | 패티김 | 바람따라 별따라 | 팝 |
| 신세기 | 골든 포크 앨범 2집 | 1974 | 이성애 | 잠발라야 | 팝 |
| 신향 | 펄씨스터즈 특선집 | 1968 | 펄씨스터즈 | 샌프란 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 락 |
| 아세아 | 정미조 최신 히트 그사람/언약 | 1974 | 정미조 |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the river in the pines | 포크 |
| 오아시스 | 스잔나/ 후회 | 1970 | 유미리 | 스잔나(영화 사랑의 스잔나 중에서) - 스잔나 주제가/이제는 안녕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1970 | 황철 | 고요한 밤 | 캐롤 |
| 오아시스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1970 | 박형준 | 화이트 크리스마스 | 캐롤 |
| 오아시스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1970 | 김치켓 | 관다나 메라 (guantana mera) | 팝 |
| 오아시스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1971 | 조영남 | 그날이 오면(golden slumber) | 락 |
| 오아시스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1971 | 최희준 | 고별의 노래 -이태리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1971 | 최희준 |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미국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힛트쏭 선집 6집 | 1971 | various artist | 러브스토리 - 정훈희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남자의 마음/ 유학생 | 1971 | 김성애 | 마음은 짚시 - 정훈희 | 유로팝 |
| 오아시스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1971 | 조영남 | 고향의 푸른잔디-cury putman | 컨트리 |
| 오아시스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1971 | 최희준 | 쇼팡의 이별곡 | 클래식 |
| 오아시스 | 나오미의 꿈/ 엄마와 아빠 | 1971 | 정훈희 | 나오미의 꿈 | 팝 |
| 오아시스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1971 | 조영남 | 내 생애 단한번만 | 팝 |
| 오아시스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1971 | 조영남 | 딜라일라 | 팝 |
| 오아시스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1972 | 바블껌 | 이밤에 (hey tonight)-존훠거티 | 락 |
| 오아시스 | 사랑의 상처/ get ready | 1972 | 히식스 | 태양이 질때 | 락 |
| 오아시스 | 사랑의 상처/ get ready | 1972 | 히식스 | color of my world (사랑의 약속 | 락 |
| 오아시스 | 사랑의 상처/ get ready | 1972 | 히식스 | get ready(아름다운 인형) | 락 |
| 오아시스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1972 | 바블껌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 유로팝 |
| 오아시스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1972 | 마일스톤 | 아름다운 갈릴리 (memories of galilee-h.r.palmer) | 찬송가 |
| 오아시스 | 마음심 한글자/ 남자가 애태울때 | 1972 | 조영남 | 기다려주오 (stand by your man) | 컨트리 |
| 오아시스 | 영싸운드 히트 퍼레이드 | 1972 | 영사운드 | 그리운 나의 어머니 (Mamy Blue) | 팝 |
| 오아시스 | 별/ 바람이 분다 | 1972 | 현미 | 밤안개 | 팝 |
| 오아시스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1972 | 마일스톤 | 해지고 어두워도 (day is done)-피터 야로 | 포크 |
| 오아시스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1973 | 문정선 | 켄터케 옛집 - 미국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1973 | 이성애 | 사랑은 추억 속에 (je le vois surton visage) - enrico marcias | 유로팝 |
| 오아시스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1973 | 이수미 | 눈이 내리네 tombe la neige | 유로팝 |
| 오아시스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1973 | 정훈희 | 당신을 따르리 (ben) | 영화 삽입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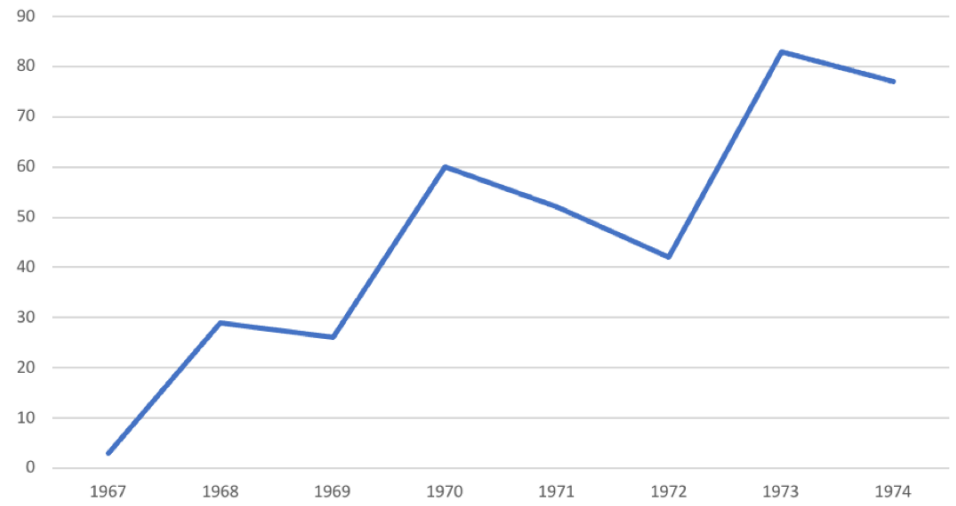
| | | | | | |
|---|---|---|---|---|---|
| 오아시스 | 행복/ 꽃사연 | 1973 | 민희라 | 닭의 요들 - 오스트리아 요들 | 유로팝 |
| 오아시스 | 행복/ 꽃사연 | 1973 | 민희라 |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 오스트리아 요들 | 유로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1973 | 정훈희 | 내사랑 | 이지리스닝 |
| 오아시스 | 잊지마/아름다운 일요일 | 1973 | 이현 | 춤추는 첫사랑 (Ten guitar's) | 이지리스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1973 | 이성애 | 그 옛날 처럼 carpenter richard -yesterday once more | 컨트리 |
| 오아시스 | 두 마음/ 그때는 몰랐어요 | 1973 | 이현 | 어머니 | 컨트리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1973 | 바나걸즈 | 행복한 사랑 (Top of the world) | 컨트리 |
| 오아시스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1973 | 정훈희 | 고독 (wednesday child) | 팝 |
| 오아시스 | 안녕하세요/ 내마음은 풍선 | 1973 | 장미화 | 내 사랑 벤 (ben) | 팝 |
| 오아시스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1973 | 이성애 | 너와 내가 (Until it's time for you to go ) - Buffy Sainte Marie | 팝 |
| 오아시스 | 잊지마/아름다운 일요일 | 1973 | 이현 | 마이웨이 (my way) | 팝 |
| 오아시스 | 종소리/ 익살도 좋을시고 | 1973 | 안미나 | 봄이 오면 (Hello A) | 팝 |
| 오아시스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1973 | 이성애 | 사랑한다고 말했지 (Super STar) Leon russell, boni bramlete | 팝 |
| 오아시스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1973 | 이성애 | 하나님 뜻대로 (Let it be) -beatles | 팝 |
| 오아시스 | 사랑은 일방통행/ 잘 있어요 | 1973 | 바니걸즈 | 검은 장미-la rosa nero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1974 | 유상붕과 템페스트 | 어렸던 시절 (Me and you and dog named boo) | 락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1974 | 김혜숙 | 즐거운 일요일 | 락 |
| 오아시스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1974 | 서수남 | 수다쟁이 (cyaketvyak) | 락 |
| 오아시스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1974 | 템페스트 | 남자가 사랑할때 (when a man loves a woman) | 알앤비 |
| 오아시스 | 누굴 기다리나/ 두 눈을 감아버렸네 | 1974 | 윤해리 | 내 곁에 있어주 | 알앤비 |
| 오아시스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1974 | 김혜숙 | 아침의 찬가 the morning after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자기마음/ 끝 없는 사랑 | 1974 | 이수지 | 언제나 외로워 (que sera)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 고향의 언덕 (sweet country girl) | 컨트리 |
| 오아시스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1974 | 템페스트 | 그리운 사람 (I am so lonesome I could cry) | 컨트리 |
| 오아시스 | 세월아/ 봄이 오는 길 | 1974 | 박인희 | 나의 소망 (top of the world) - 카펜터스 | 컨트리 |
| 오아시스 | 지금 바라고 있어요/ 갈길이 멀어 | 1974 | 하지숙 | 내 고향(Take me Home Country road's) | 컨트리 |
| 오아시스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1974 | 템페스트 | 내 마음에 아픔을 (baby don't get hooked on me) | 컨트리 |
| 오아시스 | 돈벌러 가는길/ 둥글둥글 한세상 | 1974 | 허림 | 귀향 | 컨트리 |
| 오아시스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1974 | 템페스트 | 그대는 어디에 (what now my love) | 팝 |
| 오아시스 | 미소/ 그럼 안녕 | 1974 | 리리온 | 그대여 안녕 - J.Malgioglio여 | 팝 |
| 오아시스 | 세월아/ 봄이 오는 길 | 1974 | 박인희 | 내 사랑아 | 팝 |
| 오아시스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 동물농장 | 팝 |
| 오아시스 | 어린시절/우리함께 | 1974 | 펄씨스터즈 | 비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1974 | 바니걸즈 | 사랑하는 친구야 (we'll be one by two today)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1974 | 바니걸즈 | 얄라리 얄라 playground on my mined | 팝 |
| 오아시스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1974 | 바니걸즈 | 워털루 | 팝 |
| 오아시스 | 고독/ 유랑길 | 1974 | 정여진 | 작별(Un canto - julio iglesias) | 팝 |

| | | | | | |
|---|---|---|---|---|---|
| 오아시스 | 고독/ 유랑길 | 1974 | 정여진 | 천사의 사랑 | 팝 |
| 오아시스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 한번 만나줘요 | 팝 |
| 오아시스 | 젊었다/잘있어요 | 1974 | 투코리언즈 | 언덕에 올라 | 포크 |
| 유니버샬 | 님아 / 센프란시스코에선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 1968 | 펄시스터즈 | 왜 날 울려놓고 | 락 |
| 유니버샬 | 사랑/눈물의 안녕 | 1971 | 하남궁 | 음악은 흐르는데 | 이지리스닝 |
| 유니버샬 | 별밤에 부치는 노래 씨리즈 3집 | 1971 | 김세환 | 구원의 종소리 | 포크 |
| 유니버샬 | 비야비야/ 세상은 요지경 | 1971 | 서유석 | 세상은 요지경 | 포크 |
| 유니버샬 | 양희은 greatest hits | 1971 | 양희은 | 일곱송이의 수선화 | 포크 |
| 유니버샬 | YOUNG FAMILY SERIES (2집) | 1974 | 석찬 | 황혼 | 포크 |
| 지구 | 당신은 떠나가도/ 하얀 손수건 | 1969 | | 인생은 즐거워 | 락 |
| 지구 | 당신은 떠나가도/ 하얀 손수건 | 1969 | 트윈폴리오 | 빗속에 울며 | 팝 |
| 지구 | 패티김 스테레오 하이라이트 3집 | 1969 | 패티김 | 하얀집 | 팝 |
| 지구 | 덜라일라 (김인배 편곡집 ) | 1970 | 박주희 | 사랑은 기차를 타고 | 유로팝 |
| 지구 | 검은 고양이 네로/ 넉키 넉키 넉키 | 1970 | 박혜령 | 검은 고양이 네로 | 유로팝 |
| 지구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1970 | 트윈폴리오 | 웨딩케익 | 팝 |
| 지구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1970 | 트윈폴리오 | to know you is to live you | 팝 |
| 지구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1970 | 트윈폴리오 | 회상의 노래 | 포크 |
| 지구 | 내 고향 충청도 | 1971 | 조영남 | 물레방아 인생 | 락 |
| 지구 | 은희 스테레오 선곡 2집 〈사랑의 자장가/회상〉 | 1972 | 은희 | 사랑의 자장가 | 포크 |
| 지구 | 은희 스테레오 선곡 2집 (사랑의 자장가/ 회상) | 1972 | 은희 | 푸른 들 | 포크 |
| 지구 | 패티김 스테레오 greatest hit vol.3 | 1973 | 패티김 | Adoro | 팝 |
| 지구 | 박인희 새노래 모음 하얀 조가비/ 재회 (1974) | 1974 | 박인희 | 비야비야 | 유로팝 |
| 지구 | 울적한 마리아 / 비밀 | 1974 | 영주와 은주, 최양숙 | 울적한 마리아 | 유로팝 |
| 지구 | 한마디만 말해주/ 만날때와 헤어질때 | 1974 | 루비나 | 만날때와 헤어질때 | 컨트리 |
| 지구 | 에니의 노래/ 멜러디 | 1974 | 원 플러스 원 | 애니의 노래 | 포크 |

[표 7] 1967년 - 1974년 발매된 번안가요

이전 기간의 목록에서 중복된 곡들을 제외한 번안가요의 연도별 생산 수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4) 오아시스 레코드에서는 주로 여러 번안가요들을 묶어서 음반을 발매하였는데, 이를 '옴니버스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프 14] 1967-1974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위의 그래프에서 8년 간 번안가요 발매 수치는 증가한다. 그럼에도 큰 감소폭을 보이는 부분도 있으며 10곡도 채 생산되지 않은 연도도 있다. 이 두 시점에 대해 분석해보자.

첫 번째로, 1967년에는 번안가요의 생산 수치가 가장 최저이다. 바로 1년 전인 1966년의 경우 약 40곡의 번안가요가 생산되었는데, 1967년에는 발매된 번안가요가 10곡도 되지 않았다. 이는 1966년 창설된 예술문화윤리위원회와 관계가 있다.

1966년에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이하 예륜)가 창설되면서, 1966년 이전과 달리 음악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졌다. 예륜은 "예술 문화의 윤리성에 입각하여 예술활동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규제함"[115]을 목적으로 내세운 기구이자 박정희 정권의 첫 사전 심의 기관이었다. 1966년부터 활동하였으나, 1967년 〈음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음반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의 문화 통제기구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116]

115) 문옥배,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음악논단』, Vol.22, 2008, p. 25 - 27.
116) 김은경, "유신체제의 음악 통제 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 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호, 2011, p. 74.

*〈음반에 관한 법률〉*

*제 3조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조 문화공보부장관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때에는 음반제작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 7조 음반을 제작한 때에는 음반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제 8조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17]

음반에 관한 법률은 음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둔갑된 감시 정책이었다. 위의 법률의 제 3조, 4조 와 제 8조는 '해적판'의 유통과 생산에 대한 제재 정책이다. 당시 음악감상실을 통해서 해적판의 일종인 '대명제작' 레코드[118]가 생산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명 레코드란 정식 등록된 음반사의 상호를 빌려서 제작한 음반이다. 음반법에 의한 심의로 통과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음악들이 대대명 레코드를 통해 유통되었고, 이는 또 하나의 문화 즉,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형성하였다.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독재정권에 반하는 저항문화이자 반문화로 작동하였고, 이를 인지한 정부는 '등록제'를 내세워 대응한 것이다.

음반법 발표에 이어 1968년 예륜은 〈가요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검열 정책을 시행한다. 이로 인해서 레코드 산업은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그러나 이때의 통제의 목적은 레코드 산업 전반적인 위축보다도 왜색 가요 지양의 움직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지 사유에서 '왜색', '창법 저속', '불건전'

117)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음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636#.

118) 신현준(2005)에 의하면 '신중현 사단'의 음반을 제작한 킹 레코드, 이창희를 필두로한 '통기타 부대'의 음반을 제작한 오리엔트 레코드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신현준, 이용우, 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한국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한길 아트, 2005를 참고하라.

등은 일본풍의 음악을 지양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해석되며, 당시 음반 검열을 통해서 금지된 곡들 중 대부분은 일본풍의 곡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의 그래프에서 1968년과 1969년 사이에 발매 수치의 감소폭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 것은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도 전체적인 레코드 산업 위축과 관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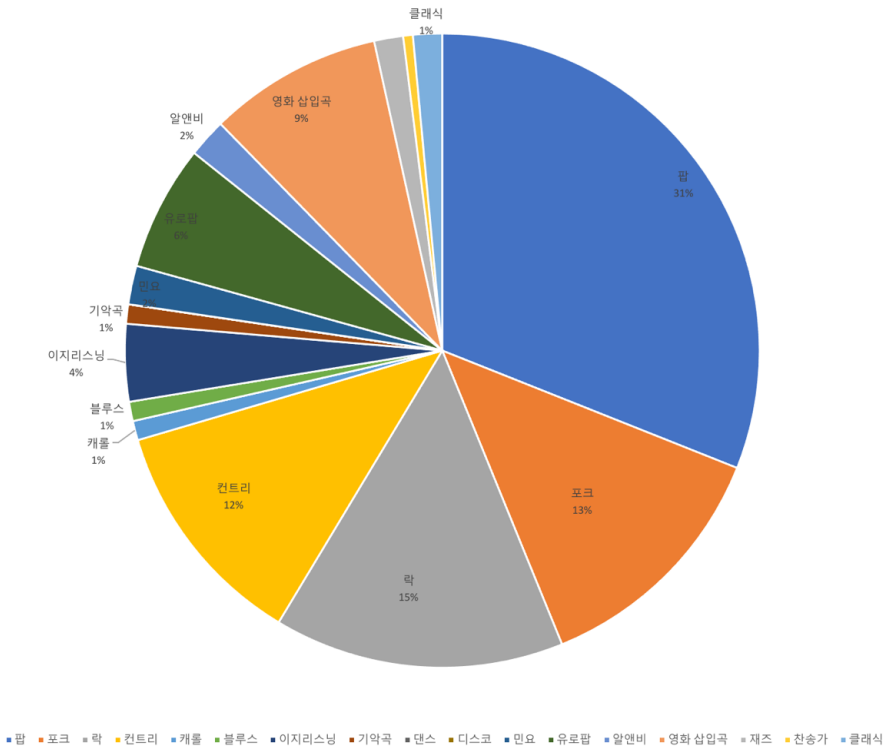
두 번째로, [그래프 14]에서 1972년의 번안가요 발매 수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이는 1972년 감시체제가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0월 유신헌법으로 대한민국에 4번째 공화 헌정체제가 형성되었고, 대통령은 1인 독재 체제와 장기 독재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한다. 이로 인해 경제와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유신체제 들어서면서 통제가 강화되자 이에  항변하는 청년들은 정권에 반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저항의 상징이었던 청년문화를 형성했다. 청년 세대들은 서양대중가요 중 포크 송을 저항의 표출 도구로 사용했다. 포크 장르의 저항적인 특성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으로서 서양 대중가요의 한 장르를 전유매체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당시 1960년대 말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과 68혁명에 영향을 받은 반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와 함께 포크 장르와 락 장르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빌보드 차트에 석권한 포크와 락 음악들은 라디오[119] 혹은 음악감상실을 통해 한국으로 소개되었고, 음반회사들은 이러한 곡들을 한국어로 번안 혹은 번역하여 번안가요로 발표했다. 즉, 미국의 음악이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되면서 한국의 포크 장르가 시작된 것이다.

포크 장르의 번안가요 비율은 다음의 장르별 분포에 나타난다.

.

119)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AFKN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FKN은 방송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었던 기관이었다. 음악프로그램이 주로 송출되었고, 1950년대 있었던 프로그램들과 같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석권하였던 노래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그래프 15] 1966년 - 1974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포크 장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 청년문화에서 포크 송을 저항의 표출 도구로 사용하면서 포크에 대한 관심이 포크장르의 번안 가요 발매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포크 음악 아티스트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트윈폴리오, 뚜아에무아, 양희은 등이 포크 장르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이다. 이 중에서도 양희은은 이후 포크 장르에 영향을 받은 민중가요를 부름으로써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가수로 지칭된다. 트윈폴리오의 경우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통해서 포크송 번안가요를 발매하면서 한국 포크 장르를 대중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포크장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장르로는 락, 컨트리 그리고 민요가 있다. 기타 중심의 화성어법으로 진행되는 곡들에 대한 관심은 컨트리와 락 장르

의 번안가요 발매 증가로 이어진다. 이 두 장르에서 발매된 번안가요는 이전보다 두 배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 한국에서 창작 락이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락 장르의 음악은 위의 목록에 있는 락 장르의 번안가요들이었다. 락앤롤(Rock n Roll)과 같은 컨트리에서 비롯된 락 장르와 더불어, 비틀즈(The Beatles)와 The C.C.R(The Creedence Clearwater Revival)과 같은 클래식 락 장르에 속한 아티스트의 음악들이 처음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락 음악의 기초를 형성했다.

한편, 민요의 경우 기타와는 무관하나, 역사적으로 포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포크 장르의 'Folk'는 민족을 뜻하는 단어로 민속음악, 민요로부터 유래된 장르이다. 대공황기 미국 노동자들의 고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뮤지션 중 한 명인 우디 거스리(Woodie Gurthrie)를 통해서 민요를 바탕으로 한 노래들이 저항의 노래로 재해석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밥 딜런에 의해서 '어반 포크'장르가 탄생했던 것이다.[120] 그렇기에 미국에서 포크 장르로 인해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도 민요 음악들이 번안가요로 발매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민요 또한 포함된다. 이외에도 유럽의 팝 음악들이 분류된 유로팝의 유입도 증가하였다. 〈검은 고양이 네로〉, 〈루나 롯샤〉 등과 같은 동요풍의 음악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칸조네, 프랑스의 샹송과 같은 유럽 지역의 주요 팝 장르의 음악들이 번안가요를 통해 한국 사회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서양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한 번안가요의 발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이전 기간에 실시된 장려정책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에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있었던 방윤이 실시했던 〈심의 규정〉은 '외국가요를 한국어로 부르는 것' 즉, 번안가요 생산 활동에 대한 장려 정책이었다. 1966년 예륜의 설립 이후에도 방윤의 〈심의 규정〉에 변함이 없었기에 이

120) '어반 포크' '모던 포크'등은 포크 장르가 도시로 옮겨 가서 소비되면서 새롭게 탄생된 포크의 하위 장르이다.

규정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예륜의 심의는 왜색가요지양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왜색가요 지양정책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지속되어왔고, 군부 정권 설립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검열 정책으로 이어졌다. 1961년 군부정권이 사회적 이념으로 내세운 '우리 사회의 통념과의 조화'의 항목은 왜색 가요 지양을 위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예륜의 심의에서도 이를 유념하여 금지 사유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왜색 가요가 아닌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번안가요는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그 발매 활동이 지속됨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서양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한 번안가요가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 4.3. 1975년 - 1987년

정부는 유신 체제 아래에서 계속되는 청년 민주화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1974년에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1975년에도 가장 높은 단계의 긴급조치를 발행하여 사회를 점점 통제와 억압으로 몰아갔다. 이 시기에 생산된 번안가요는 총 98곡으로 세 시기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치이다. 번안가요 발매 수치의 변화는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한 통제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발매된 번안가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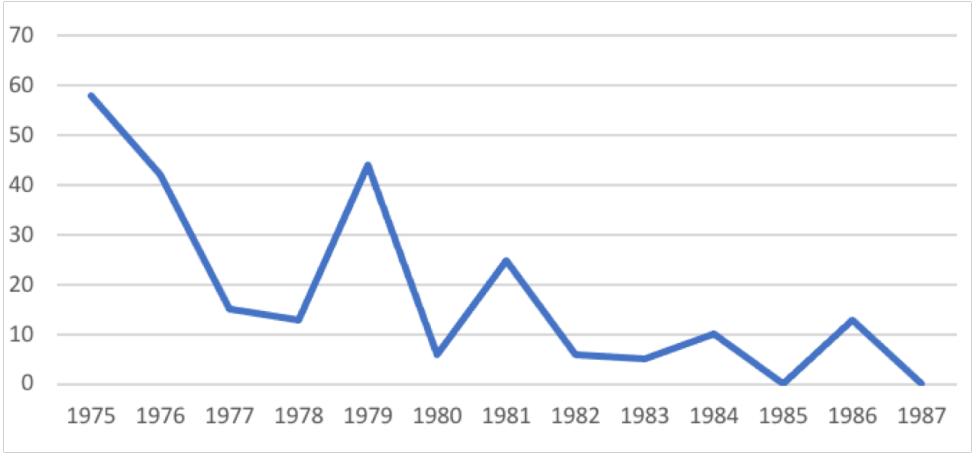
| 레이블 | 앨범명 | 발매연도 | 가수 | 수록곡 | 원곡 장르 |
|---|---|---|---|---|---|
| | 추억은 남겠지요/ 잘가요 | 1980 | 박일준 | 오! 진아 | 영화 삽입곡 |
| 서라벌 | 등불/달무리 | 1975 | 영사운드 | 노래 속에 살리라 (I shall sing) | 락 |
| 서라벌 | 고운 노래 모음 | 1976 | 산이슬 | 사랑의 오솔길 | 팝 |
| 성음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1975 | new horizon | mr.bojangles | 컨트리 |
| 성음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1975 | new horizon | 행복의 나라 | 팝 |
| 성음 | 조영남 골든 디럭스 20 제비/ 내 고향 충청도 | 1978 | 조영남 | 내 고향 충청도 | 포크 |
| 신세기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1975 | 사월과 오월, 서유석 | 철날때도 됐지 | 컨트리 |
| 신세기 | 골든 포크 앨범 3 집 | 1975 | 현경과 영애 | 참 예쁘네요 | 팝 |
| 아세아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1978 | 한명숙 | 사랑의 목소리 (the voice of love) | 팝 |
| 아세아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1978 | 한명숙 | 내가 사랑을 한다면 (What am I supposed to do) | 팝 |
| 아세아 | 생각나누나/ 고향의 꽃 | 1979 | 릴리 시스터즈 | 낚시터의 즐거움 | 유로팝 |
| 아세아 | 남의 속도 모르고/ 또 다시 만난다면 | 1979 | 태우 | 서글픈 사랑 | 팝 |
| 오아시스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1975 | various artist | 아버지 (PAPA) | 디스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귀향 - 독일 민요 | 락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노래는 즐겁다 - 독일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메기의 추억 - 미국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여수-미국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올드블랙죠-미국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김상희 christmas carol | 1975 | 김상희 | 올랭 사인 (auld lang syne) | 민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후니쿨리 후니쿨라-이태리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희망의 속삭임 - 미국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애창곡 | 1975 | 바니걸즈 | 망향-미국민요 | 유로팝 |
| 오아시스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1975 | various artist | 1943년 3월 4일생 -이용복 | 유로팝 |
| 오아시스 | 김상희 christmas carol | 1975 | 김상희 |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dixieland) | 캐롤 |
| 오아시스 | 김상희 christmas carol | 1975 | 김상희 | 은종 (silver bell) | 캐롤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1975 | 바니걸즈 | 먼 산울림 number one heel | 컨트리 |

| | | | | | |
|---|---|---|---|---|---|
| 오아시스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1975 | various artist | 푸른 창공에 로프를 던져라 (I'm Casting My lasso)-김홍철 | 컨트리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1975 | 바니걸즈 | 노란타이의 사나이 tie a yellow ribbon around | 팝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1975 | 바니걸즈 | 라무는 나의 친구 | 팝 |
| 오아시스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1975 | 바니걸즈 | 워털루 | 팝 |
| 오아시스 | 고향은 멀어도/ 왜몰랐을까 | 1975 | 이수미 | 아버지 (PAPA) | 팝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1975 | 바니걸즈 | 하니하니 | 팝 |
| 오아시스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1976 | 김홍철 | 예쁜 아기곰 - 독일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1976 | 김홍철 | 저별은 빛나고 (as Himmel stout es sternlis nacht) 스위스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1976 | 문정선 | 친구의 이별 - 스페인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1976 | 김홍철 | 할아버지 시계 | 민요 |
| 오아시스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1976 | 김홍철 |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미국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20인의 히트송 (7집) | 1976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1976 | 김홍철 | 테네시 요들 폴카-elton britt | 유로팝 |
| 오아시스 | 그날을 위해/ 이제는 안녕 | 1976 | 이승연 | 노래하는 곳에 | 컨트리 |
| 오아시스 | 20인의 히트송 (7집) | 1976 | 이승연 | 비에젖은 비둘기(Paloma Blanca) -멕시코 민요 | 팝 |
| 오아시스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1976 | 김홍철 | 그냥 걸어갑시다 (In the early morning rain) | 포크 |
| 오아시스 | 80년도 대학가에서 애창되는 히트송 모음집 | 1977 | various artist | 고향생각- 홍민 -스페인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1977 | 진미령 | 그날을 위해 (영화 (나자리노) 주제가 soleado))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두손을 잡아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 1977 | 옥희 | 사랑의 이야기 - 모리스 알버트 (멕시코)- morris albert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1977 | 진미령 | 사랑을 느낄 때 - 타미 (I feel love) | 컨트리 |
| 오아시스 | 사랑은 아직/비누방울 | 1978 | 장진경 | 이 생명다하도록 (영화 사랑의 스잔나)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별셋 캐럴 독집 | 1978 | 별셋 | 거룩한 밤 oh holy night | 캐롤 |
| 오아시스 | 별셋 캐럴 독집 | 1978 | 별셋 | 드럼치는 소년 little drummer boy | 캐롤 |
| 오아시스 | 별셋 캐럴 독집 | 1978 | 별셋 | 징글벨 락 | 캐롤 |
| 오아시스 | 별셋 캐럴 독집 | 1978 | 별셋 | 참 반가운 신도여 o!coem all ye faithful | 캐롤 |
| 오아시스 | 별셋 캐럴 독집 | 1978 | 별셋 | 첫번 크리스마스 first noel | 캐롤 |
| 오아시스 | 별셋 캐럴 독집 | 1978 | 별셋 | 크리스마스 폴카 | 캐롤 |
| 오아시스 | 나동민 작품집(꽃분이/ 잠못이루는 이밤을) | 1979 | 남궁옥분 | 보고픈 내친구(Dear John) Chat atkins | 기악곡 |
| 오아시스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1979 | 조경수 | 징기스칸 (genghis khan-Ralph Siegul | 디스코 |
| 오아시스 | 서울역/ 꿈 소녀 | 1979 | 조경수 | YMCA | 디스코 |
| 오아시스 | 그사람 목석/ 오해는 말아요 | 1979 | 박지영 | 오해는 말아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Gloria Caldwell | 락 |
| 오아시스 | 정윤선 독집 | 1979 | 정윤선 | 사랑해요 (In the navy - J. Morali)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별속에 하얀 꿈/ 소망 | 1979 | 김수나 | Grease-사랑해요 | 영화 삽입곡 |
| 오아시스 | 행복한 아내/ 추억이 흐르는 강 | 1979 | 유양도 | 용서하세요 Pardonne Moi하 - alain goraguer | 이지리스닝 |
| 오아시스 | 알게 될 거야/ 보고픈 내 친구 | 1979 | 남궁옥분 | 보고픈 내친구 | 컨트리 |
| 오아시스 | 그사람 목석/ 오해는 말아요 | 1979 | 박지영 | 그 사람 목석 (Hot stuff - Geogio Moroder) | 팝 |
| 오아시스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1979 | 조경수 | 내 맘 속엔 당신이 three times a lady -commodores | 팝 |

| | | | | | |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1979 | 바니걸즈 | 말없이 걸으리라 my way | 팝 |
| 오아시스 | 잊었다 하리/ 아들 | 1979 | 이용복 | 아들(Anank)- Aguilar Freddie | 팝 |
| 오아시스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1979 | 바니걸즈 | 이제부터 행복이 and I love you so | 팝 |
| 오아시스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1979 | 조경수 | 잊어야 할 사람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 E. John | 팝 |
| 오아시스 | 조용필 리사이틀 | 1980 | 조용필 | 님이여 don't give up | 댄스 |
| 오아시스 | 잊어버려/ 춤을 춰요 | 1980 | 현철과 벌떼들 | 춤을 춰요 ( I was made for dancing) - michael Lloyd | 댄스 |
| 오아시스 | 어디갔다 이제 왔니 | 1981 | 희자매 | 사랑을 주세요 (physical) | 댄스 |
| 오아시스 |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당신의 처사가 되어 | 1981 | 희자매 | 아름다운 눈동자 (bette davis Eyes) | 락 |
| 오아시스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1981 | 이종환 | 주님의 은총 (amazing Grace) | 찬송가 |
| 오아시스 |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당신의 처사가 되어 | 1981 | 희자매 | 당신의 천사가 되어 (angel of the morning) | 컨트리 |
| 오아시스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1981 | 이종환 | 빗속에서 울고 있는 푸른 눈동자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 컨트리 |
| 오아시스 | 젊은 가족들 (영훼밀리) (떠난 사랑/ 길목에 핀 꽃) | 1981 | 영훼밀리 | 방랑의 길손 (wayfaring stranger) | 포크 |
| 오아시스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1981 | 이종환 | 좋은 친구 (You've got a friend) | 포크 |
| 오아시스 | 이연실 넋두리 전부 | 1982 | 이연실 | 성연이 장난감(Marvelous Toy)- 러시아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이연실 넋두리 전부 | 1982 | 이연실 | 스텐카라친-러시아 민요 | 민요 |
| 오아시스 | 비가올때면 나는 / 잊을 수 없는 생각들이 | 1982 | 임예진 | 사랑하는 아들아 (life it self will let you know) | 팝 |
| 오아시스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1983 | 조영남 김도향 | 검은 것과 하얀것 (ebony and Ivory) | 락 |
| 오아시스 | 조영남/ 김도향 2집 | 1983 | 김도향 | 외로운 이밤에 living next door to alice | 락 |
| 오아시스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1983 | 조영남 김도향 | 그대 슬퍼말아요 (kiss and say goodbye) | 알앤비 |
| 오아시스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1983 | 조영남 김도향 | 사랑은 언제나 (perhaps love) | 팝 |
| 오아시스 | 이별/제비 | 1984 | 조영남 | 제비 | 민요 |
| 오아시스 | 사랑의 오해/비가 | 1984 | 최유나 | 이밤 (Tonight celebrate my love) | 알앤비 |
| 오아시스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1984 | 김준 | swan lake -tchaikovsky | 클래식 |
| 오아시스 | 사랑합니다/ 목마른 연인 | 1984 | 희자매 | 사랑의 바닷가 playa blanka | 팝 |
| 오아시스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1984 | 김준 | i left my hear in sanfrancisco (cory george) | 팝 |
| 오아시스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1984 | 김준 | too young - lippmann | 팝 |
| 오아시스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1984 | 김준 | ramona-mabel wayne | 포크 |
| 오아시스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1986 | 숙자매 | 속시원히(do you wanna funk) | 댄스 |
| 오아시스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1986 | 서울패밀리 | 노엘 | 캐롤 |
| 오아시스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1986 | 갈종국 | 사랑한다 말 안해도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 팝 |
| 유니버샬 | 하남석 1집 (막차로 떠난 여인/ 낙엽의 속삭임) | 1976 | 하남석 | 바람에 실려 | 팝 |
| 지구 | 윤연선 매혹의 노래모음 | 1975 | 윤연선, 오세은 | 고아 | 유로팝 |
| 지구 | 이용복 그대여 안녕/비가 좋아 | 1975 | 이성애 | 이별의 국제공항 | 컨트리 |
| 지구 | 두 남편/저기 저소리 | 1975 | 산이슬 | 마지막 남은 것 | 팝 |
| 지구 | 윤연선 매혹의 노래모음 | 1975 | 윤연선 | 꽃피는 마을 | 포크 |

[표 8] 1975년 - 1987년 생산된 번안가요

위의 [표 8]에 기초하여 연도별 번안가요 생산 수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6] 1975년 - 1987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1975년에 가장 많은 번안가요가 발매되었으며, 이후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번안가요 발매 수치가 감소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연결된다. 위 그래프에서 큰 감소폭이 보이는 연도는 1975년, 1976년 1979년으로 총 세 지점이다. 각각의 지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966년 창설된 예륜은 〈음반에 관한 법률〉을 1967년에 발표한 이후 1975년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긴급조치였던 〈긴급조치 9호〉와 함께 대중예술의 퇴폐성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조치한 〈공연활동 정화대책〉[121]이 발표된다. 1975년 〈공연활동 정화대책〉은 모든 공연예술의 심의가 강화되는 한편,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발표된 모든 노래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한다는 강력한 방침이었다.[122]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로 인해서 대중예술을 통한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기

121) 이로 인해 연도별 가요 심의통계 수치가 1975년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문옥배, 위의 글, 2008, p. 29 에서 분석했다.
122) 김은경, 위의 글, p.69.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침은 당시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거나 풍속에 맞지 않는 가요들을 금지하려고 했으며, 이때 적용되었던 검열의 기준은 정부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검열이 이전보다도 더욱 강화되면서 자유로운 음반 활동이 저해되었다.

이와 더불어 예륜은 〈불건전 외국 가요 백서〉를 〈공연 활동 정화 대책〉과 같은 해에 발표했다.

*중앙일보 1975년 12월 16일*

*〈팝송〉은 예술이 아니다 - 예윤 〈불건전 외국가요백서〉발표*

*한국 예윤(위원장 조연현)은 15일 『불건전외국가요백서』를 발표, 최근 금지곡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요계의 관심을 모았다. 외국대중음악의 성격과 이론적 배경, 불건전외국가요의 문제성, 불건전 외국가요의 국내파급 상황 등을 설명한 이 백서는 외국가요 선정기준도 아울러 밝혔다.*

*국내에서 유행하던 외국가요 중 1백35곡에 대한 제작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한 예윤은 그 기준을 ①혁명고취 등 불온 물 ②반전파의 반전성 작품 ③퇴폐·저속·외설 ④「마리화나」음악 등으로 지적했다. 백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기준은 「퇴폐」「불온」등 네가지|"일부 반전가요는 공산주의의 온상"|135곡에는 제작·판매도 금지조치*[123]

위의 기사에 의하면 〈불건전 외국 가요 백서〉란 외국 대중음악에 대한 금지조치이다. 외국 가요가 함축하고 있는 퇴폐적이고 저속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곡들을 금지한 것이다. 서양 대중가요 중에서도 금지된 곡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123) "〈팝송〉은 예술이 아니다 - 예윤 〈불건전 외국가요백서〉 발표", 중앙일보, 1975년 12월 16일, https://news.joins.com/article/1424841.

*대중음악은 국적을 막론하고 대중들의 정서생활에 직접·간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50년대 후 젊은 「팝·아티스트」들의 참여로 변혁을 보인 「팝·송」은 70년대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졌던 환각제 사용, 환각음악 선풍과 함께 국제공산수의가 암약하는 「뉴·레프트」의 위장전술 도구로 전락했다.*

*불온·반체제·반전을 노래하는 가수로는 현재 「포크·뮤직」의 기수인 「피트·피거」 「봅·딜런」 「존·바에즈」「버피·세인트마리」「비틀즈」「존·레넌」과 「필리·폴」 등이며 「더·퍼그스」「엘리스·쿠퍼」「블랙·사바드」「엘비스·프레슬리」등은 퇴폐·저속·외설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엘릭·클립턴」「보·드널드슨」과 「헤이우드」등은 폭력과 치정·살인 등을 노래하고 있어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이다.*[124]

더불어 위의 기사에서 락과 포크 장르에 대한 제재가 구체적인데, 여기서 언급된 아티스트들은 1960년대 미국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주역들이었다. 비틀즈(The Beatles)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는 락 장르를, 밥 딜런(Bob Dylan)과 조안 바에즈 (Joan Baez)는 포크 장르를 미국 대중음악의 주류로 부상시키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아티스트들이다. 정부는 번안가요로 발매된 미국 대중가요 특히, 락과 포크 장르의 음악이 반정부적인 특성을 가진 청년문화를 결속시키는 힘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서양 대중가요의 특정 아티스트 곡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저해하고자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정부가 내세운 기준이다. '불온, 반체제, 반전을 노래한 가수'들의 노래를 금지한 것인데, 몇몇 '반전가요는 공산주의의 온상'라고 했다. '반전가요'를 '공산주의의 온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1차로 내세웠던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근대사회부터 시작하여 해방 이후에는 지배담론의 핵심적인 위치로 자리 잡았으며, 박정희 정권에서도 시작부터 명시되었다. 서양대중가요

124) 중앙일보 1975년 12월 16일자 기사 계속

는 '반전=불온=불건전=공산주의'를 내세우는 지배 담론에 의해서 '반체제'적 운동인 청년문화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외국가요가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않는 무풍지대서 횡행해 왔으며 그로 인한 역 문화적 기능과 영향은 엄청날 수 있다.'[125]고 덧붙이면서 서양 대중가요의 '역문화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까지의 법률에서는 '음반'의 명칭을 주로 사용했었으나, '공연활동'으로 명명하여 발표한데에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 이는 당시 언더그라운드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음악감상실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공연활동을 겨냥한 것이었다. 1960년대 초에는 외국 가요를 허용했기에 음악감상실에 대한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이 70년대 개정되기 이전까지 음악 감상실은 금지 구역이 아닌 청년들의 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대학생들의 유신체제 반대 운동으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에게 반하는 이들의 모임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반정부운동을 선동하는 공연을 본격적으로 통제한 것이다.[126]

〈불건전 외국 가요 백서〉와 함께 〈건전 외국 가요〉목록이 발표된다. 이 목록은 네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 있었다.[127] 한국 예술가문화윤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곡들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선정된 건전외국가요의 내용에 따라 1)희망과 건전한 삶의 찬미를 그리는 진취적 노래, 2)화목한 가정생활,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애, 3)애국적 가요, 망향, 향토애의 노래, 4)아름답고 시정 있는 러브 발라드 (연가)등으로 구분된다.[128] 이에 해당되는 곡의 경우 사전 혹은 사후 검열을 통해서 방송에 송출되도록 하였다.

불건전 외국 가요 백서 자체에 대한 목록은 없으나 KBS 아카이브 자

---

125) 중앙일보 1975년 12월 16일자 기사 계속

126) 69년 세시봉이 문을 닫아 포크 가수들이 갈 곳을 잃었을때는 이듬해 명동 YMCA 직원식당 자리를 빌어 음악감상실 '청개구리집'을 운영했다. 청개구리집에는 양희은, 김민기, 김세환 등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음악평론가 이백천", 중앙일보, 2014년 9월 23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15888686.

127) 한국 예술가문화윤리위원회 제공 계도자료, '건전외국가요 선전목록 -174곡 유형별 선정곡'https://www.arko.or.kr/zine/artspaper76_01/19760111.htm .

128) 위와 동일한 사이트.

료[129]를 살펴보면 사전 검열이 된 음반들이 많았다. 사전 검열된 음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1] 방송금지 딱지가 붙여져 있는 앨범 과 검열을 거친 앨범 뒷면[130]

위의 앨범에서 보면 방송 송출 이전에 사전 검열을 하고 방송에서 송출할 수 없는 곡들을 표기해놓았다. 이 앨범 외에 〈하얀 손수건〉, 〈검은 상처의 블루스〉 등이 금지조치를 당했다. 금지된 곡 이외의 음반들은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으며, 87년에 '금지곡 해제 목록'이 생성되기 전까지 금지곡에 대한 통제는 계속 되었다.

위의 그래프에서 두 번째 지점인 1976년의 감소 현상은 공윤과 연관이 있다.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은 1976년 폐지된 예륜을 대신하는 검열기관이다. 공윤은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고 향상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풍토를 정립한다는 목적 아래에 설립되었다.[131] 예륜과

129) KBS 아카이브 사이트, 위에 언급되어 있음.
130) KBS 아카이브에서 찾은 앨범으로 왼쪽은 〈골든 포크 앨범〉, 오른쪽은 은희의 〈학창시절/ 잊어야할 사랑 〉 이다.

는 다른 이름의 기관이지만, 예륜의 철칙은 공윤에서 계속 이어졌으며 예륜에서 지정된 금지곡은 공윤 시기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심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공윤의 경우, 예륜과 달리 법적위원회의 위치에 속한다는[132] 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였다. 검열의 기준은 예륜과 유사하나, 검열이 적용되는 범위가 노래뿐만 아니라 LP 앨범 자켓으로 확장되어 더욱 엄격해졌다. '퇴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미니스커트 혹은 장발 등의 이미지가 포함된 앨범들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공윤은 예륜과 달리 사후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금지곡들을 선정했다. 당시에 추가적으로 금지된 목록 중에서 〈사의 찬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음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와 〈공연윤리규정〉의 제 2장 유의사항〉 중 적성국의 작품이나 적성국민의 표현물을 금지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133]이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작동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음악이 금지된 경우로 위의 〈불건전 가요 외국 백서〉가 '불건전=반정부=공산주의'의 원리가 작동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윤은 또한 건전가요 보급에 힘을 썼다. 공윤은 레코드 마다 국가에서 채택한 '건전가요[134]'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준칙을 정했다. KBS 아카이브에서도 70년대 이후 앨범에는 〈나의 조국〉, 〈시장에 가면〉, 〈아름다운 우리나라〉, 〈어허야 둥기둥기〉등의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삽입되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1976년 이후부터 '건전가요 삽입 의무제'가 실시된 결과이다. '건전가요 삽입 의무제'란 음반을 제작할 때 한 곡에서 두 곡씩 건

131) 김수정, "1960-1970년대 한국 문화정책에 대한 재고찰", 『문화와 사회, Vol. 27, No. 1, 2019, p.316.
132) 문옥배, 위의 글, 2008, p.34.
133) 앞의 글, p.40
134) 송화숙(2011)은 "긴급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불안 상황과 맞물리면서 불어닥치지 시작했던 '퇴폐 풍조 단속' 및 '퇴폐 가요 정화' 작업,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대중가요 금지곡 선정'과 '건전가요'는 무관하지 않다"고 서술하며 1972년부터 발행된 건전가요 노래집을 제시하고 있다. 송화숙, "박정희,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와 음악", 『독재자의 노래:그들은 어떻게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았는가』, 한울, 2012, p. 255.

전가요를 삽입하는 것으로, 당시 공윤은 강압적이지 않고 권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 음반에 하나 내지 두 개의 건전가요를 직접 가수가 불러서 싣는 방식으로 고정되었다.[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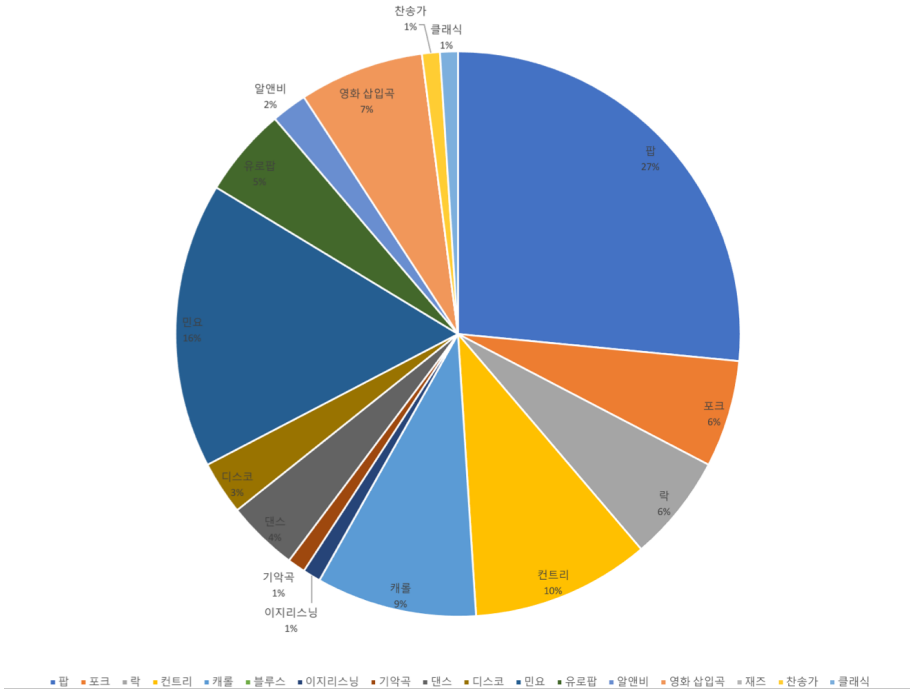
1979년 10.26 사태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1979년 12.12 사태를 통해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신군부 정권 시기가 안정화 되었던 1980년대 문화정책은 이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되나,[136] 1992년 공윤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음반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지속하였다. 그리하여 번안가요 생산 수치는 1979년 이후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1987년 저작권협회의 가입으로 인해서 1987년부터 번안가요 생산은 법적으로 제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풍경은 위의 그래프에서 세 번째 지점인 1979년과 198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는 음반발매 수치와 더불어 198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요인이다.

다음은 위의 [표 8]에 기초한 번안가요 원곡의 장르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135) 이고운, 『권위주의적 정권 하의 한국 국책가요 연구 - 일제강점기, 제 3,4 공화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음악학과 박사학위논문, p.73.

136) Sound Lab, "한국 대중음악 정책", http://ksoundlab.com/xe/soundmicenter/7064 과 더불어 홍정택 "역대 정권별 대중음악 관련 정책변화", 『대중음악 Sound』, 가슴네트워크, vol.4, 2012, p.21-23에서 '5 공화국 - 대중문화의 전파와 확대'라는 제목으로 이전 정권보다 개방되어 있었음을 명시한다. 더불어 그에 따르면 "방송사 주도의 각종 가요제를 장려해 대학생 및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방송활동을 지원했으며, 대중음악의 활동반경도 넓어졌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조용필과 같은 전무후무한 슈퍼스타가 탄생했고, 트로트, 발라드, 댄스 등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주목받았다"고 서술한다.




[그래프 17] 1975년 – 1987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팝 장르부터, 락, 포크 장르의 서양대중가요 비율이 이전과 다르게 감소했다. 〈공연 활동 정화 대책〉과 함께 발표된 〈불건전 외국 가요 백서〉에 의해 검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불건전'한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정책 지향점에 의해서 서양 대중가요 유입은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반면, 캐롤, 댄스, 디스코, 그리고 민요 장르와 같이 통제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장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했다.

포크 장르에서 특히 더 많은 감소가 나타난 것은 당시 시행되었던 〈공연 활동 정화 대책〉이 포크 장르 음악뿐만 아니라 그 음악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규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표 8]에서 이전 시

기에 많이 등장했던 포크 가수들이 모습을 감추었다는 것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1975년 〈공연 활동 정화 대책〉과 함께 대마초 파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청년 문화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아티스트들이 수감되었으며,[137] 몇몇은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마초 파동은 무분별한 검사를 통해서 포크송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번안가요의 주류이자, 청년문화의 대표적인 음악이었던 포크송은 하락세를 걷게 된다. 번안가요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통제 대상에서 벗어난  레파토리 혹은 〈건전 외국 가요 백서〉에서 채택된 번안가요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대안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던 번안가요는 다시 주변부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미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장르들을 유입하는 역할을 유지했다. 댄스 장르인 〈Hot Stuff〉, 〈Do You Wanna Funk〉, 〈Physical〉 등과 같은 음악들과 디스코 장르인 〈Y.M.C.A〉, 〈 Genghis khan 〉과 같은 음악들을 유입하여 새로운 장르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디스코 장르가 새로운 장르로 떠오르고 있었던 현상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디스코'란 '디스코텍'에서 유래된 단어로 1960년대 유럽에서 춤추는 사람을 위해 음반에 담긴 음악을 트는 나이트클럽을 일컫는 말로 처음 사용된 용어이며,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는 댄스음악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클럽이 점차 일반화 되면서 이 장르가 인기를 얻었다.[138]

유로팝의 증가도 이와 연결된다. 디스코가 유럽에서 유래했던 만큼 유럽의 댄스 장르 음악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특히, 유로팝에 해당되는 곡들 모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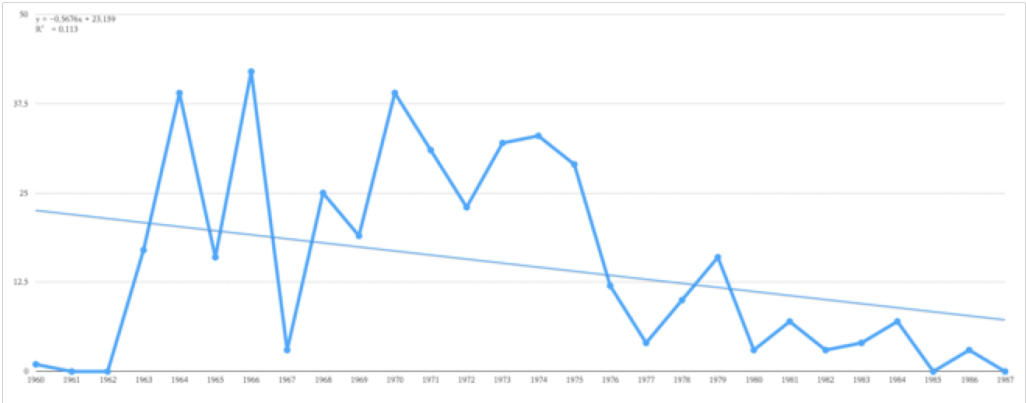
137)1975년 이장희, 윤형주, 이종용등 3명의 가수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신중현과 김추자도 구속되었다.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김세환, 김정호, 정훈희, 임희숙 등이 구속되거나 출연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대마초 담배 피워, 신중현에 영장, 김추자도 입건", 경향신문, 1975년 12월 4일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050032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12-05&officeId=00032&pageNo=7&printNo=9290&publishType=00020 .

138) 래리 스타, 크리스토퍼 워터맨, (김영대, 조일동 옮김), 『미국 대중음악』, 한울, 2010, ,p. 438-439.

했던 이력이 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1956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유럽 아티스트들의 축제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영한 곡들을 발표하고는 했는데, 〈워털루〉의 아티스트인 ABBA는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우승을 한 바 있으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 순위권을 올리는 등 미국 사회에서도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들의 음악이 미국의 방송에 송출되고, 라디오를 통해 소개되면서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전 첫 댄스 장르의 형성이 번안가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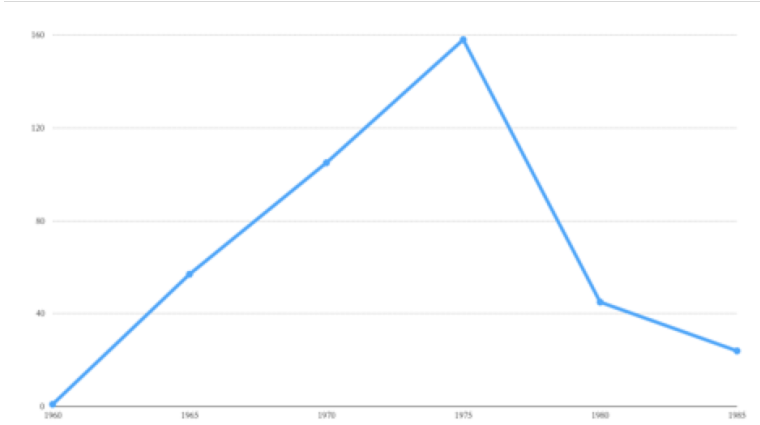
## 4.4. 종합적 분석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독재 정치 하에 발매된 번안가요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프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8] 1961년 - 1987년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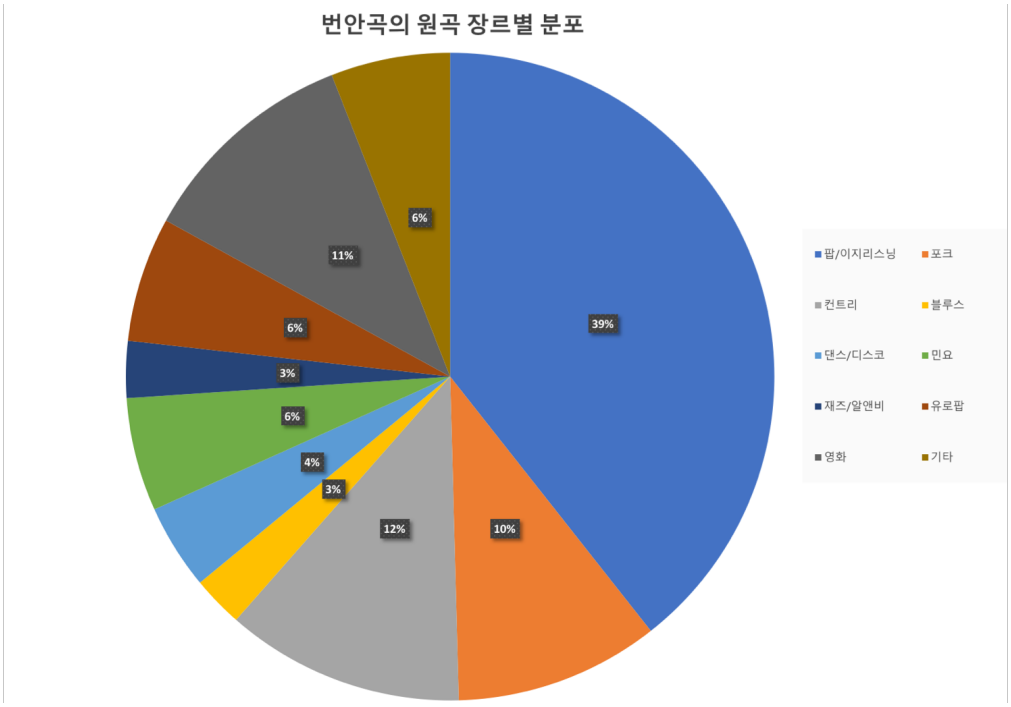
1960년부터 1975년 평균 20곡의 번안가요가 생산된 반면 197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7년과 1975년에 나타난 급격한 감소폭은 검열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더 명백한 결과는 5년 단위로 도출한 그래프에서 나타난다.




[그래프 19] 1961년 - 1987년 5년 간격 번안가요 발매 수

1961년 방송법 제정으로 인해 번안가요의 생산 수치가 1975년까지 증가하며, 1975년 정책으로 인해서 번안가요의 생산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다. 1975년 이전까지 생산된 번안가요의 총합은 349곡이며 1975년 이후 총합은 69곡으로 80%에 달하는 감소량이 보인다. 위의 두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정책과 서양 대중가요 유입의 지표인 번안가요와 상호 연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 양이 정책에 의해서 조정되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발매된 전체 번안가요 목록에서 원곡의 장르별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20] 1961년 - 1987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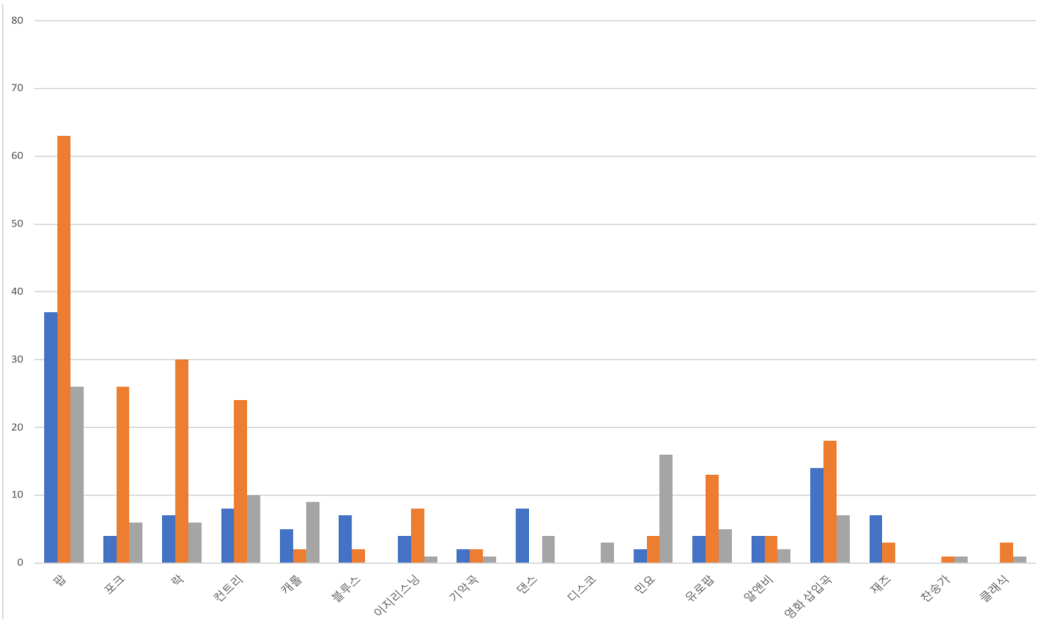
미국 대중음악 산업계 내에서 주류인 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컨트리와 포크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상업음악 시장은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었고, 1960년대에는 포크와 락, 1970년대에는 디스코와 댄스 그리고 팝 장르가 주류 장르로 생성 혹은 편입된다. 이러한 미국의 음악 산업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도 새로운 장르들의 서양대중가요들이 유입되면서 장르가 다양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 대중가요 장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안가요의 원곡에 대한 서술이 미국 대중가요에 편중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번안가요 목록을 기반으로 한 장르별 분포에서 유로팝, 디스코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로팝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수요와 미국 대중음악 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대중음악 시장도 다양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유럽의 팝과 디스코 등의 장르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차트에 석권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번안가요가 생산된 것이다. 즉, 당시의 한국 번안가요는 미국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 서양 전체적인 국가의 다양한 음악들을 기반으로 생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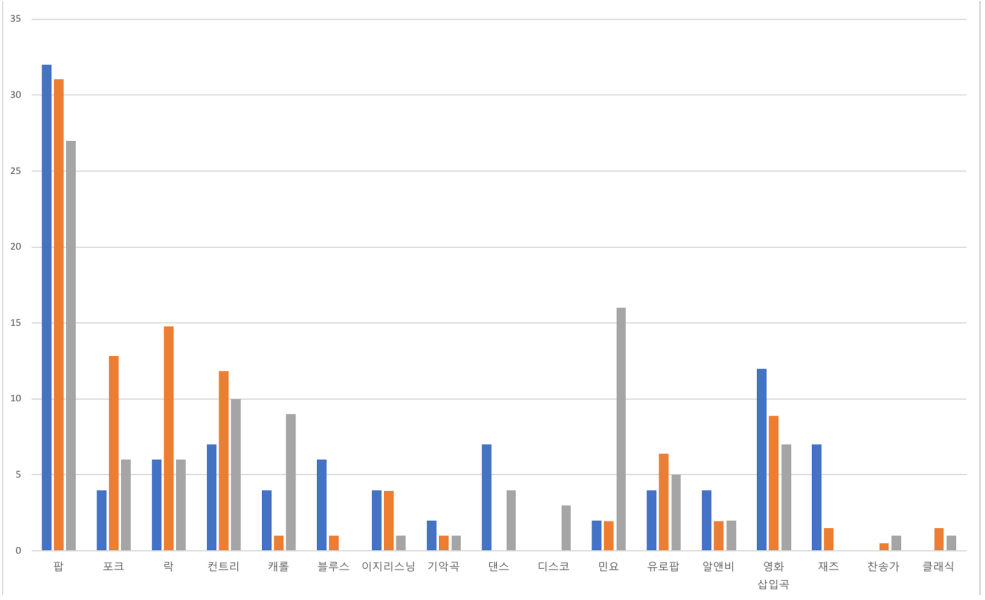
그에 따라 한국에 유입된 새로운 악기들도 발견된다. 디스코나 락 장르에서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드럼과 피아노가 사용되었는데, 원곡의 음악적 어법이 번안가요에서 충실히 반영되면서 새로운 악기의 보급 또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달리 이른 시점부터 신디사이저가 한국에 정착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문에서 나누었던 시기별로 장르의 유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21] 기간 내의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발매 수치 (실 생산수치 반영)

각각의 장르에 세 개씩 막대그래프가 있는데, 이는 순차적으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각각의 시기에 생산된 번안가요의 실 생산 수치이다. 팝 장르와 포크, 락, 컨트리 장르에서는 눈에 띄는 큰 증가폭과 감소폭이 있다. 그럼에도 1975년 이후에는 번안가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있어서 비율로 전환하여 분포한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프 22] 기간 내의 기간별 번안가요 원곡 장르별 발매 수치 (비율로 전환)

비율로 반영한 결과 팝 장르는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거듭되는 사전 심의와 사후 심의의 결과이다. 반면 포크와 락, 컨트리의 경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공통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발매 수치를 기록한다. 이에 대해 1960년대 후반 미국 포크와 락의 대중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급격하게 많은 포크와 락이 유입된 점과 독재정치에 맞서는 청년들이 포크와 락 장르를 자신들의 저항을 표출하는 수단

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이 원인이다. 이후 후반기 시기의 포크와 락 장르는 〈공연 활동 정화 대책〉 및 〈불건전 외국 가요 백서〉로 인해 발매 비율이 감소한다.

오히려 후반 시기에는 댄스, 캐롤, 민요 장르들이 선전한다. 이 장르들은 사전 혹은 사후 검열의 지대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1970년대 미국에서 디스코 장르가 크게 유행하면서 미국의 유행이 한국 사회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유로팝은 유럽의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동시에 댄스 형식으로 된 곡들로 유럽에서 유래되어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 장르는 한국 상업가요 시장의 댄스 장르의 발판을 형성했다. 종합적인 그래프들을 통해서 연도별 생판 분포뿐만 아니라 장르별 분포 비율도 정책적인 측면과 긴밀한 연관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 5. 결론

본 연구는 1910년부터 1987년까지 정치적 지형에 따라 세 시기로 분류하여 각각 시기별 번안가요와 정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번안가요에 대한 총 목록을 작성함으로서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획득했으며,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가사 분석과 같은 음악 내적 분석이 아닌 통계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각 시기별 번안가요의 연도별 발매 수치와 장르별 분포 비율을 통계자료로 사용하였고, 이 통계자료들에서 발견되는 경향성과 특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과 번안가요 생산 과정에 대한 연관성을 밝혔으며, 당시 유입된 서양 대중가요의 변화는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번안가요의 연도별 통계 수치는 정권의 정책의 방향에 따른 서양 대중가요 유입 양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장려정책과 검열정책이 이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연도별 번안가요 발매 수치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려 정책은 번안가요가 생산되어 음악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이후 독재정권의 검열정책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번안가요가 생산될 수 있었던 장려 정책이 있었음을 명시함으로서 번안가요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었음을 밝혔다.

각각의 시기에 이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하의 조선총독부가 “한국적 정체성을 배제하고 양악과 동화를 시도”했던 조선 제 1차와 제 2차 교육령을 시행했고, 그 결과로 서구권 제국주의 국가들의 음악이 번안되어 번안가요로 발매되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서양문물을 동양문화에 입각해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방송법〉을 제정하여 1960년대 이

후 번안가요 발매를 장려했다. 정권의 지향점 혹은 정치적 이념은 예술, 문화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해 국가의 문화가 형성되고 저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번안가요의 발매수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번안가요의 생산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게 된 것이다.

원곡의 장르별 분포 비율 분석은 서양 대중가요에 대한 정권의 접근방식 혹은 작용방식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는 서구권 제국주의의 영향력 하에 서양문물을 접하는 통로인 번안가요가 생산이 장려되었으나, 일제는 세계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몇몇 서구권 국가를 적성국가로 설정하고 서구권 음악을 금지했다. 특히, 이 당시 서양음악으로 여겨졌던 '재즈'에 대한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와 미군의 선전정책은 미국문화를 대중들로 하여금 수용하고, 서양대중가요는 수용해야 하는 음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스탠다드 팝, 컨트리 등이 유입되었다. 반면,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권에서는 포크, 락과 같은 특정장르를 '역 문화'로 해석하여 1975년 〈공연활동 정화대책〉과 〈불건전 외국가요 백서〉를 통해 그들의 생산을 위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 대중가요의 특정 장르들은 정권의 접근방식에 따라 통제 혹은 검열 당했다. 그렇기에 정치적 지형에 따른 장르별 분포가 다른 양상을 띄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번안가요를 통한 서양대중가요의 다양한 장르가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악기들 또한 유입되었다는 것도 드러난다. 서양 대중가요의 유입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당시의 대중가요 장르인 재즈송이, 1950년대 이후에는 스탠다드 팝이, 1960년대 이후에는 포크송, 락, 댄스 등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르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악기인 브라스 밴드, 아코디언, 하와이안 기타, 일렉트로닉 기타, 어쿠스틱 기타, 신디사이저 등 음악적 어법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 또한 장르와 함께 보급된 것이다.

지배 담론에 의해 한국 사회 속에서 서양대중가요는 다양한 상징으로

변모되어왔다. ‘적’, ‘해방’, ‘저항’, ‘퇴폐’ 등 각기다른 정권에 의해 서양 대중가요는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서양 대중가요를 기초로 한 번안가요도 정권에 의해 창출된 의미의 변화에 따라 정책에 순응하는 것과 반하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면서 번안가요는 대안에서 주류로 성장했다가 주류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기를 반복했다. 이는 시대에 따라 번안가요의 한국 상업음악 속의 위치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물론, 번안가요가 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발휘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팔통과 SP 녹음 기술 등이 도입되어 레코드 발매가 가능해졌으며,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LP 생산 기술이 도입되면서 한국 레코드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비교적 기술 도입이 어려웠던 시기인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번안가요 생산 목록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은 기술과 번안가요 생산 수치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전쟁시기와 한국전쟁시기 그리고 군부정권의 검열정책이 보여주듯이 기술적인 측면 또한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치적 상황이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대중가요는 지배 계층에 의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대중가요는 음악이기 전에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의 질서를 마련하고 통제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안가요는 대중가요의 한 부류로서 77년의 역사 동안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며, 다시 말해, 번안가요를 통해 유입된 서양 대중가요는 대중들의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닌 지배 계층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의 번안가요와 정책의 연관성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적 흐름 또한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며, 이로써 대중가요는 순수한 그 자체의 음악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치적 맥락을 통해서 분석되어야 하는 현상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차 자료

### 1)유성기 음반 목록 출처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단(배연형 외) 엮음,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콜롬비아 음반』, 서울: 한걸음 더, Vol. 1, 2011.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단(배연형 외) 엮음,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리갈, 빅타 음반』, 서울: 한걸음 더, Vol. 2, 2011.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단(배연형 외) 엮음,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시에론 오케 음반』, 서울: 한걸음 더, Vol. 3, 2011.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단(배연형 외) 엮음,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나팔통, 포리돌, 태평, 군소 음반』, 서울: 한걸음 더, Vol. 4, 2011.

배연형, 『한국 유성기 음반 : 1907~1945 - 해제. 색인』, 서울: 한걸음 더, Vol. 5, 2011.

한국 음반 아카이브, “한국 유성기 음반”, http://www.sparchive.co.kr/v2/index.php

### 2)1960년 이후 LP 목록

KBS 방송콘텐츠통합시스템, “음악 검색”, http://kcms.kbs.co.kr/. (2020년 9월 20일부터 2020년11월 10일까지 접속)

## 2차 자료

### 1)단행본

김경일 외, 『한국 현대 생활 문화사 1970년대 - 새마을 운동과 미니스커트』, 파주: 창비, 2016,

김학재 외,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 파주: 창비, 2016

김정한 외, 『한국 현대 생활 문화사 1980년대 - 스포츠 공화국과 양념통닭』, 파주: 창비, 2016,

김동춘, 기외르기 스첼, 크리스토프 포만 외 지음, (안인경, 이세현 옮김), 『반공의 시대-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파주: 돌베개, 2015.

김영주, 『한국의 청년대중음악 문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김창남 외, 『대중음악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래리 스타, 크리스토퍼 워터맨, (김영대, 조일동 옮김), 『미국 대중음악』, 한울, 2010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솔, 2004.

민경찬,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민은기 외, 『독재자의 노래:그들은 어떻게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았는가』, 한울, 2012

박성서,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서울: 책이 있는 풍경, 2010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1940-50년대』, 서울 : 현실문화 연구, 2008

신현준, 이용우, 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한국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한길 아트, 2005.

이소영, 『20세기 한국음악의 혼종적 음악하기: 신민요를 중심으로』, 서울: 민속원, 2018.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서울: 민속원, 2006.
이혜숙, 손석우, 『한국대중음악사 - 통기타에서 하드코어까지』, 서울: 리즈앤북, 2003.
장유정 서병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서울 : BM 성안당, 2015
장유정의 『오빠는 풍각쟁이야: 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서울: 민음In: 황금가지, 2006.
학술단체협의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한국대중가요사 I : 1886-1945』,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2003.

2)학위 논문

박기영, 『이식, 그리고 독립: 한국 모던 포크 음악의 성립과정』,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이고운, 『권위주의적 정권 하의 한국 국책가요 연구 - 일제 강점기 제 3,4 공화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대중음악학과 대중음악 제작 경영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7.
이주원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번안가요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3)학술 논문


곽진오,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 조선 교육령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vol.50, 2011, p. 255-272.

권정구, “음악저작권 강화 전후의 번안가요 전개 양상”, 『대중음악 통권』, 17호, 2016, p. 8-30.

-----, “대중음악 금지곡 중 왜색과 표절의 관계 고찰: 비공개 심의원본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Vol.39, 2018, p. 61-94.

권현우, 박재록,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전자 악기 수용 연구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Vol.51, 2016, p. 222-226.

김병오, “1960~1980년대 해적판 레코드 대중화 과정 연구”, 『공연문화 연구』, 제 24집, 2012, p 47-78.

김수경, “70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번안의 한 양상”, 『이화어문학회』, vol.38, 2016, p. 25-61.

김수정, “1960-1970년대 한국 문화정책에 대한 재고찰”, 『문화와 사회, Vol. 27, No. 1, 2019, p. 295-335.

김은경, “유신체제의 음악 통제 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 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호, 2011, p. 67-96.

김은영, “1950년대 양악 작곡가들이 상상한 국민음악: ‘국민’과 ‘민족’ 사이에서”,『음악과 민족』, Vol. 58, 2019, p.85-114.

김지혜, 정호붕, “일제 강점기 교육령에 따른 교육 확대과정과 학교 음악교육 정책 연구”, 『한국음악연구』, vol.56., 2014, p.63-89.

김희진, “국가 재건의 날실과 예술의 씨실”, 『역사문화연구』, 제 70집, 2019, p.159-188.

문옥배, “일제 강점기 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음악학』, Vol. 13, 2006, p.381-428.

-----,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음악논단』, Vol.22, 2008,

p.25-64.
박순애, “조선 총독부의 대중문화 정책-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일 민족 문제 연구』, Vol. 20 , 2011, p. 205-243.
박진수, “한국 근대 대중가요의 관련 양상 서설”, 『아시아 문화 연구』, Vol.42, 2016, p. 235-260.
----, “한국어 근대 대중가요와 번역”, 『아시아 문화 연구』, Vol.45, 2017. p.57-82.
배묘정, “한국 대중가요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에 관한연구”, 『한국예술연구』, vol.10, 2014, p. 79-112.
백욱인, “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혼종성”, 『대중음악』, 통권 25호, 2019, p. 95-122.
신현준, “박정희 시대 대중음악의 매개 (mediation)와 정치적 규제”, 『문화과학』, Vol. 74, 2013, p. 313-335.
-----, “1970~1980년대 대중음악사 서술의 쟁점: 불확정적 텍스트와 복합적 매개의 난점”, 『대중음악』, Vol.15, 2015, p.93-112.
심재겸, “국민을 위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 운동의 전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적 구상”, 『대중음악』, vol.18, no.1, 2016, p.100-147.
유옥란·장유정, “20세기 전반기 한국과 일본의 재즈송 비교”, 『문화와 융합』, 제 42권, 2020, p. 235-273.
이소영 “193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장르 혼용 양상 - 재즈송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 18권, 제 2호, 2010, p.189-233.
이영미 “대중가요의 이해 (2) - 해방이후 70년대 전반까지”, 『초등우리교육』, 통권 제 6호, p. 166-174.
이준희 “1950년대 유성기음반사 연구 - 6대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Vol.14, 2004, p.191-216.
-----, “일제 시대 음반 검열 연구”, 『한국 문화』, vol.39, 2007, p. 163-201.
-----, “195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대중서사연

구』, 제17호, 2007, p.73-104.
이진원, “자료 : 〈국민가요곡집 새나라의 노래〉 영인 해제”, 『한국음악사학보』, Vol.42, 2009, p. 291-327.
이혜림, “1970년대 청년문화 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 『사회연구』, 2005, Vol.6, p.7-40.
이혜원,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의 번안 양상”, 『대중음악』, 통권 24호, 2018, p.65-94.
장유정, “일제 시대 유성기 음반 곡종의 실제와 분류”, 『한국민요학』, vol. 21, 2007, p.215-239
-----, “한국 대중가요의 전개 양상 고찰” 『한국문학 논총』, 제 51집, 2009, p. 205-234.
조장원, “한국 대중음악 수용자 연구”, 『음악과 민족』, 제 56호, 2018, p. 195-223.
채백,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개인의 언론 자유”, 『언론정보연구』, 제 53권 1호, 2016, p. 177~216.
황승경. “번안된 대중가요에 대한 음성학적 고찰”, 『한국학 연구』, Vol. 38, No.38, 2015, p.281-307.
홍정택 “역대 정권별 대중음악 관련 정책변화”, 『대중음악 Sound』, 가슴네트워크, vol.4, 2012, p.21-23

4)사이트

유성기 음반

한국 유성기 음반 총목록, ‘한국의 첫 음반, 미국 콜롬비아 음반(1907)’, http://www.sparchive.co.kr/v2/sub/story/story.php?at=view&bid=11&uid=4162. (2020년 11월 24일 접속)

한국 유성기 음반 사이트 “3.유성기음반의 성장기 (나팔통 녹음, 1907~1927)” http://www.sparchive.co.kr/v2/sub/story/story.php?at=view&bid=11&uid=4164. (2020년 11월 24일 접속)

법령 관련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방송심의준칙”,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6%A1%EC%8B%AC%EC%9D%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음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636#.

기사 관련

“레코드 취체 규칙을 발표”, 동아일보, 1933년 5월 23일.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3052300209202013&editN

o=1&printCount=1&publishDate=1933-05-23&officeId=00020&pageNo=2&printNo=4468&publishType=00020 .(2020년 11월 24일 접속)

“연예수첩 반세기 가요계 (4) - 미군 진주와 재즈붐”, 동아일보, 1973년 3월 31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3310020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3-31&officeId=00020&pageNo=7&printNo=15844&publishType=00020 .

“대통령도 반한 아코디언의 역사를 듣다”, 조선일보 . 2011년 5월 3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9/2011052901274.html

“〈팝송〉은 예술이 아니다 - 예윤 〈불건전 외국가요백서〉 발표”, 중앙일보 1975년 12월 16일, https://news.joins.com/article/1424841.

“음악평론가 이백천”, 중앙일보 2014년 9월 23일, https://news.joins.com/article/15888686.

“대마초 담배 피워, 신중현에 영장, 김추자도 입건”, 경향신문, 1975년 12월 4 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050032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12-05&officeId=00032&pageNo=7&printNo=9290&publishType=00020

기타

Sound Lab, “한국 대중음악 정책”, http://ksoundlab.com/xe/soundmicenter/7064

한국 예술가문화윤리위원회 제공 계도자료, ‘건전외국가요 선전목록 -174곡 유형별 선정곡’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76_01/19760111.htm .

부록

1)일제강점기 번안가요 목록

| 발매회사 | 발매연도 | 장르 | 제목 | 가수/작곡가 |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육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37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52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18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17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21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230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제132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학도가 급 권학가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산아높은산아 | 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부모은덕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252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160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5장) | 기독교청년회원 |
| 닙보노홍 | 1921 | 외국곡 | 찬미가(제72장) | 기독교청년회원 |
| 일츅조선소리반 | 1925 (1927) | 외국곡 | 내사랑아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츅조선소리반 | 1925 (1927) | 외국곡 | 우리가젊었을때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츅조선소리반 | 1925 (1927) | 외국곡 | 하날 가는 밝은 길 | Annie Laurie/권태호/관현악 |
| 일츅조선소리반 | 1925 (1927) | 외국곡 | 주만난자들의 견고한터 | |
| 닙보노홍 | 1926 | 외국곡 | 부활의기쁨 | 윤심덕 |
| 닙보노홍 | 1926 | 외국가요 | 탕자경계가-이풍진세상을만났으니 | 박채선,이유색 |
| 일츅조선소리반 | 1926 | 외국곡 | 아기재우는노래 | 이영희,오정화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경음악 | 이풍진세상을 | 정위정,양우석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사의찬미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신민요 | 이팔청춘가 | 김죽사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파우스트노-엘 | 윤심덕/윤성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푸른갈닐니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캔더키넨집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쌘타크로쓰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산타루치아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가요 | 자라메라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매기의 노래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사랑스러운 클리멘트 | 윤심덕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다뉴브강 | 윤심덕,윤성덕(피아노) |
| 제비표 레코드 | 1926 | 외국곡 | 자비하신예수 | 윤심덕,윤성덕(피아노) |
| 닙보노홍 | 1927 | 외국곡 | 너와나와살게되면 | 박채선,이유색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동요 | 토기와거북이 | 모양, 피아노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아기재우는노래 | 이순갑, 홍난파,홍재우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시드른방초 | 김산월/도월색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이 풍진세상을 | 김산월/도월색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근대가곡 | 내고향을리별하고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근대가곡 | 제비들은 강남에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장한몽가 | 김산월/도월색 |

| | | | | |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다늡강의련파 | 육국호산학교군악대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저 언덕을 넘어(오버더힐) |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슷돈돈부시 | 이난향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가요 | 단조니보시 단쪼네 | 이난향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베니스의 주래 | 박재국,바이올린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동요 | 속임 도레미파 쏠라시도 | 이순갑,홍난파,홍재우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하이든작곡 미뉴엑서곡 | 홍난파,김원복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매기의추억 | 안기영,아펜젤러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미뉴에트무용곡 | 하이든작곡,홍난파,김원복 피아노 |
| 일츅조선소리반 | 1927 | 외국곡 | 클레멘타인 | 안기영,아펜젤러 |
| 제비표 레코드 | 1927 | 외국가요 | 시드른방초 | 김산월/도월색 |
| 제비표 레코드 | 1927 | 외국가요 | 장한몽가 | 김산월/도월색 |
| 일츅조선소리반 | 1928 | 외국곡 | 찌아노푸스키 뒷동산 | 박재국바이올린 |
| 콜롬비아 | 1929 | 경음악 | 대동강변 자라메라 | 콜롬비아기악단 |
| 콜롬비아 | 1929 | 외국곡 | 리골레토-베르디 | 안기영 김은실 피아노 |
| 콜롬비아 | 1929 | 외국곡 | 뚜나-멕길 | 안기영 김은실 피아노 |
| 콜롬비아 | 1930 | 재즈송 | 종로행진곡 | 복혜숙 |
| 콜롬비아 | 1930 | 재즈송 | 그대그립다 | 복혜숙 |
| 콜롬비아 | 1930 | 유행가 | 애의광 | |
| 콜롬비아 | 1930 | 외국곡 | 잘자라내아기 | 안기영 |
| 디어레코드 | 1931 | 유행가 | 명사십리 31년 | 강금자/디어재즈밴드 |
| 리갈 | 1931 | 테너 독창 | 메기의 추억 | 차재일 노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메리의 노래 | 이애리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라인강 | 이애리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베니스의 노래 | 이 애리수 |
| 콜롬비아 | 1931 | 유행소곡 | 젊은이의 노래 | 강석연 |
| 콜롬비아 | 1931 | 외국곡 | 주자비하신 | 띄엔루쓰/뿌쓰(피아노) |
| 콜롬비아 | 1931 | 외국곡 | 영광의찬송 | 차재일,이광준 |
| 콜롬비아 | 1931 | 외국곡 | 매기의추억 | 차재일 관현악 |
| 빅타 | 1932 | 유행가 | 봄소식 (캐래밴) | 이애리수 |
| 일츅조선소리반 | 1932 | 외국곡 | 나를인도하심 | 리놀합스터루쓰 |
| 일츅조선소리반 | 1932 | 외국곡 | 부르시네 | 리놀합스터루쓰 |
| 콜롬비아 | 1932 | 유행소곡 | 술은 눈물일까 한숨일까 | 채규엽 |
| 콜롬비아 | 1932 | 외국곡 | 주의 뜻대로 | 띄엔루쓰 |
| 콜롬비아 | 1932 | 외국곡 | 주내맘에오심 | 차재일,이광준 |
| 리갈 | 1933 | 스켓취 |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 이리안 범오 |
| 시에론 | 1933 | 재즈송 | 명사십리 | 전수린 |
| 콜롬비아 | 1933 | 경음악 | 하와이의노래 | 최리차드(밴조독주) |
| 콜롬비아 | 1933 | 유행가 | 째즈 매기 | 임헌익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니나의죽음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고요한밤거룩한밤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자장가 | 꼬다르곡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슈베르트세레나데 | 슈베르트곡 현제명 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바다로오너라 | 현제명 동경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돌아오라소렌토로-디커티스 | 현제명 동경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떨렁방울-스미스 | 연전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흑인의망향가 | 연전사중창단 |

| | | | | |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사랑의노래-랑 | 현제명 일본<br>콜럼비아관현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황혼의종소리-월멧 | 현제명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봄노래-스왈쓰 | 임헌익<br>콜롬비아관현악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멕시코세레나데 | 현제명/나포타린만<br>돌린오케스트라단 |
| 콜롬비아 | 1933 | 외국곡 | 미네톤가호반-리유렌스 | 현제명 일본<br>콜롬비아관현악단 |
| 포리돌 | 1933 | 유행가 | 콘도라의 노래 | 김활라/포리돌살롱<br>오케스트라 |
| 포리돌 | 1933 | 유행가 | 영치키 행진곡 (러부 파레드) | 김용환/포리도루짜<br>즈밴드 |
| 리갈 | 1934 | 관악 | 스워드 앤드 쉴드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4 | 관악 | 애니라으리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4 | 외국곡 | 매기의 추억 | 차재일 관현악 |
| 콜롬비아 | 1934 | 유행가 | 사랑의 유레이티 | 채규엽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케트린마보닌 | 크라우치작곡,현제명<br>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스페니쉬세레나데 | 비제작곡 현제명및<br>신 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산타루치아 | 현제명,<br>이탈리아민요,<br>동경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4 | 외국곡 | 멍텅구리장가가요-스미스 | 연희전문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4 | 재즈송 | 사랑의 랑데뷰 | 채규엽 안일파<br>정일경 조금자 |
| 리갈 | 1935 | 스켓취 | 카츄사의 하소 (상,하) | 도무 이리안 |
| 리갈 | 1935 | 찬송가 | 평화한 밤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5 | 찬송가 | 천사 | 구세군 관악단 연주 |
| 리갈 | 1935 | 찬송가 | 주 날개 밋 | 최연순 |
| 리갈 | 1935 | 찬송가 | 내 주여 뜻대로 | 최연순 |
| 리갈 | 1935 | 관현악 | 미뇨트 서곡 | 연희전문관현악단/<br>세레디 |
| 리갈 | 1935 | 관현악 | 모사익 | 연희전문관현악단/<br>토바니 |
| 빅타 | 1935 | 찬송가 | 주께로 옴내다 | . |
| 빅타 | 1935 | 복음가 | 주가 인도하는대로 | . |
| 빅타 | 1935 | 외국곡 독창 | 자장가 | 슈벨트 |
| 시에론 | 1935 | . | 소망의노래 | . |
| 시에론 | 1935 | 댄스 음악 | 다이나 | . |
| 오케 | 1935 | 유행가 | 집시의노래 | 손목인 |
| 오케 | 1935 | 댄스 음악 | 다이나 | 다크미네 |
| 오케 | 1935 | 외국곡 | 니나의죽엄 | 이인선 |
| 오케 | 1935 | 외국곡 | 월계꽃-슈베르트 | 박경호,정훈모독창,<br>오케 교향악단 |
| 오케 | 1935 | 외국곡 | 주를찬양하라 | 이화그리클럽 |
| 오케 | 1935 | 재즈송 | 우쿠레레삐비 | 삼우열<br>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5 | 재즈송 | 집시의달 | 삼우열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저건너스와니강 | 포스터작품 |
| 콜롬비아 | 1935 | 재즈송 | 즐거운 내 살림(나의 푸른<br>하늘) | 권영걸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오솔레미오-카푸아 | 현제명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아베마리아-슈베르트 | 현제명 신교향악단 |

| | | | | |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하바네라의노래 | 박경희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낮잠자는마누라-카레 | 연전사중창단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뻐국새는노래한다-우드 | 채선엽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솔베이지의노래-그리그 | 박경희<br>일본신교향악단 |
| 콜롬비아 | 1935 | 외국곡 | 삽살개-스미스 | 연전사중창단<br>콜롬비아관현악단 |
| 포리돌 | 1935 | 재즈송 | 도성의 밤노래 (일명 술취한 우유배달부) | 김용환 |
| 포리돌 | 1935 | 외국곡 | 진실히 섬길것 true hearted, whole-hearted | 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5 | 외국곡 | 할렐루야 찬송 hark, ten thousand harps and varied | D.W.성가합창단 |
| 뉴코리아 | 1936 | 재즈송 | 청춘랑데뷰 | 김정구 |
| 리갈 | 1936 | 합창 | 하와이의 노래 | 연전합창단 |
| 리갈 | 1936 | 합창 | 올드 블랙 죠 | 연전합창단 |
| 빅타 | 1936 | 외국곡 | 내주를가까이 | 박경희 |
| 빅타 | 1936 | 외국곡 | 기쁘다구주오셨네 | 박경희 |
| 빅타 | 1936 | 외국곡 | 다뉴브강 | 박경희/이바노비치곡 |
| 빅타 | 1936 | 외국곡 | 푸른하와이 | 박경희 |
| 빅타 | 1936 | 재즈송 | 맘속의 꽃다리-스미스 | 홍희명, 이복본, 빅타관현악단 |
| 시에론 | 1936 | 재즈송 | 세인트루이스블루스 | |
| 오케 | 1936 | 테너 독창 | 하날 가는 밝은 길(36) | 이유선(독창)/째링케 |
| 오케 | 1936 | 테너 독창 | 거룩한 성 | 이유선(독창)/째링케 |
| 오케 | 1936 | 댄스음악 | 바람이 산들/ 우쿨렐레 삐비(35) | |
| 오케 | 1936 | 재즈송 | 세인트루이스블루스 | 삼우열 |
| 오케 | 1936 | 재즈송 | 코로라드의 달 | 손 안드레아 |
| 오케 | 1936 | 재즈송 | 애 상의 브루스 | 김해송 |
| 오케 | 1936 | 재즈송 | 다이나 | |
| 오케 | 1936 | 외국곡 | 미뉴엩 (사장조) | 베토벤 |
| 오케 | 1936 | 외국꼭 | 유모레스크 | 곽정순 |
| 오케 | 1936 | 소프라노 | 아베마리아 | 안병소,째링케 |
| 오케 | 1936 | 소프라노 | 안락한 가족 | 뻬숍 |
| 오케 | 1936 | 안병소 | 무용환상곡 1,2,3, | 베리오 |
| 오케 | 1936 | 안병소 | 칸소네타 | 담부로지오 |
| 오케 | 1936 | 외국곡 | 라파로마(36)스페인 민요 | 이인선/오케관현악단 |
| 오케 | 1936 | 외국곡 | 마리아 마리(이태리민요) | 이인선/오케관현악단 |
| 오케 | 1936 | 크리스마스 쏭 | 거룩한밤 | 이인선 |
| 오케 | 1936 | 크리스마스 쏭 | 주여 인도하소서 | 이인선 |
| 오케 | 1936 | 독창 | 오나의 태양 | 이인선 |
| 오케 | 1936 | 독창 | 슈벨트 소야곡 | 이인선 |
| 오케 | 1936 | 독창 | loreley | 리스트/정훈모 |
| 오케 | 1936 | 외국곡 | 라-고 (라르고) | 이인선 |
| 오케 | 1936 | 근대가곡 | 자장가/ 월계꽃 | 슈베르트/정훈모 |
| 오케 | 1936 | 외국곡 | 아베마리아 | 구노/정훈모/오케관현악단 |
| 오케 | 1936 | | 애의 비가 | 크라이슬러 |
| 오케 | 1936 | 외국곡 | 제비의 노래 | 로듸/정훈모 |
| 오케 | 1936 | | 자장가 | 브람스 |

| | | | | |
|---|---|---|---|---|
| 오케 | 1936 | 외국곡 | 쏠베이지의 노래 | 정훈모 |
| 오케 | 1936 | 외국곡 | 여자의마음-클래식 | 이인선 테너 |
| 오케 | 1936 | 외국곡 | 산타루치아 | 이유선 |
| 오케 | 1936 | 재즈송 | 메랑코리 | 손안드레 |
| 오케 | 1936 | 재즈송 | 캐리오카 | 김해송 이난영 |
| 오케 | 1936 | 재즈송 | 카우보이노래 | 삼우열 |
| 오케 | 1936 | 재즈송 | 스윗체리니 | 삼우열 |
| 콜롬비아 | 1936 | 경음악 | 이팔청춘가 | 콜롬비아기타 |
| 콜롬비아 | 1936 | 경음악 | 다이나 | 콜럼비아기타척팔사<br>중추단 |
| 콜롬비아 | 1936 | 외국곡 | 보리타작 | 이탈리아민요<br>사데로 현제명 |
| 콜롬비아 | 1936 | 외국곡 | 내주되신주 | 경성성가합창단 |
| 콜롬비아 | 1936 | 외국곡 | 내주를 가까이 | 경성성가합창단 |
| 콜롬비아 | 1936 | 재즈송 | 유쾌한 시골영감 | 강홍식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다이나 |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청춘의 추억( poema) | 김용환/포리도루리<br>즘보이스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청춘리즘(Stein song) | 쬬핸리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집시합창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룸바의 리듬 | 김용환/포리도루리<br>즘보이스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죽음을이기심 | 동경<br>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전진합시다 | 동경<br>D.W.성가합창단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참기쁘다 | 요한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브람스자수가 | 브람스작곡,정훈모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애의비애 | 크라이슬러작곡,<br>안병소,<br>쩨링케(피아노) |
| 포리돌 | 1936 | 외국곡 | 월계꽃 | 박경혼,정훈모,오케<br>교향악단 |
| 포리돌 | 1936 | 재즈송 | 따이나 | 배구자악극단<br>강덕월 |
| 시에론 | 1937 | 재즈송 | 코로라드의 달 | |
| 오케 | 1937 | 재즈송 | 라쿠카라차 | 김해송 |
| 오케 | 1937 | 재즈송 | 목장의 로맨스 | 김해송 |
| 오케 | 1937 | 재즈송 | 카푸리의섬 | 김해송 |
| 콜롬비아 | 1937 | 경음악 | 희망의고개로 | 콜롬비아재즈밴드 |
| 콜롬비아 | 1937 | 재즈송 | 이태리정원 | 에르완 작곡 |
| 포리돌 | 1937 | 재즈송 | 세인트루이즈부르스 | 김용환/포리도루리<br>즘보이스 |
| 리갈 | 1938 | 재즈송 | 모던 봉변 | 안일파 |
| 리갈 | 1938 | 재즈송 | 하와이의 꿈(1938) | 임원 |
| 콜롬비아 | 1938 | 경음악 | 댓츠오케이 | 콜롬비아재즈밴드 |
| 콜롬비아 | 1938 | 경음악 | 못부치는 편지 | 콜롬비아재즈밴드 |
| 콜롬비아 | 1938 | 유행가 | 전화일기 | 김해송,박향림 |
| 콜롬비아 | 1938 | 유행가 | 진주라 천리길 41년 | 임헌익 |
| 콜롬비아 | 1938 | 재즈송 | 정열의산보 | 채규엽,콜롬비아리듬<br>보이스 |
| 태평양레코드 | 1938 | 외국가요 | 아끼라메마스와요 | 이남순 |
| 리갈 | 1939 | 재즈송 | 어두운세상 | 탁성록 |

| | | | | |
|---|---|---|---|---|
| 리갈 | 1939 | 유행가 | 마리네라1939 | 오천포 |
| 리갈 | 1939 | 재즈송 | 집시의달(1939) | 손목인 |
| 리갈 | 1939 | 재즈송 | 싱.싱.싱 | 손목인 |
| 오케 | 1939 | 재즈송 | 씽씽씽 | 손목인/오케재즈밴드 |
| 오케 | 1939 | 외국곡 | godard joceyln"berceuse" | 조세린의 자수가 |
| 오케 | 1939 | 외국곡 | 츄라이 메라이 | 곽정순 |
| 오케 | 1939 | 외국곡 | 거룩한구주 | 백조혼성합창단 |
| 오케 | 1939 | 재즈송 | 따이나 | 김리자,<br>오케재즈밴드 |
| 포리돌 | 1939 | 유행가 | 마도로스의 노래 | 김용환 |
| 포리돌 | 1939 | 재즈송 | 그리운 아미 | 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9 | 재즈송 | 그리운 아미 | 김용환/포리도루리즘보이스 |
| 포리돌 | 1939 | 재즈송 | 유칼레리 삐삐 | 김용환 |
| 포리돌 | 1939 | 유행가 | 눈물의 폭스트롯트 | 이훈식 |
| 오케 | 1940 | 유행가 | 꿈꾸는백마강 | 이인권 |
| 오케 | 1941 | 하와이노래 | 그리운 하와이 | 하와이 |
| 오케 | 1941 | 하와이노래 | 하와이 아가씨 | 하와이 |
| 오케 | 1941 | 외국곡 | 믿는사람 | 백조혼성단 |
| 빅타 | 기록없음 | 외국곡 | 브람스 자장가 | 김천애/빅타관현악단 |
| 빅타 | 미상 | 외국곡 | 노래의 날개-멘델스존 | 김천애/빅타관현악단 |
| 빅타 | 미상 | 외국곡 | 후니꾸리후니꾸라 | 덴자작곡/현제명 및 빅타 관현악단 연주 |
| 빅타 | 미상 | 외국곡 | 마리아마리(나폴리민요) | 이인범/일본빅타관현악단 |
| 빅타 | 미상 | 외국곡 | 아이아이아이 | 페레프래트/현제명/일본빅타관현악단 |
| 태평양 | 미상 | 외국가요 | 자라메라 | 윤백단 |

## 2) 해방 이후 번안가요 총 목록

| 레이블 | 발매연도 | 앨범명 | 가수 | 수록곡 |
|---|---|---|---|---|
| 아세아 | 1962 | 모니카유 힛트앨범 no.2 | 모니카유 | 일요일은 참으세요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아리랑 시스터즈 | 그이에게 다정히 (treat him nicely)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김영국 쟈니 브라더스 | 비치 파티 (beach party)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김영국 쟈니 브라더스 | 라스베가스 만세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쟈니브라더스 김영국 아리랑 시스터즈 | 윗 아이 쎄이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이지희 | 안개 낀 밤의 데이트 (La plage)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김영국 아리랑 시스터즈 | 알디라(Al dila) |
| 아세아 | 1963 | 영화주제가 〈반역/ 일등공신〉 | 김영국 아리랑 시스터즈 | 붕가 왕 소르 |
| 아세아 | 1963 | 안다성 애창곡집 | 안다성 | 체리핑크 맘보 |
| 오아시스 | 1963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김치켓 | tennessee waltz |
| 오아시스 | 1963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김치켓 | cu-cu-rru-cu-cu-paloma |
| 오아시스 | 1963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김치켓 | clementine |
| 오아시스 | 1963 | 신라의 달밤/tenessee waltz | 김치켓 | historia de un amor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검은 상처의 부르스 (broken promises)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알디라 (aldila)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정열의 마카레나 (La macarena)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문리버 (moon river)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라파로마(la paloma)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투 나잍(tonight)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월광의 룸바 |
| 오아시스 | 1963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김치켓 | 아름다운 하늘 (cielito lindo) |
| 미도파 | 1964 | 최무룡- 단둘이 가봤으면 | 현미 | 테네시 왈츠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워싱톤 광장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정사 (trust m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쟈니는 답답해 (jhonny got angry)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고독의 거리 (it's lonesome old town)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씬 시어리 (Sincerely)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키스미 퀵 (kiss me quick)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슬픈영화 (sad movi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보사 노바의 추억 (blame it on the bossanova)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이 세상의 끝 (top of the wolrd)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언제나 그대 곁에 (may you always)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즈 트리오의 금자탑 | 이 씨스터즈 | 머스크렐 램블 (muskrat ramble) |

| | | | | |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파랑새 (dominiqu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바람둥이 죠 (killer jo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문리버 (moon river)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남녘 하늘 내 고향 ( south town USA)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러브스타 (love star)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콰이강 마취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내 사랑 코리나 (corinna Corinna)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태양은 외로워 (l'eclips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그대 손목 잡고 싶어 (I want to hold your hand)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희미한 사랑의 구름 다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지난날을 위하여 (JUST FOR OLD TIME SAKE) |
| 신세기 | 1964 | 이 씨스터스 트리오의 금자탑 (서울의 아가씨) | 이 씨스터즈 | 일요일은 참으세요( never on sunday) |
| 신세기 | 1964 |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그녀입술은 달콤해 | 키보이스 | 나의 보금자리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우리집에 오세요 (come on a my house)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우라라 (Ulala)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천사의 눈동자 (angel eyes)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아무래도 좋아요 (it's all right with me)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안녕 (good-bbye)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초원의 언덕 (Day's of wine and roses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식어버린 사랑 (the thrill is gone)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그대가 미소지을 때 (when you're smiling)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멋진그날 (you'd so nice to come home to)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죽도록 사랑해요 (i love you much too much) |
| 아세아 | 1964 | 빨간 오뚜기의 마스콧트:모니카유 힛트 앨범 3집 | 모니카유 | 달나라로 보내줘요 (fly to the moon)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유주용 | 라노비아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라노비아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도미니크 (dominique)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날이 갈수록 사랑해요 (i love you more an more)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자바(Jaba)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바바니들 (bobba needle)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비여! 오지 마라다오 (don't let the rain come down) |

| | | | | |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라콤파 루시타 (la comparsita)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불의 키쓰 (kiss of fire)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검은 눈동자 (black eye's)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이별의 푸렛홈 (goodbye platform)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장미의 탱고 (tango dellerose) |
| 아세아 | 1964 | 라노비아 | 정씨스터즈 | 벽에도 귀가 있다 (the wall has ears)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도미니크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날이 갈수록 사랑해요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쟈바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바바니들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비여오지말아다오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라콤파르시타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불의 키스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검은 눈동자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이별의 플렛홈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장미의 탱고 |
| 아세아 | 1964 | 정시스터즈 재즈와 탱고집 | 정씨스터스 | 벽에도 귀가 있다 |
| 오아시스 | 1964 | 손석우 탑 히트 | 손시향 | I will be home |
| 오아시스 | 1964 | 손석우 탑 히트 | 손시향 | round and round |
| 오아시스 | 1964 | 손석우 탑 히트 | 손시향 | if dreams come true |
| 오아시스 | 1964 | 손석우 탑 히트 | 손시향 | theres a gold mine in the sky |
| 오아시스 | 1964 | 손석우 탑 히트 | 손시향 | harbour lights |
| 지구 | 1964 | 이미자/ 동백 아가씨 | 현미 | 눈물의 왈츠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눈물에 젖어(la novia)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도미니크 (dominique)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그대와 나의 부루스(premier blues)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와신톤 광장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파드레 (padre)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무심한 마음 (wooden heart)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마지막 키스( one last kiss)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날이 갈수록 사랑해요 (i love you more an more)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텔 허 바이 (tell her bye)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높은 성의 추억 (tower tall) |
| 킹스타 | 1964 | 라노비아/도미니크 | 마운틴 씨스터 | 우리 둘만의 낙원 (my little corner of the world) |
| 기록 없음 | 1964 | 키스 도둑/ 피노키오의 편지 | 유주용 | 피노키오의 편지 |

| | | | | |
|---|---|---|---|---|
| 신세기 | 1965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이 씨스터즈 | 징글벨 |
| 신세기 | 1965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이 씨스터즈 | 이별의 노래 (I understand) |
| 신세기 | 1965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이 씨스터즈 |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
| 신세기 | 1965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이 씨스터즈 | 저들 밖에 한밤 중에 (first noel) |
| 신세기 | 1965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이 씨스터즈 | 그 맑고 환한 밤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
| 신세기 | 1965 |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 (리 씨스터즈 송년 특집) | 이 씨스터즈 | 천사 찬송 하기를 (Hark the herald angels sing)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태양은 외로워 (l'eclipse)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이 세상 끝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황홀한 트위스트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검은 상처의 부루스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커피 데이트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귀여운 베이비 |
| 신세기 | 1965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the longest day 사상최대의 작전 |
| 신세기 | 1965 | 김계자 - 귀여운 베이비 | 김계자 | 귀여운 베이비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차오차오 밤비나 (Ciao ciao bambina)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하니문 챠챠 (honey moon chacha)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귀여운 베이비 (pretty little baby)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오늘밤을위하여 (just for tonight)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언덕위의 포장마차 (wheels)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위싱톤 광장 (washington square)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젊은 날의 보사노바 (blame it on the bossanova)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달빛 아래 나포리 (tintarella di luna)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오직 내 사랑 (your other love)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그대는 나의 모든 것 (you mean everything to me) |
| 아세아 | 1965 | 정씨스터즈 힛트 앨범 no.4 | 정씨스터즈 | 도돔바 넘버 화이브 (dodomba number five) |
| 오아시스 | 1966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최양숙 | 쟈니 기타 |
| 오아시스 | 1966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최양숙 | 루나 롯사 |
| 성음 | 1966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사랑의 향수 제 9번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최 희준 | 밤 안개 속에 데이트 (la playa)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조영남 | 밤 하늘의 트럼벹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최희준 | 언체인 멜로듸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이 씨스터즈 | 바람쟁이 (sinner man) |

| | | | | |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황인순 |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리 (I can't stop loving you )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최수진 | 다시 오라고 come back to me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유주용 | 안개 낀 카레리아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이 씨스터즈 | 멕시칸 진주 (mexican pearls)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최희준 | 해변의 나그네 -strangers on the shore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황인순 | 엄마와 아빠의 왈즈 (mama and daddy waltz)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허니비 씨스터즈 | 진주 조개 (pearly shell)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1 | 최수진 | 내 사랑 로리팝 (my boy lolipop)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lemon tree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wonderland by night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진주 조개 잡이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bumble bee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사랑의 기쁨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축제의 노래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yellow bird (노랑새)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love portion no.9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부베의 연인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beautiful brown eyes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crying in the chapel |
| 신세기 | 1966 | 이시스터즈 최신 힛트집 | 이 씨스터즈 | bye bye blondie |
| 신세기 | 1966 | 오!우짤꼬/ 추억에 우는 마음 | 쟈니리 | what'd I say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이금희 | 씽씽씽 (sing sing sing(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이금희 | 히피히피 쉐이크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이금희 | 썅하이 트위스트 (shanghied twist)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이금희 | 키스미 퀵 (kiss me quick)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이금희 | 비밥파 룰라 (be-bop-a-lula)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이금희 | 사냥개 (hound dog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유주용 | 또 다시 트위스트를 (let's twist again)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유주용 | 웟 아이 쩨이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유주용 | 젊은 이들 (the young ones)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유주용 | 사랑의 묘약 제 9번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유주용 | 언체인 마이 하아트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 가요 씨리즈 vol.2 | 유주용 | 베네주에라(venezuela) |
| 신세기 | 1966 | 꿀맛/ 오죽하면 얌체냐(이금희 힛트 파레이드) | 이금희 | 히피 히피 쉐이크 |
| 신세기 | 1966 | 노래의 성좌 외국가요 시리즈 vol.1 | 유주용 | 안개 낀 까레리아 |

| | | | | |
|---|---|---|---|---|
| 신세기 | 1966 | 방랑의 휘파람/ 내 마음 울고 있오 (노래의 성좌 vol.4) | 이씨스터즈 | 돌아갈 수 없는 고향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남석훈 | 그 밤과 같이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서정길 | 얄궂데이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키보이스 | 에코 아스팔트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키보이스 | labamba and twist and shout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점블씨스터즈 | 기타맨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여러가수 | 내일을 향해 달려라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김선 | 눈물맺힌 나의 기도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남석훈 쟈니리 | 그대와 나의 노래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김선, 점블씨스터즈 | 마지막 춤을 나에게 |
| 신세기 | 1966 | rock and key boy's | 여러가수 | 눈물 어린 이별 |
| 아세아 | 1966 | 나의 푸른 하늘 : 모니카유, 유주용 | 유주용 | 빨리 키스해주세요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조애희 | 마리아 엘레나 maria elena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정재희 | 나의꿈 my dream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위키리 | 사랑의 향수 love potion no.9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현미 | 상처(hurt)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모니카유 | 헬로달리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임현기 | 제저벨 jezebel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한명숙 | 떠나가주오 walk away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이금희 | 눈물의 태양 crying in a storm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유주용 |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save the last dance for me)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봉봉4중창 | 영원히 the end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이시스터즈 | 비취파아티 (beach party)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 2집 | 김상국 | take these chains from my heart 내 마음의 사슬을 풀어다오 |
| 오아시스 | 1966 | 오아시스 패러다이스 제 2집 | 모니카유 | 키스도둑 |
| 오아시스 | 1966 | 사랑해 봤으면, 황혼의 에레지 2대 걸작 가수의 히트송 전집 | 최양숙 | 파리의 다리밑 |
| 오아시스 | 1966 | 최양숙 오리지날 힛송 총결산집 | 최양숙 | 죽도록 사랑해서 |
| 오아시스 | 1966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최양숙 | 빨간 풍차 |
| 기록 없음 | 1966 | 정씨스터즈의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정씨스터스 |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 오아시스 | 1966 | 최양숙/빠리의 다리밑 | 최양숙 | 빠담 빠담 빠담 |
| 성음 | 1967 | 바람아 불어다오 이태신과 탑송 | 이태신 | 예~예~라고 말합시다 |
| 성음 | 1968 | 추억의 히트송/ 흘러간 외국가요 | 유주용 | 사랑하는 마음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이주랑 | 태양은 가득히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유주용 | 추억의 솔렌자라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트윈폴리오 | 렛 이트 비 미 |

| | | | | |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수지베이비 | 뱅뱅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블루벨스 | 금지된 장난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수지베이비 | kansas city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조영남 | 가야만 하리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김상국 | 해뜨는 집 |
| 성음 | 1968 | 흘러간 외국가요 | 펄씨스터즈 | 첫사랑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남석훈 | 몰리 달링 (Molly darling)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위키리 | 정말 사랑해 (jailra bring me Wather)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이정자 | 작은새 (this little bird)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현진수 | 첫사랑의 언덕 (danny's theme)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조영남 | 빗줄기의 리듬 (rhythm of the rain)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차중락 |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Say you love me)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이 씨스터즈 |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Say you love me)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현진수 | 해 뜨는 고향 (house of the rising sun)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차중락 |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tell laura love her)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현미 | 마리아 엘레나 (maria ellena)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조영남 | 참사랑 (my true love) |
| 신세기 | 1968 | 외국 가요 시리즈 vol.5 | 정미원 | 봐이아 콘 디오 (vaya condios) |
| 신세기 | 1968 | 패티김 힛트 앨범 | 패티김 | 사랑의 맹세 (till) |
| 신세기 | 1968 | 패티김 힛트 앨범 | 패티김 | somewhere my love |
| 신세기 | 1968 | 패티김 힛트 앨범 | 패티김 | sound of music |
| 신세기 | 1968 | 패티김 힛트 앨범 | 패티김 |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
| 신세기 | 1968 | 패티김 힛트 앨범 | 패티김 | hello dolly |
| 신세기 | 1968 | 차중락 스테레오 힛츠 앨범 | 차중락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 신세기 | 1968 | 차중락 스테레오 힛츠 앨범 | 차중락 | 사랑한다고 전해주오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김선 | 눈물 맺힌 나의 기도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남석훈 | 그밤과 같이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서정길 | 얄궂데이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키보이스 | labamba and twist and ShoWT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점불시스터즈 | 기타맨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모든 아티스트 | 내일을 향해 달려라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김선, 점불시스터즈 | 마지막 춤을 나에게 |
| 신세기 | 1968 | 그 밤과 같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모든 아티스트 | 눈물 어린 이별 |
| 신세기 | 1968 | 윤복희 스테레오 앨범 1집 | 윤복희 |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
| 신향 | 1968 | 펄씨스터즈 특선집 | 펄씨스터즈 | 샌프란 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
| 유니버샬 | 1968 | 님아 / 센프란시스코에선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 펄시스터즈 | 왜 날 울려놓고 |

| | | | | |
|---|---|---|---|---|
| 성음 | 1969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조영남 | 외로운 사나이 (the great pretender) |
| 성음 | 1969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이찬 | 사랑의 추억 (the way it used to be) |
| 성음 | 1969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이석;저우 | 야생 (born free) |
| 성음 | 1969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이석 | 꿈이 이루어진다면 (impossible dream) |
| 성음 | 1969 | 길/빗속에서 울리라(조기웅 작편곡집) | two ace | 그 얼굴 (all I have to do is dream)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비정의 사나이 I (a man without love)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언덕 위에 교회당 (chaple on the hill)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외로운 젊은이 (make the world go away)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San Francisco 에선 머리에 꽃을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외로울때면 (call on me)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마음의 노래 (this is my song)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귀여운 사랑 (don't be afraid little darlin)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기다려 주렴 (wait for me baby please)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추억 (smorky places)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이별의 눈빛 (spanish eyes)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
| 성음 | 1969 | 김준과 top song vol.1 | 김준 | 날 잊지 말아주 (please love me forever) |
| 신세기 | 1969 | 짬 좀 내줘요 | 화니씨스터즈 | 로미오와 쥬리엣 -Mancini henry |
| 신세기 | 1969 | 짬 좀 내줘요 | 화니씨스터즈 | 사랑을 가르쳐주세요 |
| 신세기 | 1969 | 짬 좀 내줘요 | 봉봉 | 오브라디 오브라다 |
| 신세기 | 1969 | 첫사랑/하얀사랑의집 신세기 | 문주란 | 리베라이 |
| 신세기 | 1969 | 최영희 애창곡집 신세기 | 최영희 | 가버린 시절 |
| 지구 | 1969 | 당신은 떠나가도/ 하얀 손수건 | 트윈폴리오 | 바람 속에 |
| 지구 | 1969 | 당신은 떠나가도/ 하얀 손수건 | 트윈폴리오 | 빗속에 울며 |
| 지구 | 1969 | 당신은 떠나가도/ 하얀 손수건 | | 인생은 즐거워 |
| 지구 | 1969 | 패티김 스테레오 하이라이트 3집 | 패티김 | 하얀집 |
| 히트레코드 | 1969 | 한상일 애창곡집 | 한상일 | 영아는 내사랑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오뚜기의 춤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내마음을 풀어주오 |
| 그랜드레코드 | 1970 | 뚜아에무아 1집 | 서수남, 하청일 | 서울구경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브로우의 추억/ 약속 | 뚜아에 무아 | 도나도나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브로우의 추억/ 약속 | 뚜아에 무아 | 나의 사랑 나의 기쁨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스카보로우의 추억 (scarbrough fair)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나의 사랑 나의 기쁨 (let it be me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에델 바이스 (edelweiss)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저언덕을 넘어 (without of love) |

| | | | | |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제네파 쥬네파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약속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썸머와인 (summer wine)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그대여 그대여 (to know is to love you)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도나도나 (dona dona) |
| 그랜드레코드 | 1970 | 스카보로우의 추억/ 약속 | 박인희 | 동전 한닢 (if I didn't have a dime)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멋대로 놀아라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사랑의 향수 제9번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나에게도 여자가 있네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웟 아이 세이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샤레이드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오뚜기의 춤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내 마음을 풀어주오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예 예 라고 말합시다 |
| 성음 | 1970 | 이태신과 탑송 vol.1 | 이태신 | 황야의 무법자 |
| 성음 | 1970 | 황규현/애원 | 준씨스터즈 | 하얀손수건 |
| 성음 | 1970 | 주은경 : 꽃동산/그맹서 | 비존스 | 노란새 |
| 성음 | 1970 | 주은경 : 꽃동산/그맹서 | 비존스 | 어둠의 찬가 (sound of silence) |
| 성음 | 1970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이승재 | holiday (공휴일) |
| 성음 | 1970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이승재 |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피닉스에 두고 온 사랑) |
| 성음 | 1970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이승재 |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 성음 | 1970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이승재 | first of may (5월의 첫날) |
| 성음 | 1970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이승재 | I'm so lonesome I could cry (외로워서 나는 웁니다 ) |
| 성음 | 1970 | 소녀/두마음 (이승재 독집) | 이승재 | words (사랑의 말씀)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검은 상처의 부루스 (broken promises)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정열의 마카레나 (la macarena)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쿠쿠루 쿠쿠 파로마 (cucu rru cucu paloma)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클레멘 타인 (clementine)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테네시 왈츠 (tenesse waltz)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라파로마 (la paloma)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월광의 룸바 |
| 성음 | 1970 | 검은 상처의 부르스/ 아리랑 목동 | 김치켓 | 투나잇 (tonight) |
| 성음 | 1970 | 조영남 가요 힛트 수록 vol.1 | 조영남 | 최진사댁 셋째딸 |
| 성음 | 1970 | 조영남 골든 히트 제1집 | 조영남 | 내 고향의 푸른 잔디 |

| | | | | |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사랑의 기쁨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라모나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빗방울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사랑의 맹세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철새는 날아가고 (el condor pasa)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 신세기 | 1970 | 패티김 스테레오 골든 앨범 | 패티김 | 슬픔의 천사 |
| 신세기 | 1970 | 사랑하는 당신이/ 빗방울 | 패티김 | yesterday |
| 신세기 | 1970 | 뚜아에무아 /약속 | 뚜아에무아 | 스카브로우 추억 |
| 신세기 | 1970 | 뚜아에무아 /약속 | 뚜아에무아 | 제네파 쥬네파 |
| 신세기 | 1970 | 뚜아에무아 /약속 | 뚜아에무아 | 사랑한다 말해주 |
| 신세기 | 1970 | 뚜아에무아 /약속 | 뚜아에무아 | 아침에 보는 메리 |
| 신세기 | 1970 | 약속/길은 멀어도 | 뚜아에 무아 | 제네파 쥬네파 |
| 신세기 | 1970 | 정민섭 작곡집 양미란/ 달콤하고 상냥하게 | 양미란 | 누구를 믿고 살란 말입니까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안젤라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고향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슬픔을 기타에 실어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옛 사랑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그리운 시냇가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잊지 못할 이야기 |
| 신세기 | 1970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서유석 | 끝 없는 사랑 |
| 오아시스 | 1970 | 스잔나/ 후회 | 유미리 | 스잔나 |
| 오아시스 | 1970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위키리 | 징글벨 |
| 오아시스 | 1970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한명숙 | 그맑고 환한 밤 |
| 오아시스 | 1970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안길웅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 오아시스 | 1970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황철 | 고요한 밤 |
| 오아시스 | 1970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박형준 | 화이트 크리스마스 |
| 오아시스 | 1970 | 고요한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 금호동 | Auld Lang Syne |
| 오아시스 | 1970 |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너무합니다 | 김상희 | 낙엽따라 왜 갔나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빗방울 떨어지네 - 김상희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스잔나 - 유미리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타임 - 김욱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검은 고양이 - 고선희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갈색눈동자 - 서수남 현혜정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지혜의 말씀 - 김욱 |
| 오아시스 | 1970 | 오아시스 팝송 특집 1집 | various artist | 꿈 속에도 못 잊어 - 김하정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캣 | 허전한 가슴 (todo pasara) |

| | | | | |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켓 | 쿠쿠루 쿠쿠 파로마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켓 | 로미오와 줄리엣 (a time for us)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켓 | 관다나 메라 (guantana mera)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켓 | 사랑의 역사 (historia de un amor)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켓 | 정열의 마카레나 (La macarena)나 |
| 오아시스 | 1970 | 허전한 마음/ 해변의 연인 | 김치켓 | 검은 상처의 부르스 |
| 지구 | 1970 | 검은 고양이 네로/ 닉키 닉키 닉키 | 박혜령 | 검은 고양이 네로 |
| 지구 | 1970 | 덜라일라 (김인배 편곡집 ) | 박주희 | 사랑은 기차를 타고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웨딩케익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하얀손수건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to know you is to live you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빗속을 울며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축제의 노래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에델바이스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낙엽 |
| 지구 | 1970 | 트윈폴리오 I love you | 트윈폴리오 | 회상의 노래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사랑한다 말해주오 (say you love me )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날으는 새처럼 (el condor pasa)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마리아 에레나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너와 나의 집 (micasa sucasa)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세월time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선데이 모닝 Sunday morning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이별의 카니발 manha de canival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 그랜드레코드 | 1971 | 투아에 무아 히트 앨범 2집(그리운 사람끼리/ 너와나의 집) | 투아에무아 | |
| 대한 | 1971 | 블루진 골든히트 1집 | 블루진 | 푸른 눈동자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철새는 날아가고 (el condor pasa)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 (beautiful brown eyes)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서머 와인 (wummer wine)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태양의 파편 (kungsleden)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행복한 시절 (Time)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사랑은 흐르리 (the end)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내 사랑은 언제나 (love me tender) |
| 성음 | 1971 | 상처입은 사랑/행복한 시절 (라나에로스포 1집) | 라나에로스포 | 저주스러운 메리 (proud mary) |
| 성음 | 1971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템페스트 | 나의 연인 (sweet caroline) |
| 성음 | 1971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템페스트 | 떠나간 사람 |

| | | | | |
|---|---|---|---|---|
| 성음 | 1971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템페스트 | 편지 (word's) |
| 성음 | 1971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템페스트 | 신비의 여인 (black magic woman) |
| 성음 | 1971 | 템페스트 히트곡 (내 사랑/님에게) | 템페스트 | 홀리 홀리 (holly holly) |
| 성음 | 1971 | 남에게 물어봐/ 철새의 슬픔 | 마상원,김현 | what a sky (태양의 유혹) |
| 신세기 | 1971 | 못 잊어/ 영에게 | 임선아 | 기다려주오 |
| 신세기 | 1971 | 못 잊어/ 영에게 | 임선아 | 눈물 속에 피는 꽃 |
| 신세기 | 1971 | 못 잊어/ 영에게 | 임선아 | 흐르는 세월 |
| 신세기 | 1971 | 못 잊어/ 영에게 | 임선아 | 밤에 피는 장미 (night of the rose) |
| 신세기 | 1971 | 서유석 스테레오 힛트 앨범 1집 | 서유석 | 다 외국곡 |
| 신세기 | 1971 | 서유석 스테레오 힛트 앨범 1집 | 서유석 |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패티김 | 사랑의 기쁨 (piacer de amor)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패티김 |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luna liena) - santos lange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패티김 | 포에마 탱고 (poe ma)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패티김 | 비밀의 사랑 (secret love) - webster paul fransis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패티김 | 라모나 (lamona)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패티김 | 슈벨트 세레나데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최희준 | 장미의 탱고 (Tango della rose)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최희준 | 산골짝의 등불 (when it's lamplighting time in the )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최희준 | 황홀한 달빛 아래 (magic is the moonlight)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최희준 | 카프리의 섬 (island capri)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최희준 | 오! 쏠레 미오 (oh sole mio) |
| 신세기 | 1971 | 패티김 최희준 애창곡집 | 최희준 | 알로하 오에( ALOHAOE) |
| 신세기 | 1971 | 옛날 생각/ 밤비 (패티김, 황원 스테레오 골든 힛트 앨범 ) | 뚜아에무아 | 마카사 수카사 |
| 오아시스 | 1971 | 나오미의 꿈/ 엄마와 아빠 | 정훈희 | 나오미의 꿈 |
| 오아시스 | 1971 | 나오미의 꿈/ 엄마와 아빠 | 정훈희 | 그대는 내사랑- 키보이스 |
| 오아시스 | 1971 | 나오미의 꿈/ 엄마와 아빠 | 정훈희 | 빗방울 떨어지네 - 김상희 |
| 오아시스 | 1971 | 나오미의 꿈/ 엄마와 아빠 | 정훈희 | 타임 - 김욱 |
| 오아시스 | 1971 | 나오미의 꿈/ 엄마와 아빠 | 정훈희 | 스잔나 - 유미려 |
| 오아시스 | 1971 | 아빠와 엄마 / 너를 너를 | 고선희 | 검은 고양이 |
| 오아시스 | 1971 | 아빠와 엄마 / 너를 너를 | 김상희 | 빗방울 떨어지네 - 김상희 |
| 오아시스 | 1971 | 아빠와 엄마 / 너를 너를 | 유미리 | 스잔나 |
| 오아시스 | 1971 | 아빠와 엄마 / 너를 너를 | 김욱 | 타임 |
| 오아시스 | 1971 | 아빠와 엄마 / 너를 너를 | 서수남 현혜정 | 갈색 눈동자 |
| 오아시스 | 1971 | 추억의 연가/ 무교동에 밤은 깊어 | 김태희 | 사랑하다 싫어지면 |

| | | | | |
|---|---|---|---|---|
| 오아시스 | 1971 | 남자의 마음/ 유학생 | 김성애 | 마음은 짚시 - 정훈희 |
| 오아시스 | 1971 | 오아시스 힛트쏭 선집 6집 | various artist | 러브스토리 - 정훈희 |
| 오아시스 | 1971 | 혼자 있어도/ 사랑이 흐르던 강 | 장계현과 돌풍 | 생각하면- kris kristofferson |
| 오아시스 | 1971 | 모습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 송대관 | 비에 젖은 비둘기 - 멕시코 민요 |
| 오아시스 | 1971 | 남자의 마음/ 유학생 | 김성애 | 정훈희- 마음은 짚시 |
| 오아시스 | 1971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최희준 | 쇼팡의 이별곡 |
| 오아시스 | 1971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최희준 |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
| 오아시스 | 1971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최희준 | 슈벨트 세레나데 |
| 오아시스 | 1971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최희준 | 고별의 노래 |
| 오아시스 | 1971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최희준 | 애수 |
| 오아시스 | 1971 | 엄마/ 쇼팡의 이별곡 - 조영남 | 최희준 | 이 목동아 |
| 오아시스 | 1971 | 나만을 사랑해줘요/ 오빠 | 정훈희 | 나오미의 꿈 |
| 오아시스 | 1971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조영남 | 오솔길 |
| 오아시스 | 1971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조영남 | 딜라일라 |
| 오아시스 | 1971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조영남 | 그날이 오면 |
| 오아시스 | 1971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조영남 | 고향의 푸른잔디-cury putman |
| 오아시스 | 1971 | 어버이의 마음 / 보리밭 | 조영남 | 내생애 단한번만 |
| 오아시스 | 1971 | 사랑하다 싫어지면/ 후회 | 현혜정;서수남 | 정말로 너무해 |
| 유니버샬 | 1971 | 별밤에 부치는 노래 씨리즈 3집 | 김세환 | 구원의 종소리 |
| 유니버샬 | 1971 | 비야비야/ 세상은 요지경 | 서유석 | 세상은 요지경 |
| 유니버샬 | 1971 | 사랑/눈물의 안녕 | 하남궁 | 음악은 흐르는데 |
| 유니버샬 | 1971 | kls 97 양희은 greatest hits | 양희은 | 일곱송이의 수선화 |
| 지구 | 1971 | 내 고향 충청도 | 조영남 | 물레방아 인생 |
| 대한 | 1972 | 임용재 골든 팝송 | 임용재 | 그대를 잊으라면 |
| 대한 | 1972 | 임용재 골든 팝송 | 임용재 | 마주칠 때마다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타박네(I want to see my mother)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행복의 나라로 (to the happy land)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아름다운 것들 (Mary Hamilton)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하늘 (the sky)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친구야(My friend)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빨간 댕기 (scarlet Ribbon)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재벽길 (the unquite grave)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아름다운 사랑 (a beautiful woman)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진주 낭군 (jinjoo nangkun)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강 (the river)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바람 많은 세상 (blowin in the wind) |
| 성음 | 1972 | I want to see my mother | 서유석 | 사모하는 마음 (I do adore her) |

| | | | | |
|---|---|---|---|---|
| 성음 | 1972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봉봉 | the lion sleeps tonight |
| 성음 | 1972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봉봉 | the boxer |
| 성음 | 1972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봉봉 | something |
| 성음 | 1972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봉봉 | my lady |
| 성음 | 1972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봉봉 | an old fashion love song |
| 성음 | 1972 | 봉봉 스테레오 앨범 (사랑의 신비 / 비가 오는데) | 봉봉 | 밤에 피는 장미 (night of the rose) |
| 성음 | 1972 | 물새우는 내고향/ 맹꽁이 타령 | 박재란 | 진주 조개 잡이 |
| 신세기 | 1972 | 하얀 눈길/ 호반에 남긴 사랑 | 키브라더스 | 목이 매여 |
| 오아시스 | 1972 | 별/ 바람이 분다 | 현미 | 바람이분다 |
| 오아시스 | 1972 | 별/ 바람이 분다 | 현미 | 밤안개 |
| 오아시스 | 1972 | 마음의 고향/ 고향친구 | 이영숙 | 정훈희 - 스잔나 |
| 오아시스 | 1972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4집 | 이수미 | 하얀손수건 |
| 오아시스 | 1972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2집 (두고온 고향/ 영화를 만나) | 이수미 | 스카보로우의 추억 (이수만 노래) |
| 오아시스 | 1972 | 마음심 한글자/ 남자가 애태울때 | 조영남 | 기다려주오 (stand by your man)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바블껌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바블껌 | 모두 다 함께 (Let's get together)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바블껌 | 이밤에 (hey tonight)-존휘거티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마일스톤 | 아름다운 갈릴리 (memories of galilee-h,r,palmer)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마일스톤 | 시냇물 (cool water)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마일스톤 | 그린 그린 |
| 오아시스 | 1972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나그네 | 마일스톤 | 해지고 어두워도 (day is done)-피터 야로 |
| 오아시스 | 1972 | 영싸운드 히트 퍼레이드 | 영사운드 | 사랑(love) |
| 오아시스 | 1972 | 영싸운드 히트 퍼레이드 | 영사운드 | 그리운 나의 어머니 (Mamy Blue) |
| 오아시스 | 1972 | 영싸운드 히트 퍼레이드 | 영사운드 | 그대 없는 세상 (without you) |
| 오아시스 | 1972 | 영싸운드 히트 퍼레이드 | 영사운드 |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 오아시스 | 1972 | 진실/ 안개 | 정훈희 | 스잔나 |
| 오아시스 | 1972 | 진실/ 안개 | 정훈희 | 마음은 짚시 |
| 오아시스 | 1972 | 진실/ 안개 | 정훈희 | 나오미의 꿈 |
| 오아시스 | 1972 | 꽃길/ 그사람 | 바블껌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
| 오아시스 | 1972 | 어버이의 마음/ 보리밭 | 조영남 | 오솔길 |
| 오아시스 | 1972 | 어버이의 마음/ 보리밭 | 조영남 | 딜라일라 |
| 오아시스 | 1972 | 어버이의 마음/ 보리밭 | 조영남 | 그날이 오면 |
| 오아시스 | 1972 | 어버이의 마음/ 보리밭 | 조영남 | 내 생에 단 한번만 |
| 오아시스 | 1972 | 어버이의 마음/ 보리밭 | 조영남 | 고향의 푸른잔디-cury putman |
| 오아시스 | 1972 | 갈길은 멀어도/ 박달재 고향 | 김진 | 밤안개 낄때마다 |

| | | | | |
|---|---|---|---|---|
| 오아시스 | 1972 | 사랑의 상처/ get ready | 히식스 | 태양이 질때 |
| 오아시스 | 1972 | 사랑의 상처/ get ready | 히식스 | get ready(아름다운 인형) |
| 오아시스 | 1972 | 사랑의 상처/ get ready | 히식스 | color of my world (사랑의 약속 |
| 오아시스 | 1972 | 고목에 새긴 이름/ 팔벼개 | 서실 | 고향의 푸른 잔디 - 조영남 |
| 오아시스 | 1972 | 꽃길/ 그 사람 | 바블껌 |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
| 오아시스 | 1972 | 마음은 한글자/ 남자가 애태울때 | 조영남 | 기다려주오 (stand by your man) |
| 유니버샬 | 1972 | 이말만 전해주오/ 연가 1972 | 바블껌 | 연가 |
| 지구 | 1972 | 은희 스테레오 선곡 2집 (사랑의 자장가/ 회상) | 은희 | 푸른 들 |
| 지구 | 1972 | 은희 스테레오 일대작 제 2집 1975 | 은희, 최양숙 | 물망초 |
| 지구 | 1972 | 은희 스테레오 선곡 2집 〈사랑의 자장가/회상〉 | 은희 | 사랑의 자장가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밤의 노래 (It's almost tomorrow)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그리워 (missing you)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보고픈 사람 (for the good time)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그리운 옛날 (one of us)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못다한 마음 (quentin's theme)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오늘은 일요일 (singin't the blues)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나를 잊지말아요 (forget me not)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님의 모습 (burning bridges)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고이 간직하려 하오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
| 성음 | 1973 | 호숫가/못다한 마음 | 김세환 | 못 잊어 (I almost lost my mind)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okie from moskougee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lost ove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solitary man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come to my bedside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banks of the ohio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hush a little baby |
| 성음 | 1973 | 윤형주 리사이틀 | 윤형주 | 하얀 손수건 |
| 성음 | 1973 | 첫사랑/황희의 눈물 | 홍민 | 종이배 |
| 성음 | 1973 | 김세환 윤형주 〈호숫가/ 못다한 마음〉 | 김세환 | 그리움 |
| 성음 | 1973 | 이연실 가로등 불빛 아래/ 잃어버린 전설 | 이연실 | 참 사랑 |
| 신세기 | 1973 | 노래는 친구 4집 골든 포크 앨범 4집 | 윤형주 김세환 | 못 잊어 |
| 신세기 | 1973 | 패티김 creates hit 3집 | 패티김 | 바람따라 별따라 |
| 오아시스 | 1973 | 소망/ 개구리 노총각 | 민희라 | 고별 - 홍민 이태리곡 |
| 오아시스 | 1973 | 행복/ 꽃사연 | 민희라 |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 오스트리아 요들 |

| | | | | |
|---|---|---|---|---|
| 오아시스 | 1973 | 행복/ 꽃사연 | 민희라 | 닭의 요들 - 오스트리아 요들 |
| 오아시스 | 1973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이성애 | 기다리는 마음 (Help me make it throughout the night) - Kristofferson Kris |
| 오아시스 | 1973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이성애 | 사랑한다고 말했지 (Super STar) Leon russell, boni bramlete |
| 오아시스 | 1973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이성애 | 하나님 뜻대로 (Let it be) -beatles |
| 오아시스 | 1973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이성애 | 사랑은 추억 속에 (je le vois surton visage) - enrico marcias |
| 오아시스 | 1973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이성애 | 너와 내가 (Until it's time for you to go ) - Buffy Sainte Marie |
| 오아시스 | 1973 | 이성애 디럭스 앨범 | 이성애 | 내사랑 전해다오 (M.D.H 작곡)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아름다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러브 미 투나잇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쏠베지의 노래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굳나잇 마이 베이비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청춘이여 안녕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산골짝의 등불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딜라일라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캔터키 옛집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아이아이아이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꿈길에서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토셀리의 세레나데 |
| 오아시스 | 1973 | 아름다운 일요일/ 딜라일라 | 문정선 | 부루진과 가죽 잠바 |
| 오아시스 | 1973 | 방주연 독집 (헤어져야 하나 /연화) | 방주연 | 고별 - 이태리곡 |
| 오아시스 | 1973 | 진/ 난 못잊어 | 서현진 | 그대 내곁에 |
| 오아시스 | 1973 | 진/ 난 못잊어 | 서현진 | 이별 |
| 오아시스 | 1973 | 진/ 난 못잊어 | 서현진 | 내 마음 모르겠네 |
| 오아시스 | 1973 | 진/ 난 못잊어 | 서현진 | 사랑은 즐거워 (get ready) |
| 오아시스 | 1973 | 진/ 난 못잊어 | 서현진 | 이룰수 없는 꿈 |
| 오아시스 | 1973 | 그날 처음/ 마지막 편지 | 문정선 | 믿을 수 없는 사랑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고독 (wednesday child)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저별과 달은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당신을 따르리 (ben)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내 사랑 ( oh my love)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철 없던 시절 (for the good time)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눈이 내리네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나의 어머니 (mother of mine) |

| | | | | |
|---|---|---|---|---|
| 오아시스 | 1973 | 이수미 독집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 정훈희 | 하얀손수건 |
| 오아시스 | 1973 | 사랑은 일방통행/ 잘 있어요 | 바니걸즈 | 검은 장미 |
| 오아시스 | 1973 | 꽃 이야기/ 말 없는 사랑 | 문정선 | 지중해의 장미 |
| 오아시스 | 1973 | 꽃 이야기/ 말 없는 사랑 | 문정선 | 말없는 사랑 |
| 오아시스 | 1973 | 꽃 이야기/ 말 없는 사랑 | 문정선 | 순진한 마음 |
| 오아시스 | 1973 | 꽃 이야기/ 말 없는 사랑 | 문정선 | 밤이 새도록 |
| 오아시스 | 1973 | 꽃 이야기/ 말 없는 사랑 | 문정선 | 언제 어디서나 |
| 오아시스 | 1973 | 꽃 이야기/ 말 없는 사랑 | 문정선 | 믿을 수 없는 사랑 |
| 오아시스 | 1973 | 어쩌면 좋아/ 능금 | 김소진 | 이현 - 아름다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팝 페스티벌 (당신은 몰라/ 고향초) 4집 | 이수미 | 눈이 내리네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팝 페스티벌 (당신은 몰라/ 고향초) 4집 | 영사운드 | 그대 없는 세상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팝 페스티벌 (당신은 몰라/ 고향초) 4집 | 장미화 | 봄이 오면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팝 페스티벌 (당신은 몰라/ 고향초) 4집 | 조영남 | 내집에 가고 싶네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팝 페스티벌 (당신은 몰라/ 고향초) 4집 | ㅇ성애 | ㄱ다리는 마음 |
| 오아시스 | 1973 | 하얀 박꽃/ 그리움 | 고현아 | 아름다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3 | 하얀 박꽃/ 그리움 | 고현아 | 산비둘기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이성애 | 그 옛날 처럼 carpenter richard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정훈희 | 첫인상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김상희 | 나의어머니 j.bettis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이수미 | 하얀 손수건(white handler chief)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영사운드 | bridge over troubled water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3집) | 최병걸, 안혜경 | 마미 부루 Mamy blue |
| 오아시스 | 1973 | 종소리/ 익살도 좋을시고 | 안미나 | 봄이 오면 (Hello A) |
| 오아시스 | 1973 | 정든새/ 고별 | 홍민 | 고별 |
| 오아시스 | 1973 | 정든새/ 고별 | 김상희 | 나의 어머니 |
| 오아시스 | 1973 | 정든새/ 고별 | 바니 걸즈 | 검은 장미 |
| 오아시스 | 1973 | 정든새/ 고별 | 이성애 | 그 옛날 처럼 carpenter richard (yesterday once more) |
| 오아시스 | 1973 | 잊지마/아름다운 일요일 | 이현 | 아름다운 일요일 (beautiful sunday) |
| 오아시스 | 1973 | 잊지마/아름다운 일요일 | 이현 | 마이웨이 (my way) |
| 오아시스 | 1973 | 잊지마/아름다운 일요일 | 이현 | 춤추는 첫사랑 (Ten guitar's)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3집 | 이성애 | 그 옛날처럼 (Yesterday once more)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3집 | 정훈희 | 첫인상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3집 | 김상희 | 나의 어머니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3집 | 이수미 | 하얀 손수건(white handler chief)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3집 | 영사운드 |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 | | | | |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3집 | 최병걸, 안혜경 | 마미 부루 Mamy blue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바지걸즈 | 행복한 사랑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라나에로스포 | 오솔길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이수미 | 당신을 따르리다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스카보로우의 추억 | 이수만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템페스트 | 차디찬 내마음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정훈희 | 내사랑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이성애 | 하느님 뜻 대로 |
| 오아시스 | 1973 | 오아시스 팝 훼스티발 제 5집 | 정미화 | 너와 내가 |
| 오아시스 | 1973 | 안녕하세요/ 내마음은 풍선 | 장미화 | 너와 내가 (until it's time for you to go ) |
| 오아시스 | 1973 | 안녕하세요/ 내마음은 풍선 | 장미화 | 봄이 오면 (Hello A) |
| 오아시스 | 1973 | 안녕하세요/ 내마음은 풍선 | 장미화 | 내 사랑 벤 (ben) |
| 오아시스 | 1973 | 기억/소꿉친구 | 방은미 | 우리 함께 월쓰를 |
| 오아시스 | 1973 | 기억/소꿉친구 | 서수남과 하청일 | 사랑은 즐거운 것 |
| 오아시스 | 1973 | 기억/소꿉친구 | 이진욱 | 고운 노래를 |
| 오아시스 | 1973 | 기억/소꿉친구 | 차도균 | 낙엽 |
| 오아시스 | 1973 | 기억/소꿉친구 | 차도균 | 잊으려마 |
| 오아시스 | 1973 | 정훈희 귀국 기념음반 | 정훈희 | 당신을 따르리리 |
| 오아시스 | 1973 | 정훈희 귀국 기념음반 | 정훈희 | 내 사랑 |
| 오아시스 | 1973 | 정훈희 귀국 기념음반 | 정훈희 | 사랑(love) |
| 오아시스 | 1973 | 정훈희 귀국 기념음반 | 정훈희 | 밤이 오면 (help me make through the night) |
| 오아시스 | 1973 | 정훈희 귀국 기념음반 | 정훈희 | 첫인상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
| 오아시스 | 1973 | 두 마음/ 그때는 몰랐어요 | 조영남 | 따듯한 손길 |
| 오아시스 | 1973 | 두 마음/ 그때는 몰랐어요 | 이성애 | 사랑한다고 말했지 |
| 오아시스 | 1973 | 두 마음/ 그때는 몰랐어요 | 이현 | 어머니 |
| 오아시스 | 1973 | 두 마음/ 그때는 몰랐어요 | 장미화 | 너와 내가 |
| 오아시스 | 1973 | 오랜세월이라도/ 파랑새 | 조영남 | 내집에 가고 싶네 |
| 오아시스 | 1973 | 잘 있어요/ 애원 | 이현 | 어머니 |
| 오아시스 | 1973 | 잘 있어요/ 애원 | 이현 | 인형의 사랑 |
| 오아시스 | 1973 | 애수/ 어리석은 미련 | 이현 | 사랑이란 이야기 |
| 오아시스 | 1973 | 호숫가의 추억/ 꿈속의 고향 - 길선민 | 이현 | 아름다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3 | 헤어져야 하나/ 연화 | 방주연 | 고별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고독 (wednesday child)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저별과 달은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당신을 따르리 (ben)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내 사랑 ( oh my love)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철없던 시절 (for the good time) |

| | | | | |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눈이 내리네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나의어머니 mother of mine |
| 오아시스 | 1973 |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을 따르리 -이수미 | 이수미 | 하얀손수건 |
| 오아시스 | 1973 | ol -0009 | 최양숙, 김추자, 이숙 | 눈이 내리네 |
| 지구 | 1973 | 패티김 스테레오 greatest hit vol.3 | 패티김 | Adoro |
| 성음 | 1974 | 마음의 날개/ 꿈속의 연인 | 김준 | 그대 맘 다한 사랑 (love me with all your heart) |
| 성음 | 1974 | 마음의 날개/ 꿈속의 연인 | 김준 | 말 없이 안녕 (let's kiss tomorrow good bye) |
| 신세기 | 1974 | 골든 포크 앨범 2집 | 이성애 | 잠발라야 |
| 아세아 | 1974 | 정미조 최신 히트 그사람/언약 | 정미조 |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the river in the pines |
| 아세아 | 1974 | 정미조 최신 히트 그사람/언약 | 정미조 | 사랑아 oh my love |
| 아세아 | 1974 | 정미조 최신 히트 그사람/언약 | 정미조 | 행복했던 시절 (for the good times) |
| 아세아 | 1974 | 정미조 최신 히트 그사람/언약 | 정미조 | |
| 아세아 | 1974 | 정미조 최신 히트 그사람/언약 | 정미조 |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
| 오아시스 | 1974 | 내 마음 나도 몰라/ 손목은 왜 잡아요 | 방주연 | 고별 - 이태리곡 |
| 오아시스 | 1974 | 너를 보내고/ 비와 태양 | 양미란 | 바이바이 베이비 |
| 오아시스 | 1974 | 너를 보내고/ 비와 태양 | 양미란 |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What am I living for? B,B,king) |
| 오아시스 | 1974 | 임이 오신다네/ 고향처녀 | 박영주 | 봄이 오면 (Hello A)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마지막 잎새 | 민희라 | 콜로라도의 달 |
| 오아시스 | 1974 | 지금 바라고 있어요/ 갈길이 멀어 | 하지숙 | 내 고향(Take me Home Country road's) |
| 오아시스 | 1974 | 미소/ 그럼 안녕 | 리리온 | 그대여 안녕 - J.Malgioglio여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유랑길 | 정여진 | 천사의 사랑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유랑길 | 정여진 | 작별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유랑길 | 템페스트 | 어렸던 시절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유랑길 | 이게 사랑이란다 | 라나에로스포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유랑길 | 사랑하는 친구야 | 바니걸즈 |
| 오아시스 | 1974 | 고독/ 유랑길 | 얄라리 얄라 | 바니걸즈 |
| 오아시스 | 1974 | 꽃은 여자/ 반갑습니다. | 이채연 | 사랑은 추억속에 |
| 오아시스 | 1974 | 꽃은 여자/ 반갑습니다. | 이채연 | 하나님 뜻대로 |
| 오아시스 | 1974 | 꽃은 여자/ 반갑습니다. | 이채연 | 눈이내리네 |
| 오아시스 | 1974 | 인어이야기/ 귀향 | 정훈희 | 등대지기- 영국민요 |
| 오아시스 | 1974 | 인어이야기/ 귀향 | 정훈희 | 비가 내리면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바니걸즈 | 사랑하는 친구야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바니걸즈 | 얄라리얄라 |

| | | | | |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박경희 | 그대여 안녕 - J.Malgioglio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펄씨스터즈 | 목이메어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유상봉과 템페스트 | ㅇ렸던 시절 (Me and you and dog named boo)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라나에로스포 | 이게 사랑이란다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포크 페스티벌 7집 (사랑하는 친구야/ 목메어) | 이수미 | 눈이 내리네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서수남과 하청일 | 고향의 언덕 (sweet country girl)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서수남과 하청일 | 예쁜 소녀 (darcy felllow)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서수남과 하청일 | 초가집 할아버지(cobin on the hill)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서수남 | 수다쟁이 (cyaketvyak)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서수남과 하청일 | 엄마와 아빠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독집 | 서수남과 하청일 | 사랑이란 무엇일까 |
| 오아시스 | 1974 | 못잊을 뿐입니다/ 생명 | 김상희 | 나의 어머니 (mother of mine) |
| 오아시스 | 1974 | 세월아/ 봄이 오는 길 | 박인희 | 나의 소망 (top of the world) - 카펜터스 |
| 오아시스 | 1974 | 세월아/ 봄이 오는 길 | 박인희 | 알로하오에 (aloha oe) |
| 오아시스 | 1974 | 세월아/ 봄이 오는 길 | 박인희 | 내 사랑 ( oh my love)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한번 만나줘요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즐거운 가족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빙글빙글 돌아라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아침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팔도유람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동물농장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정말로 너무해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산이 더 좋아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잊지 못해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웃는 얼굴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사랑의 찬가 |
| 오아시스 | 1974 | 서수남과 하청일 한번만 만나줘요/ 정말로 너무해 | 서수남과 하청일 | 흰눈이 오네 |
| 오아시스 | 1974 | 난 몰라 / 차디찬 내마음 | 임수정 | 차디찬 내마음 (break my mind)- 템페스트 |
| 오아시스 | 1974 | 난 몰라 / 차디찬 내마음 | 임수정 | 기다리는 마음 - 이성애 |
| 오아시스 | 1974 | 겨울노래 모음 (하얀밤 하얀눈/ 첫눈) | various artist | 눈이 내리네 이수미 |
| 오아시스 | 1974 | 겨울노래 모음 (하얀밤 하얀눈/ 첫눈) | various artist | 즐거운 시간 서수남과 현혜정 |
| 오아시스 | 1974 | 겨울노래 모음 (하얀밤 하얀눈/ 첫눈) | various artist | 흰눈이 오네 서수남과 하청일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바니걸즈 | 워털루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바니걸즈 | 그대를 보내고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김혜숙 | 즐거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템페스트 | 기다리는 마음 |

| | | | | |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8집) | 이성애 | 하나님 뜻대로 |
| 오아시스 | 1974 | 석별/사랑을 넘치게 하리 | 홍민 | 고별 |
| 오아시스 | 1974 | 돈벌러 가는길/ 둥글둥글 한세상 | 허림 | 드볼작 - 귀향 |
| 오아시스 | 1974 | 안개 속의 초혼/ 그리운데 | 이수미 | 바니걸즈 개구리 노총각 |
| 오아시스 | 1974 | 꿈 나그네/ 좋구나 | 방주연 | 소 (Donna donna) |
| 오아시스 | 1974 | 꿈 나그네/ 좋구나 | 방주연 | 라라라 |
| 오아시스 | 1974 | 꿈 나그네/ 좋구나 | 방주연 | 그리운 그 노래 (Yesterday once more) |
| 오아시스 | 1974 | 꿈 나그네/ 좋구나 | 방주연 | 고향(wednesday child) |
| 오아시스 | 1974 | 꿈 나그네/ 좋구나 | 방주연 | 멍청이 *You're so vain |
| 오아시스 | 1974 | 누굴 기다리나/ 두 눈을 감아버렸네 | 윤해리 | 박경희 - 그대여 안녕 |
| 오아시스 | 1974 | 누굴 기다리나/ 두 눈을 감아버렸네 | 윤해리 | 템페스트 - 파도 |
| 오아시스 | 1974 | 누굴 기다리나/ 두 눈을 감아버렸네 | 윤해리 | 이수미- 내곁에 있어주 |
| 오아시스 | 1974 | 누굴 기다리나/ 두 눈을 감아버렸네 | 윤해리 | 이현 - 똑같애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즐거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얄라리 얄라 어린 시절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사랑하는 친구야 (we'll be one by two today)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행복한 사랑 (Top of the world)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기다리는 마음 (Help me make it throughout the night)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당신을 따르리 (ben) |
| 오아시스 | 1974 | 둘이가 둘이가/ 노랑말 타고 | 김혜숙 | 아침의 찬가 the morning after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어린 시절 (me and you and dog named boo)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love me tender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외로운 사나미 (solitary man)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남자가 사랑할때 (when a man loves a woman)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내 마음에 아픔을 (baby don't get hooked on me)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추억 (most of all)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그대는 어디에 (what now my love) |
| 오아시스 | 1974 | 파도/ 내 곁에 있어주 (템페스트 독집) | 템페스트 | 그리운 사람 (I am so lonesome I could cry)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바니걸즈 | 사랑하는 친구야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바니걸즈 | 얄라리 얄라 playground on my mined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박경희 | 그대여 안녕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펄 씨스터즈 | 목이메어 |

| | | | | |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라나에로스포 | 이게 사랑이란다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이수미 | 눈이내리네 |
| 오아시스 | 1974 | 오아시스 팝 페스티벌 (7집) | 유상봉과 템페스트 | 어렸던 시절 (me and you and dog named boo) |
| 오아시스 | 1974 | 자기마음/ 끝 없는 사랑 | 이수지 | 눈이 오는 겨울밤 (top of the world) |
| 오아시스 | 1974 | 자기마음/ 끝 없는 사랑 | 이수지 | 임의 그림자 내사랑 코리나 (love me tender & I love corrlina) |
| 오아시스 | 1974 | 자기마음/ 끝 없는 사랑 | 이수지 | 언제나 외로워 (quen sera) |
| 오아시스 | 1974 | 자기마음/ 끝 없는 사랑 | 이수지 | 헬로아 (hello-a) |
| 오아시스 | 1974 | 자기마음/ 끝 없는 사랑 | 이수지 | 외로운 밤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
| 오아시스 | 1974 | 난몰라/ 차디찬 내마음 - 임수정 | 템페스트 | 차디찬 내마음 |
| 오아시스 | 1974 | 난몰라/ 차디찬 내마음 - 임수정 | 이성애 | 기다리는 마음 |
| 오아시스 | 1974 | 세월아/ 봄이 오는 길 | 박인희 | 내 사랑아 |
| 오아시스 | 1974 | 어린시절/우리함께 | 펄씨스터즈 | 비 |
| 오아시스 | 1974 | 젊었다/잘있어요 | 투코리언즈 | 언덕에 올라 |
| 유니버샬 | 1974 | YOUNG FAMILY SERIES (2집) | 석찬 | 황혼 |
| 지구 | 1974 | 박인희 새노래 모음 하얀 조가비/ 재회 (1974) | 박인희 | 사랑의 휴일 |
| 지구 | 1974 | 박인희 새노래 모음 하얀 조가비/ 재회 (1974) | 박인희 | 비야비야 |
| 지구 | 1974 | 울적한 마리아 / 비밀 | 영주와 은주, 최양숙 | 울적한 마리아 |
| 지구 | 1974 | 에니의 노래/ 멜러디 | 원 플러스 원 | 애니의 노래 |
| 지구 | 1974 | 한마디만 말해주/ 만날때와 헤어질때 | 루비나 | 만날때와 헤어질때 |
| 서라벌 | 1975 | 등불/달무리 | 영사운드 | 노래 속에 살리라 (I shall sing) |
| 서라벌 | 1975 | 등불/달무리 | 영사운드 | 님을 찾아서 (you belong to my heart) |
| 서라벌 | 1975 | 등불/달무리 | 영사운드 | 그날이 오면 (golen slamber) |
| 성음 | 1975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new horizon | mr.bojangles |
| 성음 | 1975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new horizon | after the sunset |
| 성음 | 1975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new horizon | green green |
| 성음 | 1975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new horizon | 행복의 나라 |
| 성음 | 1975 | 사랑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자 | new horizon | 토요일밤 |
| 신세기 | 1975 | 골든 포크 앨범 3 집 | 현경과 영애 | 참 예쁘네요 |
| 신세기 | 1975 | 서유석 스테레오 힛츠 | 사월과 오월, 서유석 | 철날때도 됐지 |
| 아세아 | 1975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차중락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생각을 말자 - G. Cinquetti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꽃의 의미 s.adamo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내 곁에 s. adamo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잊으리 잊으리라 d.robertson |

| | | | | |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두손 모아 빕니다 n.Mouskouri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어떻게 해야 좋을 까 c.aznabour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언제 또 만나랴 S adamo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파파 - p. Anka |
| 오아시스 | 1975 | 생각을 말자/ 어떻게 해야 좋을 까 | 이수미 (이수미 애청곡 모음) | 알수 없는 마음 - h.greenfield |
| 오아시스 | 1975 | 고향은 멀어도/ 왜몰랐을까 | 이수미 | 아버지 (PAPA) |
| 오아시스 | 1975 | 고향은 멀어도/ 왜몰랐을까 | 이수미 | 생각을 말자 - G. Cinquetti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라무는 나의 친구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고향생각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가을과 겨울 사이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오 마이마이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워터루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사랑하는 친구야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얄라리 얄라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검은 장미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아침의 찬가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너와 나의 사랑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딩딩동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여름날의 바닷가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먼 산울림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하니하니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그대를 보내고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행복한 사랑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노란타이의 사나이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끝없는 사랑의 노래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oh mymy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we'll be one by two today 사랑하는 친구야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얄라리 얄라 playground on my mined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검은 장미 - la rosa nero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아침의 찬가 the morning after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먼 산울림 number one heel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honey honey 하니하니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그대를 보내고 mama mia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행복한 사랑 (Top of the world)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노란타이의 사나이 tie a yellow ribbon around |

| | | | | |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팝송 하이라이트 | 바니걸즈 | 끝없는 사랑의 노래 never ending song of love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이수미- 아버지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바니걸즈 - 워털루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이정애 - 기다리는 마음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봄이 오면 (Hello A) - 장미화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스잔나 정훈희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빗방울 떨어지네 - 김상희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오라오라오라-문정선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즐거운 일요일 - 김혜숙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고별 - 홍민 이태리곡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내 집에 가고 싶네 -조영남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1943년 3월 4일생 -이용복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수다쟁이 - 서수남 |
| 오아시스 | 1975 | 20인의 폭송 팝송 1집 | various artist | 푸른 창공에 로프를 던져라 (I'm Casting My lasso)-김홍철 |
| 오아시스 | 1975 | 돌아갑니다/ 부탁 | 이범진 | 그날이오면 |
| 오아시스 | 1975 | 돌아갑니다/ 부탁 | 이수미 | 내곁에 있어주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켄터케 옛집 - 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희망의 속삭임 - 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귀향 - 독일 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산골짝의 등불- 영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노래는 즐겁다 - 독일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코로라도의 달밤- 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메기의 추억 - 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후니쿨리 후니쿨라-이태리 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클레멘타인-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금발의 제니-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여수-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올드블랙죠-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바니걸즈 애창곡 | 바니걸즈 | 망향-미국민요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징글벨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고요한밤 거룩한밤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축복 속의 크리스마스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화이트 크리스마스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루돌프 사슴코 |

| | | | | |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dixieland)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은종 (silver bell) |
| 오아시스 | 1975 | 김상희 christmas carol | 김상희 | 올랭 사인 (auld lang syne) |
| 오아시스 | 1975 | 그래/ 생각합니다 | 장미화 | 봄이 오면 (Hello A) |
| 오아시스 | 1975 | 그래/ 생각합니다 | 장미화 | 내 사랑 벤 |
| 오아시스 | 1975 | 부탁해요/사랑만은 돌려줘요 | 방주연 | 외면 |
| 오아시스 | 1975 | 그대를 따르리/ 다시 한번 | 김혜숙 | 즐거운 일요일 |
| 오아시스 | 1975 | 그대를 따르리/ 다시 한번 | 김혜숙 | 사랑하는 친구야 |
| 오아시스 | 1975 | 그대를 따르리/ 다시 한번 | 김혜숙 | 당신을 따르리 |
| 오아시스 | 1975 | 그대를 따르리/ 다시 한번 | 김혜숙 | 아침의찬가 |
| 오아시스 | 1975 | 그대를 따르리/ 다시 한번 | 김혜숙 | 행복한 사랑 |
| 오아시스 | 1975 | 그대를 따르리/ 다시 한번 | 김혜숙 | 사랑한다고 말했지 (Super STar) Leon russell, boni bramlete |
| 오아시스 | 1975 | 너는 가도/봄이 오는길 | 이숙 | 그대여 안녕 |
| 지구 | 1975 | 두 남편/저기 저소리 | 산이슬 | 마지막 남은 것 |
| 지구 | 1975 | 윤연선 매혹의 노래모음 | 윤연선 | 꽃피는 마을 |
| 지구 | 1975 | 윤연선 매혹의 노래모음 | 윤연선, 오세은 | 고아 |
| 지구 | 1975 | 이용복 그대여 안녕/비가 좋아 | 이성애 | 이별의 국제공항 |
| 현대 레코드 | 1975 |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상록수 | 유영춘과 영사운드 |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 서라벌 | 1976 | 고운 노래 모음 | 산이슬 | 사랑의 오솔길 |
| 서라벌 | 1976 | 고운 노래 모음 | 산이슬 | 그리운님 |
| 서라벌 | 1976 | 고운 노래 모음 | 산이슬 | 손에 손을 잡고 |
| 오아시스 | 1976 | 여름밤의 추억/ 이제는 안녕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오아시스 | 1976 | 여름밤의 추억/ 이제는 안녕 | 김상희 | 이제는 안녕 (Graduation) |
| 오아시스 | 1976 | 여름밤의 추억/ 이제는 안녕 | 김상희 | 아버지 (PAPA) |
| 오아시스 | 1976 | 무지개 뜨면/ 망향 | 문정선 | 사랑의 향기 |
| 오아시스 | 1976 | 무지개 뜨면/ 망향 | 문정선 | 얼싸 얼싸 |
| 오아시스 | 1976 | 무지개 뜨면/ 망향 | 문정선 | 오라오라오라 |
| 오아시스 | 1976 | 무지개 뜨면/ 망향 | 문정선 | 노래는 하늘 높이 |
| 오아시스 | 1976 | 염려 마세요/ 겨울바다 | 템페스트 | 잊게 해주오 |
| 오아시스 | 1976 | 염려 마세요/ 겨울바다 | 유경 | 러브스토리 |
| 오아시스 | 1976 | 염려 마세요/ 겨울바다 | 유경 | 스잔나 |
| 오아시스 | 1976 | 염려 마세요/ 겨울바다 | 박우철 | 잊지마오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친구의 이별 - 스페인 민요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메기의 추억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산골짝의 등불-영국민요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후니쿨리후니쿨라-미국민요 |

| | | | | |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사랑의 기쁨 - giovanni martini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라팔로마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소팽의 이별곡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먼 산타루치아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 |
| 오아시스 | 1976 | 문정선 애창곡 20곡집 | 문정선 | 다뉴브강 물결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7집) | 이승연 | 비에 젖은 비둘기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7집)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7집) | 김홍철 | 테네시 요들 폴카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7집) | 허림 | 별 이야기 - smith tomas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4집) | 김상희 | 아버지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4집) | 바니걸즈 | 라무는 내친구 |
| 오아시스 | 1976 | 20인의 히트송 (4집) | 김홍철 | 곱고 고운 무지개 |
| 오아시스 | 1976 | 그날을 위해/ 이제는 안녕 | 이승연 | 이제는 안녕 (영화 사랑의 스잔나 중에서) |
| 오아시스 | 1976 | 그날을 위해/ 이제는 안녕 | 이승연 | 노래하는 곳에 |
| 오아시스 | 1976 | 그날을 위해/ 이제는 안녕 | 이승연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오아시스 | 1976 | 뱃고동/정주고 간 사람 | 허성희 | 럭키 모닝 |
| 오아시스 | 1976 | 뱃고동/정주고 간 사람 | 허성희 | 경상도 청년 |
| 오아시스 | 1976 | 뱃고동/정주고 간 사람 | 허성희 | 가시나요 |
| 오아시스 | 1976 | 뱃고동/정주고 간 사람 | 허성희 | 당신이 오신다기에 |
| 오아시스 | 1976 | 뱃고동/정주고 간 사람 | 허성희 | 임금님의 첫사랑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테네시 요들 폴카-elton britt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달려라 나의 마차여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알프스 목장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꿈의 요들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추억과 파도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당신은 나의 맘을 알거야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목동의 찬가 -스위스 민요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홍하의 골짜기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내 마음의 꽃 - 독일민요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할아버지 시계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너 또한 좋아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그냥 걸어갑시다 (In the early morning rain)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저별은 빛나고 (as Himmel stout es sternlis nacht) 스위스 민요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미국 민요 |

| | | | | |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예쁜 아기곰 - 독일 민요 |
| 오아시스 | 1976 | 김홍철 요들송 20곡집 | 김홍철 | 사랑스런 에델 바이스 |
| 오아시스 | 1976 | 20인 히트송 (4집) | 김상희 | ㅇ버지 |
| 오아시스 | 1976 | 20인 히트송 (4집) | 바니걸즈 | 라무는 내친구 |
| 오아시스 | 1976 | 20인 히트송 (4집) | 김홍철 | 곱고 고운 무지개 |
| 유니버샬 | 1976 | 하남석 1집 (막차로 떠난 여인/ 낙엽의 속삭임) | 하남석 | 바람에 실려 |
| 서라벌 | 1977 | 유준 신곡모음(가난한 마음/ 하얀 미소) | 유준 | 손길 (미국 찬송가) |
| 서라벌 | 1977 | 유준 신곡모음(가난한 마음/ 하얀 미소) | 유준 | 작은 내사랑 (love story) |
| 서라벌 | 1977 | 유준 신곡모음(가난한 마음/ 하얀 미소) | 유준 | 마음의 길 (susanna) |
| 오아시스 | 1977 | 서수남과 하청일 4집(구름/ 겨울바람) | 서수남과 하청일 | 알프스의 목장 |
| 오아시스 | 1977 | 서수남과 하청일 4집(구름/ 겨울바람) | 서수남과 하청일 | 할아버지 시계 |
| 오아시스 | 1977 | 서수남과 하청일 4집(구름/ 겨울바람) | 서수남과 하청일 | 브리넬리 |
| 오아시스 | 1977 | 서수남과 하청일 4집(구름/ 겨울바람) | 서수남과 하청일 | 로렐라이 - 독일 민요 |
| 오아시스 | 1977 | 두손을 잡아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 옥희 | 노래하는 곳에 |
| 오아시스 | 1977 | 두손을 잡아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 옥희 | 사랑의 이야기 - 모리스 알버트 (멕시코)- morris albert |
| 오아시스 | 1977 | 나그네/ 사랑의 나무 | 윤복희 | 노래하는 곳에 |
| 오아시스 | 1977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진미령 | 사랑을 느낄 때 - 타미 (I feel love) |
| 오아시스 | 1977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진미령 | 이제는 안녕 |
| 오아시스 | 1977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진미령 | 비에젖은 비둘기(Paloma Blanca) |
| 오아시스 | 1977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진미령 | 그날을 위해 (영화 (나자리노) 주제가 soleado)) |
| 오아시스 | 1977 | 말해줘요 / 사랑을 느낄때 | 진미령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오아시스 | 1977 |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우리들은 고교생 | 김상월 | 이제는 안녕 |
| 오아시스 | 1977 | 그대 내곁에 있으면/ 청춘 만세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오아시스 | 1977 | 그대 내곁에 있으면/ 청춘 만세 | 김홍철 | 테네시 요들 폴카 |
| 오아시스 | 1977 | 그대 내곁에 있으면/ 청춘 만세 | 허림 | 별 이야기 |
| 오아시스 | 1977 | 그대 내곁에 있으면/ 청춘 만세 | 정훈희 | 이제는 안녕 (영화 사랑의 스잔나 중에서) |
| 오아시스 | 1977 | 파도에 밀려간 옛사랑/ 청춘 만세 | 정훈희 | 이제는 안녕 |
| 오아시스 | 1977 | 파도에 밀려간 옛사랑/ 청춘 만세 | 정훈희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오아시스 | 1977 | 친구야 친구야/ 어머니와 고향 | 현이와 덕이 | 둥글 둥글 한 세상 -현이와 덕이 |
| 오아시스 | 1977 | 친구야 친구야/ 어머니와 고향 | 현이와 덕이 | 저 꽃속에 찬란한 빛이 -박경희 |
| 오아시스 | 1977 | 친구야 친구야/ 어머니와 고향 | 현이와 덕이 | 천리 먼 길 - 박우철 |
| 오아시스 | 1977 | 친구야 친구야/ 어머니와 고향 | 현이와 덕이 | 쿨 씨스터즈 - 왜그랬을 까 |
| 오아시스 | 1977 | 친구야 친구야/ 어머니와 고향 | 현이와 덕이 | 인생역 - 박일남 |
| 오아시스 | 1977 | 주룩비/ 즐거운 아리랑 | 김상희 | 아버지 |
| 오아시스 | 1977 | 주룩비/ 즐거운 아리랑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 | | | |
|---|---|---|---|---|
| 오아시스 | 1977 | 주룩비/ 즐거운 아리랑 | 김상희 | 이제는 안녕 (영화 사랑의 스잔나 중에서) |
| 오아시스 | 1977 | 우리 다시 만나자/ 이제 그만 (조은성 독집) | 조은성 |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
| 오아시스 | 1977 | 77년도 대학가에서 애창되는 히트송 모음집 | various artist | 등대지기 - 허림 |
| 오아시스 | 1977 | 78년도 대학가에서 애창되는 히트송 모음집 | various artist | 클레멘타인 - 바니걸즈 |
| 오아시스 | 1977 | 79년도 대학가에서 애창되는 히트송 모음집 | various artist | 이별의 노래 - 문정선 |
| 오아시스 | 1977 | 80년도 대학가에서 애창되는 히트송 모음집 | various artist | 고향생각- 홍민 -스페인민요 |
| 오아시스 | 1977 | 이세옥 독집(사슴의 향수/ 돌아서서 말할까) | 이세옥 | 그날을 위해 |
| 오아시스 | 1977 | 이세옥 독집(사슴의 향수/ 돌아서서 말할까) | 이세옥 | 아버지 |
| 오아시스 | 1977 | 이세옥 독집(사슴의 향수/ 돌아서서 말할까) | 이세옥 | 비에 젖은 비둘기 |
| 오아시스 | 1977 | 정든교실/ 추억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
| 오아시스 | 1977 | 정든교실/ 추억 | 김홍철 | 테네시 요들 폴카 |
| 기록 없음 | 1977 | 제 1회 MBC 대학가요제 (2집) | 이명우 | 가시리 |
| 서라벌 | 1978 | 서러워 말아요/미소 | 김현아 | 꿈을 꾸리 |
| 성음 | 1978 | 조영남 골든 디럭스 20 제비/ 내 고향 충청도 | 조영남 | 내 고향 충청도 |
| 아세아 | 1978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한명숙 | 그대여말하여라 |
| 아세아 | 1978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한명숙 | 갈색에 눈동자 (Brown eyes) |
| 아세아 | 1978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한명숙 | 사랑의 목소리 (the voice of love) |
| 아세아 | 1978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한명숙 | 눈물의 왈츠 (i went to your wedding) |
| 아세아 | 1978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한명숙 | 아! 나는 외로워 (oh! lonesome me) |
| 아세아 | 1978 | 그대여 말하여라/ 밤에 눈팔지 마라 (한명숙 힛트앨범) | 한명숙 | 내가 사랑을 한다면 (What am I supposed to do) |
| 오아시스 | 1978 | 김상희 독집 | 김상희 | 이제는 안녕(영화 사랑의 스잔나 주제가) |
| 오아시스 | 1978 | 김상희 독집 | 김상희 | 아버지 (PAPA) |
| 오아시스 | 1978 | 사랑은 아직/비누방울 | 장진경 | 이제는 안녕 (영화 사랑의 스잔나 중에서) |
| 오아시스 | 1978 | 사랑은 아직/비누방울 | 장진경 | 이 생명다하도록 (영화 사랑의 스잔나) |
| 오아시스 | 1978 | 사랑은 아직/비누방울 | 장진경 | 행복한 사랑 (Top of the world)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징글벨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화이트 크리스마스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고요한 밤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참 반가운 신도여 o!coem all ye faithful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드럼치는 소년 little drummer boy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크리스마스 폴카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 오시네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루돌프 사슴코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은종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첫번 크리스마스 first noel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거룩한 밤 oh holy night |

| | | | | |
|---|---|---|---|---|
| 오아시스 | 1978 | 별셋 캐럴 독집 | 별셋 | 징글벨 락 |
| 오아시스 | 1978 | 잊었다 하리 / 영일만 처녀 | 이용복 | 노래하는 곳에 |
| 오아시스 | 1978 | 잊었다 하리 / 영일만 처녀 | 이용복 | 그날을 위해 |
| 오아시스 | 1978 | 잊었다 하리 / 영일만 처녀 | 이용복 | 비에 젖은 비둘기 |
| 오아시스 | 1978 | 잊었다 하리 / 영일만 처녀 | 이용복 | 여름밤의 추억 |
| 오아시스 | 1978 | 나그네 여인/ 파란마음 | 도희 | 그날을 위해 |
| 오아시스 | 1978 | 나그네 여인/ 파란마음 | 하수영 | 이제는 안녕 |
| 오아시스 | 1978 | 20인 히트송 (7집) | 이승연 | 비에 젖은 비둘기 - 멕시코 민요 |
| 오아시스 | 1978 | 20인 히트송 (7집) | 김상희 | 여름밤의 추억 |
| 오아시스 | 1978 | 20인 히트송 (7집) | 김홍철 | 테네시 요들폴카 |
| 오아시스 | 1978 | 20인 히트송 (7집) | 허림 | 별이야기-smith tomas |
| 아세아 | 1979 | 남의 속도 모르고/ 또 다시 만난다면 | 태우 | 서글픈 사랑 |
| 아세아 | 1979 | 생각나누나/ 고향의 꽃 | 릴리 시스터즈 | 낚시터의 즐거움 |
| 아세아 | 1979 | 생각나누나/ 고향의 꽃 | 릴리 시스터즈 | 짝사랑 |
| 아세아 | 1979 | 생각나누나/ 고향의 꽃 | 김병수 | 아버지 (Papa) |
| 오아시스 | 1979 | 나동민 작품집(꽃분이/ 잠못이루는 이밤을) | 남궁옥분 | 보고픈 내친구(Dear John) Chat atkins |
| 오아시스 | 1979 | 나동민 작품집(꽃분이/ 잠못이루는 이밤을) | 남궁옥분 | 돌아로아 내 아들아 (back home again)- John Denver |
| 오아시스 | 1979 | 정윤선 독집 | 정윤선 | 사랑해요 (In the navy - J. Morali) |
| 오아시스 | 1979 | 정윤선 독집 | 정윤선 | Y.M.C.A |
| 오아시스 | 1979 | 정윤선 독집 | 정윤선 | You are my everything - 나의 사랑아 |
| 오아시스 | 1979 | 정윤선 독집 | 정윤선 | Pardonne MOI- 용서하세요 A.Goraguer |
| 오아시스 | 1979 | 하루 이틀 사흘/ 밤에 쓰는 편지 - 박경희독집 | 박경희 | 기다리는 마음 (Help me make it throughout the night) |
| 오아시스 | 1979 | 서울역/ 꿈 소녀 | 조경수 | YMCA |
| 오아시스 | 1979 | 서울역/ 꿈 소녀 | 김재종 | 아들 |
| 오아시스 | 1979 | 그사람 목석/ 오해는 말아요 | 박지영 | 그 사람 목석 (Hot stuff - Geogio Moroder) |
| 오아시스 | 1979 | 그사람 목석/ 오해는 말아요 | 박지영 | 오해는 말아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Gloria Caldwell |
| 오아시스 | 1979 | 알게 될 거야/ 보고픈 내 친구 | 남궁옥분 | 보고픈 내친구 |
| 오아시스 | 1979 | 알게 될 거야/ 보고픈 내 친구 | 남궁옥분 | 돌아로아 내 아들아 (back home again)- John Denver |
| 오아시스 | 1979 | 알게 될 거야/ 보고픈 내 친구 | 남궁옥분 | 지난일 |
| 오아시스 | 1979 | 별속에 하얀 꿈/ 소망 | 김수나 | Grease-사랑해요 |
| 오아시스 | 1979 | 별속에 하얀 꿈/ 소망 | 김수나 | 멋진 춤을 춰요 Derlard Edward |

| | | | | |
|---|---|---|---|---|
| 오아시스 | 1979 | 별속에 하얀 꿈/ 소망 | 김수나 | 사랑해요 (In the navy - J. Morali) |
| 오아시스 | 1979 | 고목나무/ 왜 몰랐을 까 | 장욱조와 고인돌 | 아들(Anank)- Aguilar Freddie |
| 오아시스 | 1979 | 수줍은 마음/ 꽃길 걸어가는 사랑 | 김해리 | 시바의 여왕 - 문정선 |
| 오아시스 | 1979 | 행복한 아내/ 추억이 흐르는 강 | 유양도 | 용서하세요 Pardonne Moi |
| 오아시스 | 1979 | 작은연인들/ 야생화 | 김세화 | 야생화 |
| 오아시스 | 1979 | 조경수 독집(행복이란/ 아들 (anak) | 조경수 | 아들(Anank)- Aguilar Freddie |
| 오아시스 | 1979 | 행복이란/ 아들 | 조경수 | 아들(Anank)- Aguilar Freddie |
| 오아시스 | 1979 | 잊었다 하리/ 아들 | 이용복 | 아들(Anank)- Aguilar Freddie |
| 오아시스 | 1979 | 잊었다 하리/ 아들 | 이용복 | 노래하는 곳에 |
| 오아시스 | 1979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조경수 | 징기스칸 (genghis khan-Ralph Siegul |
| 오아시스 | 1979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조경수 | 내 맘 속엔 당신이 three times a lady -commodores |
| 오아시스 | 1979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조경수 | YMCA |
| 오아시스 | 1979 | 머물고 싶지만/ 징기스칸 | 조경수 | 잊어야 할 사람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 E. John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Y.M.C.A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추억을 두고 love you till I die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어제와 내일 C'est la vie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이제부터 행복이 and I love you so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처음그날처럼 Adoro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사랑은 위대한 것 Love story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빨간 장미 sorry I am a lady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눈이 내리네 tombe la neige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말없이 걸으리라 my way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마음은 나비처럼 free as the wind |
| 오아시스 | 1979 | 바니걸즈 YMCA. Sorry I am a lady | 바니걸즈 | 그 옛날처럼 yesterday once more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저산에 저녁 놀 지면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저녁 노을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즐거운 목동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숲의 노래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휘디랄라라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하늘가에 눈 덮힌 산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웨기스 산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콜룽베의 목제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알프스의 축제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아름다운 엠멘탈 |

| | | | | |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오두막 집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고향에서 |
| 오아시스 | 1979 | ACH, WIE CHURZEN USI TAGE (저산에 저녁놀 지면) | 김홍철 | 알프스 혼 |
| 오아시스 | 1979 | 내가 좋아하는 이/ 아!그리워라 | 주정이 | 귀향 |
| 오아시스 | 1979 | 밤차로 갑니다/ 기다리는 나 | 김상희 | 이제는 안녕 |
| 오아시스 | 1979 | 밤차로 갑니다/ 기다리는 나 | 김상희 | 아버지 |
| 오아시스 | 1979 | 잊지는 못할거야/ 아들 (anak) | 정윤선 | 아들(anak) |
| 오아시스 | 1980 | 못잊어/ 지난날 이야기 | 이수미 | 아버지 (PAPA) |
| 오아시스 | 1980 | 진미령 독집(지난날의 이야기/ 아빠 사랑) | 진미령 | 사랑을 느낄 때 - 타미 |
| 오아시스 | 1980 | 진미령 독집(지난날의 이야기/ 아빠 사랑) | 진미령 | 비에 젖은 비둘기 - 멕시코 밀요 |
| 오아시스 | 1980 | 진미령 독집(지난날의 이야기/ 아빠 사랑) | 진미령 | 이 생명 다하도록 |
| 오아시스 | 1980 | 조용필 리사이틀 | 조용필 | 님이여 - 외국곡 |
| 오아시스 | 1980 | 나 이제 여기에/흰새 | 박경희 | 그대여 안녕 - I.Malgioglio |
| 오아시스 | 1980 | 잊어버려/ 춤을 춰요 | 현철과 벌떼들 | 잊어버려 (what can I do - Mike chapman) |
| 오아시스 | 1980 | 잊어버려/ 춤을 춰요 | 현철과 벌떼들 | 춤을 춰요 ( I was made for dancing) - michael Lloyd |
| 오아시스 | 1980 | 앤의 연가/ 사랑의 열차 | 김세화 | 야생화 |
| 오아시스 | 1980 | 내맘을 끄는 사람/ 애인 | 정윤선 | 아들(Anank)- Aguilar Freddie |
| 오아시스 | 1980 | 내맘을 끄는 사람/ 애인 | 정윤선 | 춤을 춰요 ( I was made for dancing) - michael Lloyd |
| 오아시스 | 1980 | 그대 생각하면서/ 당신의 마음가에 | 정연이 | 그사람 목석 hot stuff |
| 오아시스 | 1980 | 그대 생각하면서/ 당신의 마음가에 | 정연이 | 당신께 말은 안해도 (more than I can say) |
| 오아시스 | 1980 | 그대를 위한 노래/ 고속버스 | 이태원 | 사랑은 가까이(three times in love - ronald serota) |
| 기록 없음 | 1980 | 추억은 남겠지요/ 잘가요 | 박일준 | 오! 진아 |
| 오아시스 | 1981 | 떠나가는 배/ 한 오백년 | 진미령 | 내 님이 오네 (Tammy) |
| 오아시스 | 1981 |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당신의 처사가 되어 | 희자매 | 당신의 천사가 되어 (angel of the morning) |
| 오아시스 | 1981 |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당신의 처사가 되어 | 희자매 | 그래그래 (Queen of Hearts) |
| 오아시스 | 1981 |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당신의 처사가 되어 | 희자매 | 아름다운 눈동자 (bette davis Eyes) |
| 오아시스 | 1981 |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당신의 처사가 되어 | 희자매 | 축제의 밤 (sexy Music ) |
| 오아시스 | 1981 | 젊음의 축제/ 불태운 사랑 | 박지영 | 젊음의 축제 - F.Romano |
| 오아시스 | 1981 | 젊음의 축제/ 불태운 사랑 | 박지영 | 부기우기 춤추며 |
| 오아시스 | 1981 | 젊음의 축제/ 불태운 사랑 | 박지영 | 모정 -f.romano |
| 오아시스 | 1981 | 젊음의 축제/ 불태운 사랑 | 박지영 | 그대 돌아와요 F.romano |
| 오아시스 | 1981 | 젊음의 축제/ 불태운 사랑 | 박지영 | 그사람 목석 hot stuff |

| | | | | |
|---|---|---|---|---|
| 오아시스 | 1981 | 젊은 가족들 (영훼밀리) (떠난 사랑/ 길목에 핀 꽃) | 영훼밀리 | 방랑의 길손 (wayfaring stranger)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난 정말 외로워(the wanderer)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나의 사랑아 (you are my everything)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사랑해요(grease)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춤을 춰요 ( I was made for dancing) - michael Lloyd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아늘(Anank)- Aguilar Freddie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당신께 말은 안해도 (more than I can say)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그 사람 목적 (Hot stuff - Geogio Moroder)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사랑해요 (In the navy - J. Morali)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용서하세요 Pardonne Moi |
| 오아시스 | 1981 | 정윤선 팝송 애창곡집 | 정윤선 | YMCA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끝없는 사랑 (three times a lady)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당신께 필요했던 나 ( You needed me)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만약에 (if)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영혼의 방랑자 (Wayfaring stranger)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내 생애에 빛이 되어 (you light up my life)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좋은 친구 (You've got a friend)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빗속에서 울고 있는 푸른 눈동자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딕크와 제인 (dick and JAne)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오래오래 동안 (long long time)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그대 곁에 있고 싶어 ( let it be me)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사랑의 항해 sailing |
| 오아시스 | 1981 | 이종환의 추억의 팝송 | 이종환 | 주님의 은총 (amazing Grace) |
| 오아시스 | 1981 | 떠나는 길 멀어도/ 이세상 누구나 | 김상희 | 사랑해요(grease) |
| 오아시스 | 1981 | 떠나는 길 멀어도/ 이세상 누구나 | 김상희 | 나의 사랑아 (you are my everything) |
| 오아시스 | 1981 | 떠나는 길 멀어도/ 이세상 누구나 | 김상희 | 작별(Un canto - julio iglesias) |
| 오아시스 | 1981 | 떠나는 길 멀어도/ 이세상 누구나 | 김상희 | 용서하세요 Pardonne Moi하 - alain goraguer |
| 오아시스 | 1981 | 어디갔다 이제 왔니 | 희자매 | 사랑을 주세요 (physical) |
| 오아시스 | 1981 | 어디갔다 이제 왔니 | 희자매 | 당신의 천사가 되어 (angel of the morning) |
| 오아시스 | 1981 | 어디갔다 이제 왔니 | 희자매 | 그래그래래 |
| 오아시스 | 1981 | 어디갔다 이제 왔니 | 희자매 | 아름다운 눈동자 (bette davis Eyes) |
| 오아시스 | 1981 | 어디갔다 이제 왔니 | 희자매 | 축제의 밤 (sexy Music ) |

| | | | | |
|---|---|---|---|---|
| 오아시스 | 1982 | 돌아서는 그 사람/ 진정코 그대가 | 이세진 | 끝 없는 사랑/ Endless Love |
| 오아시스 | 1982 | 이연실 넋두리 전부 | 이연실 | 성연이 장난감(Marvelous Toy)- 러시아 민요 |
| 오아시스 | 1982 | 이연실 넋두리 전부 | 이연실 | 스텐카라친-러시아 민요 |
| 오아시스 | 1982 | 4인 힛송 모음집(김도향 이동원 이화 하야로비) | 김도향 | 수퍼스타 (andrew lloyd) |
| 오아시스 | 1982 | 4인 힛송 모음집(김도향 이동원 이화 하야로비) | 이경애 | 울지 마오 아르헨티나 |
| 오아시스 | 1982 | 비가올때면 나는 / 잊을 수 없는 생각들이 | 임예진 | 사랑하는 아들아 (life it self will let you know) |
| 오아시스 | 1982 |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상처 | 큰아들 | 고향으로 가는길 |
| 오아시스 | 1983 | 사랑아 지금 어디 /잊어지나요 | 황선형 | 용서 하세요 - A. Goraguer |
| 오아시스 | 1983 | 조영남/ 김도향 2집 | 김도향 | 외로운 이밤에 living next door to alice |
| 오아시스 | 1983 | 조영남/ 김도향 2집 | 조영남 김도향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
| 오아시스 | 1983 | 조영남/ 김도향 2집 | 조영남 | 라 팔로마 |
| 오아시스 | 1983 | 조영남/ 김도향 2집 | 조영남 | 오 나의 태양 |
| 오아시스 | 1983 | 석별/ 고별 | 홍민 | 고별 |
| 오아시스 | 1983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조영남 김도향 | 웨딩케익 |
| 오아시스 | 1983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조영남 김도향 | 검은 것과 하얀것 (ebony and Ivory) |
| 오아시스 | 1983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조영남 김도향 | 그대 슬퍼말아요 (kiss and say goodbye) |
| 오아시스 | 1983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조영남 김도향 | 사랑은 언제나 (perhaps love) |
| 오아시스 | 1983 | 꿈의 대화 - 조영남 김도향 | 조영남 김도향 | 무정한 마음 |
| 오아시스 | 1984 | 여자/잊어주세요 | 임종님 | 비밀 (외국곡) |
| 오아시스 | 1984 | 사랑의 오해/비가 | 최유나 | 이밤 (Tonight celebrate my love) |
| 오아시스 | 1984 | 빈손/ 연분홍 꽃편지 | 숙자매 | 사랑의 항해 sailing |
| 오아시스 | 1984 | 사랑합니다/ 목마른 연인 | 희자매 | 사랑의 바닷가 playa blanka |
| 오아시스 | 1984 | 사랑합니다/ 목마른 연인 | 희자매 | 님이여 don't give up |
| 오아시스 | 1984 | 사랑합니다/ 목마른 연인 | 희자매 | 나의 사랑 bereue keinen äugen blick |
| 오아시스 | 1984 | 사랑합니다/ 목마른 연인 | 희자매 | 무정한 사람 get up |
| 오아시스 | 1984 | 사랑합니다/ 목마른 연인 | 희자매 | 그래그래 (Queen of Hearts) |
| 오아시스 | 1984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김준 | ramona-mabel wayne |
| 오아시스 | 1984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김준 | swan lake -tchaikovsky |
| 오아시스 | 1984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김준 | too young - lippmann |
| 오아시스 | 1984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김준 | i left my hear in sanfrancisco (cory george) |
| 오아시스 | 1984 | just friends kim jun in jazz | 김준 | happy birthday song |
| 오아시스 | 1984 | 산제비/낙화 | 김경남 | 제비 (외국곡) |
| 오아시스 | 1984 | 이별/제비 | 조영남 | 고향의 푸른 잔디 |
| 오아시스 | 1984 | 이별/제비 | 조영남 | 내생애 단한번만 |

| | | | | |
|---|---|---|---|---|
| 오아시스 | 1984 | 이별/제비 | 조영남 | 등대지기 |
| 오아시스 | 1984 | 이별/제비 | 조영남 | 내 집에 가고 싶네 |
| 오아시스 | 1984 | 이별/제비 | 조영남 | 오솔길 |
| 오아시스 | 1984 | 이별/제비 | 조영남 | 제비 |
| 오아시스 | 1984 | 웬일일까 / 물망초 | 황선형 | 용서하세요 |
| 오아시스 | 1985 | 서수남과 하청일 (날마다 희망을 / 친구가 그립구나) | 서수남과 하청일 | 로렐라이 |
| 오아시스 | 1986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숙자매 | 점프 ( Jump) |
| 오아시스 | 1986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숙자매 | 춤을 추어요(do you wanna dance) |
| 오아시스 | 1986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숙자매 | 마리아 (maria) |
| 오아시스 | 1986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숙자매 | 미련 없이 (swept away) |
| 오아시스 | 1986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숙자매 | 망상(imagination) |
| 오아시스 | 1986 | 아리랑/ 그날처럼 비가 내리네 | 숙자매 | 속시원히(do you wanna funk)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나의 길 (my way)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당신만을 사랑하며 (I know)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정오 (high noon)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사랑한다 말 안해도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눈물 속에 피는 꽃 (limmensita)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사랑의 두 뺨 |
| 오아시스 | 1986 | 바닷가의 포옹/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갈종국 | 재회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 10곡 메들리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거룩한 밤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올드랭 사인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화이트 크리스마스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노엘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주 은혜 놀라와 |
| 오아시스 | 1986 | 서울훼미리 캐롤모음 | 서울패밀리 | 산타할아버지 |
| 오아시스 | 1987 | 한강 축제/ 신 웅해야 | 준씨스터즈 | 사랑의 항해 sailing |

3) 건전 외국 가요 목록

| 분류 | 곡목 | 가수 |
|---|---|---|
| 희망과 건전한 삶을 구가하는 노래 | Bridge over troubled water | Simon and Garfunkel |
| | Calypso | John Denver |
| | Congratulation | Cliff Richard |
| | Don't Touch me | Jeannie Seely |
| | El Condor Pasa | Simon and Garfunkel |
| | Good day sunshine | Beatles |
| | Have you never been mellow | Olivia Newton John |
| | High Hopes | Frank Sinatra |
| | I believe in music | Helen Reddy |
| | I gotta be me | Sammy Davis Jr. |
| | I just want to celebrate | Rare Earth |
| | If I can dream | Elvis Presely |
| | Impossible Dreams | Andy Williams |
| | Jubiliation | Paul Anka |
| | Let's think about living | Bob Luman |
| | Life is a song worth singing | Johnny Mathis |
| | The morning after | Mauleene McGovers |
| | Morning has broken | Cat stevens |
| | My way | Frank Sinatra |
| | No no song | Ringo Starr |
| | Obladi Oblada | Beatles |
| | Oh! happy day | The Edwin Ha wkins Singers |
| | Okie from Muskogee | Merle Hagard |
| | Orange Blossom Special | Johnny Cash |
| | Over the Rainbow | Judy Garland |
| |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 B. J. Thomas |
| | Respect | Aretha Franklin |
| | Rhinestone Cowboy | Glen Campbell |
| | Sing | Carpenters |
| | Singing my song | Tammy Wynette |
| | Song of Joy | Migueal de Los Rios |
| | Spinning Wheel | Blood, Sweat and Tears |
| | Stand | Sly and the Family stone |
| | Sunny | Bobby Hebb |
| | Sunshine on my shoulder | John Denver |
| | That's When the music takes me | Neil Sedaka |
| | We've Only just begun | Carpenters |
| | Whispering Hopes | Jim Reeves |
| | You can make it if you try | Sly and the Family stone |

| | | |
|---|---|---|
| 건전한 가정생활, 효, 부부애의 노래 | Annie's song | John Denver |
| | Cats in the gradle | Harry Chapin |
| | Dance with papa | Andre Claveau |
| | Don't Cry Daddy | Elvis Presely |
| | Grandfather's Clock | Sam Cooke |
| | Hawaiian Wedding song | Trini Lopez |
| | Little green apples | O.C.Smith |
| | Mama | Connie Francis |
| | Mam and Dad's Waltz | Lefty Frizzel, Patti Page |
| | Moter of Mine | Jimmy Osmond |
| | My boy | Elvis Presely |
| | My cup Runneth over | Ed ames |
| | My dad | Paul Peterson |
| | My Elusive Dreams | David Houston and Tammy |
| | My Woman, My Wife | Marty Robbins |
| | Oh! my papa | Eddie Fisher |
| | Papa | Paul Anka |
| | papa aime mama | Yvette Giraud |
| | Stand by your man | Tammy Wynette |
| | Stop and smell the roses | Mac Davis |
| | The ways to love a man | Tammy Wynette |
| | What will my mary say? | Johnny Mathis |
| | We'll be one by two today | Lobo |
| | Who's making love | Tony Taylor |
| 시정이 담긴 아름다운 연가 | A Certain smile | Johnny Mathis |
| | A little bitty tear | Burl Ives |
| | A song for young love | Lettermen |
| | Almost persuaded | David Houston |
| | All I have to offer you is me | Charlie Pride |
| | Anything that's part of you | Elvis Presely |
| | B-A-B-Y | Carla Thomas |
| | Before the next teardrops fall | Freddy Fender |
| |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 Willie Nelson |
| | Chances are | Johnny Mathis |
| | Dedicated to the one I love | Mamas and Papas |
| | Dream a little dream of me | Mama Cass |
| | Ebb tide | Righteous Brothers |
| | Endlessly | Brook Benton |
| | Everybody loves a lover | Doris Day |
| | Feelings | Morris Albert |
| | For once in my life | Stevie Wonder |
| | Fraulein | Wanda Jackson |
| | Gentle on my mind | Glen campbell |
| | Goodbye my love | James Brown |
| | Gypsy Woman | The Impresssions |
| | He'll have to go | Jim Reeves |
| | Holly Holly | Neil Diamond |
| | I can help | Bily Swan |
| | I can't stop loving you | Ray Charles, Don Gibson |
| | I love you because | Jim Reeves |
| | I only have eyes for you | Art Garfunkel |
| | I walk the line | Johnny Cash |
| | If a man answers | Bobby Darin |
| | If I were a carpenter | Bobby Darin |
| | It's just a matter of time | Brook Benton |
| | It must be him | Vicky Carr |
| | I'll be there | Jackson 5 |
| | I'll never find another you | Sonny James |
| |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 Dion Warwick |
| | Jambalaya | Hank Williams |

## Abstract

# Arrival of Western Popular Music Through Popular Music-Translation (Pŏnan'gayo)

## - Based on Political Topographical Changes of Korean Society From 1910 To 1987 -

So Hyun, Park
Department of Music,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Popular Music-Translation using politica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Definition of Popular Music-Translation is a popular music that changed only lyrics into its own language based on songs that are already created in other countries. Lyrics are changed in order to adapt into different countries' society. This music also help a foreign society or foreign listeners to easily accept them.

Popular Music - Translation has been produced in Korean Society from 1910 to 1987, which was before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TO TRIPS agreement, and this music have influenced Korean popular music market in many aspects, for example, diversifying popular music genre and played as a bridge that connected Korean society and Foreign popular music.

Interestingly, history of Popular Music – Translation was longer. This music had existed at the very beginning of Korean popular music market. In 1926, 〈Hymn of Death(Sa eu Chanmi)〉 was released, which was based on Invanovici's 〈Donau Wellen Walzer〉. 〈Hymn of Death〉 was the first Korean popular music and also the first Popular Music – Translation in Korean society. This piece vitalized Korean Popular music market, settling standard form of popular music. As this example illustrates, Popular music – Translation was not only the indicator of inflow of foreign popular music but also a large body of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from the beginning.

In spite of this importance, Popular music – translation's empirical researches were not done vigorously because it was 'remake of existing song' which is not an 'original song'.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e in research. Some are focused on lyrical or rhythmic changes comparing Popular music – translation and an original song, and others have demonstrated 'Modernity' through examining popular music – translation due to their origination – mostly from Western countries – which have led into dichotomous discussion. These recent studies might have been able to dig up the fact that had not been covered by former Korean popular music studies but still they are not

effective enough to make comprehensive perspective of Popular music – translation.

As known by the explanations from recent studies, Popular music – translation was a root for variety of genres in Korean popular music market. Analysis on this kind of music equals to analysis on every aspect of Western music that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popular music industry from 1910 to 1987. More importantly, in order to play a major role in the industry their existence had to be in the same position as the original works. What were the key component that made them possible to remain in the same position as the original work? Although Korean copyright law has existed since 1957, this law was not strictly applied to remake songs at the time. This means that more tremendous power had been appli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Popular music – translation. And the 'more tremendous power' are assumed to be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s' institutional devices, which had changed based on political topographical changes.

Based on the main question, this thesis will use political background in order to analyze Popular music – translations in Korea. According to Korean political topography, the duration from 1910 to 1987 could be divided into 3 separate time lines,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USAMGIK and Presidency of Syngman Rhee (1945-1961), and Presidency of Junghee Park and Duhwan Jeong (1961-1987). For more detailed analysis, each duration is also divided based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made

by each government. The samples for this study were based on different sources for each political era due to difference of social aspect and technical background – 'Korean Sp Archive' for the first part, News Archive for the middle, and 'KBS Music Archive' for the last part of this study.

The list of Popular music – translations for each designated time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timeline. Yearly released rate and genre proportion based on the list were suggested and analysis were done at the point where unusual rates or the outliers were found on the graph. These analysis were done in order to find the relation of political background and Popular music – translation.

As a result, production of Korean popular music – translation was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based on the political aim of each time line, which means that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music was controlled by government. In Japanese Colonial Era, from 1910 to 1938 government led society to synchronize with Western music which resulted in increase of production rate. However after 1938 dramatical decrease was found due to prohibition of Western music by government. From 1945 to 1961, AFKN and US 8$^{th}$ army show led popular society to get familiar with the American culture and also, the anti-communism – which was main ideology of the government at the time– had provoked society to accept the Western liberal counties' culture. This era functioned as a base for the adaptation of Western music afterwards. From 1961 to 1987, Park and Jeon's

presidency's graph also looks similar to Japanese colonial era, production rate increased until 1975 and dramatical decrease after 1975. At first, Park's regime was positive about the translated popular music but after 1966 there were several attempts made by government to control the popular music which is reflected on the decrease of production rate. and After 1975, when the highest level of inspection was applied to popular culture, production rate has more decreased due to the continuing censorship done by both regime.

The yearly production graphs had proved that the political aim and production rate of popular music - translation have a strong correlation, also meaning that the popular music industry was effected by the institutional device. This institutional devices were based on political ideology which had shown changes in governments' attitudes toward Western popular music over the period. Because of these changes made by the government, Popular music - translation had been constantly repositioned in music industry time to time, from alternative to main and from main to minor stream.

By looking at the proportion of Genre, the changes had occured whenever government changed their attitude toward Western music. In Japanese colonial era, government prohibited Jazz genre music after 1938 where the proportion of Western popular music genre decreased compared to the former time. Also, after 1975, when government framed Folk and Rock genre as 'anti-government' music in order to control the protest

movement, Folk and Rock genres' propotion had decreased compared to 1960s. This demonstrates that Popular music – translation genre and political aim were strongly connected.

Analysis on Popular music – translation has revealed several important facts and also captured significant moments in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And as this study has proved through Popular music – translation, popular music is not only art but also a political and social product due to the relationship of society and popular music, which exhibited strong bond between popular music and society. And most importantly, by the method using political background and statistical information of Popular music – translation,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should be described based on the changes of political topography as Popular music – translation represents large part of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Keyword**: Pŏnan'gayo, Popular music-translation, Political topography, Institutional device of music,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Inflow of Western popular music.
**Student Number**: 2019-23239